

國語學研究의 方向定立을 위한 基礎的 研究*

高永根 · 金完鎮 · 安秉禧 ·
李秉根 · 李翊燮**

I. 머리말

大學院 課程에서 國語學研究의 內實化를 기하기 위하여는 우선 國語學研究의 올바른 方向定立이 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는 앞으로의 效率的 大學院 教育과 그 質的 向上을 위하여 國語學研究의 核心을 이루어 온 音韻論 및 文法論 分野에 대한 기초적 연구를 시도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기초적 연구는 國語學의 다른 分野에 대해서도 年次的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大學院 國語學 教科課程에 관련시켜 音韻論과 文法論 분야의 업적들을 검토하여 그 연구사적 意義를 부여하고 앞으로의 研究方向을 제시함으로써 國語學研究의 方向定立을 피하고 나아가서 大學院의 國語學 전공자에게 學問의 指針을 마련해 주는 데 그 目的이 있다.

分野別 분담사항은 다음과 같다.

音聲學 · 音韻論 分野 : 金完鎮 · 李秉根

文法論 分野 : 高永根 · 安秉禧 · 李翊燮

II. 音聲學 · 音韻論의 研究

1. 朝鮮時代의 音學

國語의 音聲 및 音韻에 대한 研究는 우리 民族의 文化遺產 가운데 최

* 本稿는 1979年度 文教部學術研究 助成費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 高永根(人文大 副教授), 金完鎮(人文大 教授), 安秉禧(人文大 教授), 李秉根(人文大 助教授), 李翊燮(人文大 副教授)

대의 것이라 할 수 있는 訓民正音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이것은 製字原理에 대한 音聲學的・音韻論的 理論을 뜻하는 것이다. 音節單位의 認識과 音節의 三分法이라는 獨創性, 그리고 이에 따른 母音字와 子音字의 製字原理 역시 獨創的인 것이었다. 子音字들의 製字原理는 비록 그 韻論的 理論體系가 中國의 韵學體系 속의 聲母體系에 의존되었던 것이기는 하나 매우 整齊된 音聲學的 觀察의 기초 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한편 母音字의 製字原理는 天・地・人 三才에 대한 象形에 바탕을 두어서, 子音字들의 發音器官에 대한 象形과는 對照를 이루고 있다. 母音字에 대한 이러한 獨步的인 認識은 韵學의 體系가 母音에 대한 잘 정제된 理論體系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데에 연유한다. 音節의 初・中・終聲으로의 三分法은 西歐의 言語理論에서는 20세기 중엽에 가능했던 것이다. 訓民正音의 理論이 비록 製字原理이기는 하지만, 音韻論의 중요성을 지니는 것은 當時 言語學者들의 철저한 音聲學的 認識을 바탕으로 하였다는 점과, 나아가서 그들이 인식한 韵學의 단위들을 개개의 고립된 단위로가 아니라 일정한 資質들(清濁 厲聲 縮聲 등)에 의하여 일정한 音의 ‘근치’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世宗과 그의 集賢殿 學士들이 추진했던 이러한 韵學의 研究는 實學的復興이 일기까지는 空白狀態에 빠져 있었다. 譯官出身의 崔世珍(中宗祖)이 “暗黒時代에 나타난 慧星과 같은 存在”로 평가되기도 하였으나 〈金光經의 말〉, 實用爲主의 整理와 教材編纂을 本領으로 하였기에 音韻論의 次元에서의 進取의 創意性까지는 보여 주지 못하였다. 그는 漢語譯官이었기 때문에 訓民正音도 漢字音을 表示하기 위해 쓰인 反切로 본다든가 韵書로서의 「四聲通解」를 짓는다든가 하였던 것이다.

訓民正音에서의 韵學의 研究가 더욱 철저하게 性理學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 이른바 實學時代이었다. 이 時期의 대표적인 業績으로는 「經世正韻」(崔錫鼎), 「訓民正音韻解」(申景瀞), 「諺文志」(柳信) 등인데, 이들 연구는 대체로 後世의 國語研究에 方法論의 으로 이바지하지는 못

했다. 그들의 주된 관심이 中原에서의 韻學理論의 發展에 着力기에 世宗代의 先輩들의 音韻論의 認識을 계승·발전시키기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다만 散發的으로나마 國語의 音學의 ‘事實’을 언급하고 있어 音韻史研究에서 때로 重視되기도 한다. 가령 朴性源(1747)과 柳僖(1824)에서의 *t口蓋音化*라는 音韻史에 대한 認識, 申景濬(1750)에서의 ‘..’字 主張의 바탕이 되는 音學의 觀察(其聲比·差重 其氣比·差長) 및 이에 대한 柳僖의 批判, 朴性源의 ‘◇’字 主張에서 볼 수 있는洞察力있는 音學의 單位의 分析 등은 國語音韻史研究에서 자주 論議되는 것들이다.

요컨대, 朝鮮時代의 國語學은 獨創的인 訓民正音의 理論을 확립한 뒤에 비록 그 獨創的 認識을 발전시키지는 못했을 지라도, 그 性理學의 背景 속에서 韵學의 音學의 傳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實學時代에 접어들어 國語의 ‘事實’에 바탕을 둔 記述의 폭이 訓民正音의 경우에 비해 약간 넓어졌을 뿐이다.

2. 開港에서 解放까지

—西歐 言語敘述方法의 應用—

이렇듯 「訓民正音」에서 비롯된 文字·音學의 研究가 性理學의 背景 속에서 實學時代에 傳統化되 다시피 된 傾向으로부터 벗어나면서 國語의 現實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돌리게 한 時期가 19세기 後半期였다. 開港期에 접어들면서 宣教師들을 중심한 外國人們은 韓國語의 言語의 現象을 그들의 文法論의 렌즈를 통해서 叙述하게 되었는바, 그 序說로서 音學의 관심을 보이곤 하였던 것이다. 흔히 傳統的인 文法書에서 볼 수 있듯이 文字와 音韻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韓語文典」(*Grammaire coréenne*, 1881)의 그것이 音長을 비롯한 몇몇 音의 現象을 叙述하고 있는 점 등은 새로운 것이었다. 解放 이전의 대부분의 文法書들은 바로 이러한 西歐의 文法體系 叙述을 따른 것이었다. 그 音學의 叙述內容은 母音 子音 音節 등을 文字와 관련시켜 單位들을 제시하고 이어서 이른바 ‘子音接變’ 등의 音韻現象들을 서술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朝鮮朝의 韵

學的 研究는 傳統化되지 못하고 말았다. 俞吉瀬으로부터 崔鉉培 등에 이르기까지의 文法書들이 이를 증명하여 주고 있다.

文法書의 序說的 叙述로서의 音學的 研究 이외에 本格的인 音學研究는 周時經에게서 비롯되었다. 일차적으로는 語文整理를 통한 愛國啓蒙에 그 動機가 있었지만, 우선 그는 訓民正音을 중심으로 한 國文의 音韻史的研究에 깊은 관심을 가져 「대한국어문법」「國文研究案」「國語文典音學」등에서 消失文字의 音價를 증명하려 하였다. 「國語文法」등의 그의 文法書에서는 역시 音學을 序說的인 것으로 주로 音韻史的인 면에서 叙述하였으나, 「말의 소리」(1914)에 이르러 드디어 철저한 共時音韻論을 論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책에서는 끊임없이 論證해온 ‘、’의 音價論은 등장시키지 않았다. 文字・音韻의 統合的 考察로부터도 탈피하여 ‘말고’에서의 ‘ㅌ’과 같은 本音的 表記의 主張은 제시하지 않게 되고 ‘많고→말고’와 같이 元素的 分析에 의한 形態音素論의 叙述을 폐하였다. 文法體系 자체는 西歐의인 것이었으나 元素的 單位의 設定과 合成의 元素的 分析이라는 철저한 分析方法과 體系的 叙述이라는 점에서 周時經은 獨創의이었다. 世宗에게 있어서의 韻學 및 性理學에 대한 造詣에 比肩할 만한 外來의인 言語理論에의 접촉을 그에게 想定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英語學習을 통해서 얻어진 初步의인 外來의 知識이나 일부 宣教師들의 文法書로부터 얻은 知識 정도가 고작이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數學이나 自然科學의 初步의 知識을 수용하여 그 나름대로의 獨창적인 叙述方式을 체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周時經의 理論은 그의 직접적인 後繼者인 金科奉에게서 繼承・發展되기도 하였다. 「조선말본」(1916)의 〈소리갈〉에서는 生理音聲學의 音學研究를 보다 깊이하기도 하였고 또한 共時態와 通時態를 구별하여, 周時經의 경우와 같이 ‘、’를 비록 흘소리의 거듭으로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요사이 우리말의 소리에 도모지 쓰이지 아니 하나니라”라하였다. 또한 周時經이 「말의소리」에서까지 ‘ㅔ, ㅐ’를 흘소리의 거듭

으로 보았던 抽象的 叙述과 달리 「조선말본」에서는 「ㅓ ㅏ」를 製字原理와 구별하여 「芙蓉소리」로 보고서 이들을 포함하는 8母音體系를 설정한 사실은 母音論史에서 특기할 만하다. 安廓의 「朝鮮文法」(1917)에서도 「ㅏ ㅓ ㅗ ㅜ ㅣ ㅓ ㅏ」의 8개의 元母音을 설정하였는데, 周時經의 理論을 답습하다시피 한 李圭榮의 「現今朝鮮文典」(1920)에서는 「ㅓ ㅏ」 등을 여전히 거듭으로 기술하고 있다. 金科奉은 國語의 Suprasegmentals에도 관심을 보여 「길이」(깊소리 : 예사소리) 및 「높이」(높은소리 : 예사소리 : 낮은소리)를 모두 서술하였으나, 이는 方言現象을 혼동한 것인 듯하다. 小倉進平의 「國語及朝鮮語 發音概說」(1923)은 音聲學의 基초 위에서 日本語와 韓國語와의 音聲을 對照的으로 설명한 것으로, 發音器官 音韻各論 및 音의 結合 등을 내용으로 하였는바, 주로 共時論의 基础서술이나 때로 二重母音의 單母音化, 口蓋音化 등의 音韻史의 基础서술도 결들이고 있다.

1930년대까지의 연구는 音聲과 音韻을 구별하여 서술하지 않은 音學的研究이었다. 同化作用 등을 폭넓게 概說한 李崇寧의 “산 朝鮮語의 研究”(1931~1932)와, 基準母音과 母音圖表를 소개한 金善琪(1938)등이 발표되는 가운데, 朴勝彬의 「朝鮮語學講義要旨」(1931)에서 드디어 理論音과 標準音을 각각 구별하게 되어 音素에匹敵한 개념(標準音)에 도달하게 되기도 하였고, 崔鉉培의 「우리말본」(1937)에 phoneme이란 術語가 쓰이기는 하였으나 아직 音韻論의 확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崔鉉培는 「우리말본 첫째매」(1929)에서 아직 共時論과 通時論을 구별하지 않았었으나, 그 뒤에 「우리말본」의 “말소리갈”에서는 現代國語의 共時의 基础 면만을 다루었고 音韻史의 基础 관심은 「한글갈」(1942)로 미루어 文字史 중심의 音價論으로서 서술하였다. 이는 ‘갈바씨기의 세움’(並書論)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朴勝彬의 “硬音論”(1935)과 申明均의 “朴勝彬氏의 所謂 硬音이란 歷史上 聲音上 아무 根據가 없다”(1937)와의 論爭을 거쳐 50年代의 並書音價論으로 넘어 오게 되었다. 方鍾鉉의 方言에 나타나는

△ 음의 變遷”(1935) 등도 消失文字에 관련된 方言音韻史研究이다.

한편 母音調和의 연구로 音韻史的 觀心을 보인 小倉進平은 方言研究 도 ‘·, △, ஃ, (ㄱ)’ 등과 二重母音 등을 중심으로 音韻史研究를 個體 史의 으로 행하였고 河野六郎 역시 이를 繼承・發展시켰다.

‘異化作用’ 및 특히 ‘ㆁ’ 등을 다루면서 1940년을 前後해서 등장한 李 崇寧은 音韻과 音聲을 구별하고 音韻體系를 인식하며 共時論과 通時論 을 구별하는 近代的方法論을 이미 體得하였었으나, 그의 본격적인 音 韵論은 解放 以後에 展開된다.

李克魯의 「實驗圖解 朝鮮語音聲學」(1947)은 출판년도와는 달리 解放 前의 업적이라 할 수 있는데, 韓國人에 의한 최초의 音聲學 單行本으로 人工口蓋帆등을 이용한 實驗音聲學에 속하는 것이다.

3. 解放 30年間의 音韻論 研究의 動向

朝鮮時代의 音學의 研究에 있어서의 한 特徵은 文字에 관련된 音價研 究이었다. ‘ㆁ’의 音價論은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傳統은 周時 經을 비롯한 近代國語學者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言語研究의 動機가 現實集約인 데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國語學을 科學으로서의 言語學으로 定立하려고 노력해온 李崇寧은 音 韵史의 研究의 傳統 속에서 科學으로서의 音韻論을 定立시켰다. 그의 “、音攷”(1940)는 音韻論的 見地에서 15세기의 母音體系를 고려하여 ‘、’ 音價를 論議했던 것으로 자못 現代言語學의 方法論에 의한 國語音 韵論 研究의 磘矢를 이룬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론바 消失文字 중심 的 音價論이라는 音韻史의 研究는 해방 이후 더욱 深化되어 왔다. 李崇寧의 「朝鮮語音韻論」第1輯 ‘、’ 音攷(1949)는 그 代表著作으로 音價論 을 代継하였던 것인바, 「訓民正音」敘述內容의 검토와 音韻史의 고찰을 통하여 ‘、’의 音價를 推定하였다. 그에게 ‘脣音攷’(1954) ‘△音攷’(1956)와 같은 音價論 및 音韻史論이 뒤이어 나온 것은 자연스러운 결 과이기도 하다. 또한 文字 중심의 音價研究에서 더 나아가 音韻體系를

音韻現象과의 力動的 關係 속에서 音韻史의으로 연구하였던 “朝鮮語의 히아투스와 子音 發達에 對하여”(1947) “母音調和研究”(1947) “애·에·외의 音價變異論”(1949) “十五世紀의 母音體系와 二重母音의 Kontraktion 的 發達에 對하여”(1954) 등은 國語音韻論 研究史의 한 場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50年代 前半期에도 이러한 音價研究의 風潮 속에서 金亨奎의 “ $\delta\theta$ 音考” “ $\beta\gamma$ 音考” “ Δ 音考”(모두 1948), 許雄의 “애·에·외·위의 音價”(1952) 및 “並書의 音價에 對한 反省”(1953)과, 金敏洙의 “各自並書音價論”(1953) 및 “合用並書音價論”(1955) 등의 音價論이 속출하였는바, 音價論의 對象音들은 대부분 15세기의 그것들이었음이 한 特徵으로 지적될 수 있다.

李基文의 “語頭子音群의 生成 및 發達에 對하여”(1955), 許雄의 “初點研究”(1955) 등의 論文들은 비록 中世國語를 起點으로 하였으나 단순한 音價論을 뛰어넘어 時代差를 고려한 音韻史의 觀點에서 쓰여진 것들이다. 安秉禧의 “重刊杜詩諺解의 t口蓋音化에 對하여”(1957)는 音韻史의 文獻考證研究로 t口蓋音化의 年代를 밝혀 주었다. 音價의 推定 및 音價變異論에서는 흔히 그 音價의 變化時期가 문제가 되곤 했던 점도 하나의 두드러진 特徵이라 할 수 있다. 變化時期의 推定은 言語外의인 政治·文化史의 考慮를 벗어나 言語內의인 變化의 時期를 찾으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李基文의 「十六世紀國語의 研究」(1959/1978)는 音韻史의 研究가 主가 되었는바, ‘ Δ ’ 音의 消失이 16世紀 中葉에, ‘、’ 音의 消失은 第2音節 이하에서 16世紀에 시작되었음을 강조하였다.

音韻現象을 중심으로 한 연구도 日帝下에서 없었던 것은 아니다(예: 李崇寧의 “音韻轉位現象에 對하여”(1939), 鄭寅承의 “|母音 逆行同化”(1938) 등), 解放 뒤에 金亨奎의 “子音同化의 研究”(1946), 南廣祐의 “長短音攷”(1954~1955) 등이 있었다. 李崇寧의 “現代 서울말의 Accent의 考察”(1959)은 音聲學의 次元의 것이었는바, 音聲研究의 潛症 속에서

등장한 것이었다.

許雄의 “國語의 音韻”(1957) 및 “慶尚道方言의 韻調”(1954) 등은 體系 내지는 類型을 이해하려고 한 共時言語學으로서의 記述音韻論에 속하는 것들이었으며, 金完鎮의 “中世國語 二重母音의 音韻論의 解釋에 對하여”(1964)도 中世國語의 二重母音體系를 共時的으로 體系化시키려 한 것이었다. 許雄의 “국어의 상승적 이중모음체계에 있어서의 빈간”(1968)은 15세기와 현대를 대상으로 상승적 이중모음에 있어서의 빈간에 대한 음성학적 이유를 논하였고, S. Martin의 “Korean Phonemics”(1951) 및 H. Umeda의 “Phonemic System of Modern Korean”(1957) 등은 現代國語의 共時音韻論이었다. 이러한 體系의 관심 속에서 音韻史研究도 體系 위주의 認識의 場을 마련하게 되었다. 體系 중심의 音韻論은 첫째로 音聲과 音韻과의 구별을 더욱 분명하게 하여 주었고, 둘째로 音韻現象을 體系와의 有機的 關係 아래에서 관찰하게 하였으며, 세째로는 音韻變化를 體系의 變遷으로 서술하게 하였다. 時代區分도 물론 이에 따르게 되었다. 金完鎮의 “國語母音體系의 新考察”(1964)은 이러한 音韻史研究의 경향을 보여준 것이었다. 金芳漢의 “國語母音體系의 變動에 關한 考察”(1964)도 같은 태도로 쓰여진 것이었다. 許雄의 “齒音攷”(1964)는 크게는 音價論에 드는 것인바 中世國語의 ‘ㅈ ㅊ’ 등의 齒音系子音들이 現代國語의 口蓋音과는 달리 舌端의 齒槽音이었음을 주장하면서, 口蓋音化를 중심으로 齒音 > 口蓋音으로의 變化時期를 18세기와 19세기와의 交替期로 推定하였다. 李基文의 “Mongolian Loan-words in Middle Korean”(1964)에서도 中世國語의 /ㅈ/이 [tʃ], [dʒ]가 아닌 [ts, dz]이었음을 論하였고, 다시 “中世國語 音韻論의 諸問題”(1969)에서는 /△/도 [z, ʒ]이 아닌 오직 [z]이었고 /ㅎ/도 [ç]와 같은 口蓋音化된 異音을 가질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ㄷ/ > /ㅈ/과 같은 口蓋音化는 [ts] > [tʃ]와 [dz] > [dʒ]와의 변화 뒤에야 가능했다는 結論에 이르렀다. 母音調和에 대한 研究도 母音體系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 새로운 문제

들이 제기되었다. 李基文의 “母音調和와 母音體系”(1968)는 金完鎮(1964)과는 달리 母音調和를 形態音素의in 현상으로 보고서 그 調和體系가 母音體系와 不合致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母音體系와 母音調和와의 音韻史의in 관계에 대한 논의는 服部四郎의 “中世韓國語의 母音調和와 母音體系”(1974) 李秉根의 “19세기 國語의 母音體系와 母音調和”(1976) 등에 이어, 다시 김진우의 “Diagonal vowel harmony?”(1978), 金完鎮의 “母音體系와 母音調和에 대한 反省”(1978), Kim-Renaud의 “Semantic Features in Phonology”(1978) 등의 生成理論의in 論議가 쏟아졌는바, 金完鎮(1978)에서 ‘縮’이란 資質에 주목하여 Diagonal한 母音體系를 想定한 데 대하여 또다시 李基文의 “中世國語 音韻論의 現狀과 課題”(1979)에서 ‘縮’이란 資質은 自然言語가 지니는 一般性을 결여한 創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여전히 論議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60年代에 본격화한 音韻體系와 音韻現象을 有機的으로 이해하려는 音韻史研究는 李秉根의 “19세기 後期 國語의 母音體系”(1970), “京畿地域語의 母音體系와 非圓脣母音化”(1970) 등을 낳게도 하였다. 姜信沆의 “鶴林類事「高麗方言」의 韻母音과 15세紀 中世國語의 中聲 및 終聲”(1978)와 “中國字音과의 對音으로 본 國語母音體系”(1978)는 鶴林遺事의 時期로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의 母音體系를 다루고 있다.

聲調(또는 악센트)에 대한 音韻論의 연구는 자연히 中世國語와 現代方言 특히 東南方言에 집중되었는데, 鄭然粲의 “15세紀 國語의 Tone에 대한 研究”(1960)는 당시의 聲調體系가 低:高의 두 聲調素를 지닌다는 주장을 한 최초의 記述의in 연구로서, 그의 계속된 이 방면의 연구는 「慶尙道方言聲調의 研究」(1974/1977)와 「國語聲調에 관한 研究」(1976)로 集大成되었다. 金完鎮의 “形態部 聲調의 動搖에 대하여”(1963)는 聲調類型을 파악하려던 당시까지의 聲調論과는 달리 形態部 聲調의 基本形 설정과 그 交替 機制의 파악, 또 이들의 音韻史의 叙述을 피하였다.

形態音素論의인 성격이었다. 金完鎮의 聲調論은 生成理論을 導入한 뒤 발전시켜 「中世國語 聲調 研究」(1972/1977)로 集約하였다. 文孝根의 「韓國語聲調의 分析的 研究」(1974)도 당시까지의 그의 聲調論을 集約한 것이고 S.R. Ramsey의 *Accent and Morphology in Korean Dialects*(1975/1978)은 咸鏡道方言학센트를 최초로 記述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金次均의 「경상도방언의 성조체계」(1977)와 李相億의 *Middle Korean Tonology*(1979)는 生成音韻論의 테두리에서 쓰여진 것이다.

形態音素論의인 考察은 傳統的인 文法書들의 부분적인 叙述을 제외하면 S. Martin의 *Korean Morphonemics*(1952)가 그 대표적인데, 이는 形態素論 쪽에 오히려 강한 듯하며, 金敏洙의 “*助詞研究*”(1952)는 名詞의 基本形 設定에 관한 것으로 크게는 音韻論에 속하게 된다. 安秉禧의 “十五世紀 國語의 活用語幹에 對한 形態論의 研究”(1960/1978)는 形態論의 틀 속에서 音韻現象을 다룬 共時音韻論이며, 李基文의 “中世國語의 特殊語幹交替에 對하여”(1962)도 記述의in 形態音素論에 속할 수 있는 것이다. 現代國語에 대한 이 方면의 연구는 김석득의 “*형태음소론*”(1962)와 같은 記述의in 단계를 거쳐 生成理論의 영향 아래서 70년 대에 정밀화된다(後述).

60年代의 國語音韻論에 있어서도 中世國語(특히 15세기) 이전의 音韻史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다. 金完鎮의 “原始國語 母音論에 關係된 數三의 課題”(1965), “高句麗語에 있어서의 t口蓋音化作用에 對하여”(1968), 李基文의 “十三世紀 中葉의 國語資料”(1963) “高句麗의 言語와 그 特징”(1968), “鶴林類事의 再檢討”(1968), “朝鮮館譯語의 綜合的檢討”(1968), 姜信流의 “朝鮮館譯語新釋”(1971), “朝鮮館譯語의 寫音에 대하여”(1972) 등은 音韻史의 關心 속에 쓰여진 것들이다.

古代國語의 音韻論의 研究는 자연히 漢字音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河野六郎의 「朝鮮漢字音의 研究」(1968), 俞昌均의 「韓國古代漢字音의 研究」(1967), 「東國正韻研究」(1966), 李東林의 「東國正韻研究」(1970), 朴

炳采의 「古代國語의 研究」(1971)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百濟語에 대한 연구로는 都守熙의 「百濟語研究」(1978)가 있는바, 자신의 연구를 集約시킨 것이다.

近代國語에 대한 연구는 60년대 후반에 관심이 일기 시작하여 田光鉉의 “17世紀 國語의 研究”(1967), 李秉根의 “19世紀 後期 國語의 母音體系”(1970), 田光鉉의 “18世紀 後期 國語의 一考察”(1971), 宋敏의 “18世紀 前期國語의 母音體系”(1973), 李崇寧의 “17世紀 國語의 音韻史의 考察”(1971) 등 확대되고 있으며 南廣祐는 近代國語資料들을 계속 解題하고 있다. 田光鉉의 “南原地域語의 語末 U型語彙에 대한 通時音韻論的小考”(1976)는 近代國語와 관련시켜 二重母音史를 論한 것이다.

國語音聲學은 60년대에 대단히 興起를 맞이하였는바, 그것들은 대부분 이 實驗音聲學에 속하며 國外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A. Skaličková의 *The Korean Consonants*(1960)와 *The Korean Vowels*(1961)를 비롯하여 M.S. Han의 “Acoustic Phonetics of Korean”(1963)과 “Duration of Korean Vowels”(1964), Han & Weitmann의 “Acoustic Characteristics of Korean Stop Consonants”(1965)와 “Acoustic Features in the Manner Differentiation of Korean Stop Consonants”(1967)와 “Acoustic Features of Korean /P, T, K/, /p, t, k/, and /ph, th, kh/”(1970) 그리고 H. Umeda 등의 “Acoustical Features of Korean ‘Forced’ Consonants”(1965)와 金鎮宇의 “On the Autonomy of the Tensity Feature in Stop Classific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n stops”(1965) 등이 특히 주목받아 왔으며, 金鎮宇의 “A Theory of Aspiration”(1970)도 중요시되고 있고, 이현복의 “A Remark on the Cardinal Back Vowels”(1968)는 자신의 실험을 통해 後舌母音이 더욱 뒤에서 가능하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國內에서는 黃希榮의 “A Study of Korean Phonology with an Acoustic Analysis”(1969~), 김영송의 「우리말 소리의 연구」(1976)등이 발표되었고, 韓永熙의 “The Duration of the Intervocalic Obstruents

in Korean"(1976), 金在玟의 "子音持續時間과 調音運動"(1977), 梁東暉의 "Consonant Influence on Duration of Vowels in Korean (1978)" 등이 이어서 발표되었다. 子音의 實驗에 비해서 母音의 實驗은 너무나 未洽하다. 李承煥의 "Reconsideration for Tense vs. Lax Feature"(1967)와 李蕙淑의 "An Attempt of Reformulations of Phonological Features for Korean"(1969) 등은 音聲質의 音韻論的 認識을 위한 것들이었다.

現代國語에 대한 生成音韻論的 研究는 추상적 해석을 한 金鎮宇의 "The Vowel System of Korean"(1968)등의 일련의 논문들이 研究史의 한 場을 마련하였다. 李秉建의 「현대한국어의 생성음운론」(1973/1976)과 Kim-Renaud의 "Korean Consonantal Phonology"(1975) 등에서는 적어도 母音에 한해서는 덜 추상적인 基底母音을 설정하였다. 齒音의 口蓋音化를 주로 규칙화한 金手坤의 "Palatalization in Korean"(1976)은 抽象音韻論을 더욱 피하고 있다.

基底母音으로는 金鎮宇(1968)과 같은 /i u (o) a/의 지극히 추상적인 태도가 있는가 하면 8母音 내지는 10母音의 체계를 설정하는 이병건(1973)의 태도가 있다. 이들에 대한 논의는 이익환의 "Korean Vowel System"(1978)과 김공언의 "Vowel System of Korean Revisited"(1978) 등에서 덜 추상적인 쪽으로 계속되고 있다. 한편 金完鎮의 "形態論的 懸案의 音韻論的 克服을 為하여"(1972)에서는 '-으며, -으니' 등에서의 '으'를 '마음>임'에서의 長母音化 機能을 하는 '으'와 基底에서 구분할 것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cf. 金完鎮의 "A Tense-Lax Hypothesis for Middle Korean"(1978).

가장 두드러진 또 하나의 音韻論的 課題는 이론바 變則活用을 중심으로 한 現代國語의 基底子音關係에 대한 것이었다. 金鎮宇의 "所謂 變格用言의 非變格性에 관하여"(1971)를 비롯하여, 김차근의 "변칙용언의 연구"(1971), Kim-Renaud의 "Irregular Verbs in Korean Revisited"(1973), Cook Eung-Do의 "Double Consonant Base Verbs in Korean"

(1973) 등의 추상적 해석들이 속출하였고, 다시 손 한의 “On the Regularization of the Irregular Verbs in Korean”(1973)과 金手坤의 “日-變則動詞類의 音韻論의 意義”(1977)에 이르렀다. 이들 變則用言들의 語幹未音을 有聲子音들인 ‘b(β), z, d(ð)’등의 抽象音韻으로 설정하려는 태도와, 기본적으로 $p \rightarrow w$ 등의 Telescoping rule로 보고서 그 制約 機制를 한정시켜 주는 태도로 크게 나된다. 共同格의 ‘와/과’에 대해서도 /g(r)/등의 有聲子音을 그 基底에서 인정하려 하였는바, 일부 東南方言에서의 ‘먹다’에 대한 ‘목고~무운나(먹었나)~무우로(먹으려)~무우라(먹어라)’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추상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音韻論의 연구는 더욱 理論的인 문제를 제기하여, 金鎮宇의 “Two Phonological notes: A-Sharp and B-Flat”(1972), “Gravity in Korean Phonology”(1973) 등과 李相億의 “Conspiracy in Korean Phonology Revisited”(1978)에서 國語音韻現象을 일반적으로 지배하는 共謀性을 밝히려 하였는바, 金鎮宇에서의 共謀性은 Principle of close articulation 이었다.

硬音化現象에 대한 論議도 두드러진 경우가 되는데, 金鎮宇의 “Boundary Phenomena in Korean”(1970), 李廷攻의 “Boundary Phenomena in Korean Revisited”(1973), 김충배의 “Tensification Revisited”(1974), 손 한(1978)의 “Tensification in Compound Boundaries in Korean”(1978) 등에서는 音韻論의 해석을 피하였으나, 田相範의 “現代國語에 있어서의 된소리現象”(1976)에서 논의된 語幹과 接尾辭 사이의 硬音化現象과는 구별되는 複合語에서의 그것은 이른바 ‘사이 ㅅ’이란 屬格의 機能을 갖는 文法的인 節次에 따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cf. 安秉禧의 “中世國語의 屬格語尾 ‘ㅅ’에 대하여”(1968). 子音의 同化現象을 生成理論에 의거하여 다룬 것으로는 김차준의 “국어의 자음 접변”(1976)과 李秉根의 “子音同化의 制約과 方向”(1977) 등이 있다.

音長에 관한 論議도 金完鎮의 “形態論의 懸案의 音韻論의 克服을 위

하여”(1972), 李秉根의 “音韻規則과 非音韻論의 制約(1975)과 “國語의 長母音化와 報償”(1978), 金鎮宇의 “國語音韻論에 있어서의 母音音長의 機能”(1976) 등에 의하여 정밀화되면서 短母音化와 長母音化의 音韻論의 意義를 설명하려 하였다.

音韻史研究에 있어서도 60年代 後半부터 차츰 生成理論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여 70年代에 들어서서 정밀화되고 있다. 李基文의 “中世國語音韻論의 諸問題”(1969), 「國語音韻史研究」(1972) 등은 부분적인 영향 아래 쓰여진 것들이며, 앞에서 언급한 母音調和에 관한 것들과 “濟州島方言의 ‘ও’에 관련된 몇 問題”(1977) 등은 좀더 적극적인 영향 속에 드는 것들이다. 金完鎮의 “音韻現象과 形態論의 制約”(1970)은 추상적인 共時音韻論에 속하는 것이며, “다시 $\beta > w$ 를 찾아서”(1972)와 “音韻變化와 音素의 分布”(1974)는 通時音韻論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들은 “音韻論의 誘因에 依한 形態素 重加에 대하여”(1975)와 함께 生成理論의 인정밀화를 시도한 것들이다.

母音調和 히아투스 및 子音群을 다른 田相範의 *Phonological Aspects of Late Middle Korean*(1975)과 國語音韻史를 다른 文洋秀의 “A Phonological History of Korean”(1974)은 美國에서 이루어진 生成音韻史論의 대표적인 論著이다. 音韻史研究로 그밖에 崔世和의 「15世紀 國語의 重母音研究」(1976), S.R. Ramsey의 “Velar Lenition in Korean”(1977), 李秉根의 “派生語形成과 i逆行同化規則들”(1976), 金完鎮의 “A Tense-Lax Hypothesis for middle Korean”(1978), 이병건의 “한국어의 음운변천”(1978) 등이 있다.

參 考 文 獻

姜復樹(1972), 國語文法書에 있어서의 音韻研究, 常山李在秀博士還曆紀念論文集.

姜信沆(1979), 國語學史, 普成文化社.

金錫得(1977), 國어학 연구의 사조사적 개관, 나라사랑 26.

- 金完鎮(1972), 音韻論研究의 回顧와 展望, 國어국문학 58-60.
- (1978), 國語學研究의 動向과 課題, 韓國의 民族文化 1.
- 南基心(1977), 國語學이 걸어온 길, 言語科學이란 무엇인가(李廷政·李秉根·李明賢 共編, 文學과 知性社).
- 李基文(1977), 國어사 연구가 걸어온 길, 나라사랑 26.
- 李秉根(정리)(1976), 國語의 基底音韻, 언어 1.2.
- (1979), 國語方言研究의 處理과 反省, 방언 1.

國語音聲學 및 音韻論 關係 論著 目錄

- 姜信沆(1964), 十五世紀 國語의 ‘그’에 대하여, 趙潤濟博士回甲紀念論文集.
- (1971), 朝鮮館譯語新釋, 大東文化研究 8.
- (1972), 朝鮮館譯語의 寫音에 대하여, 語學研究 8.1.
- (1978), 中國字音과의 對音으로 본 國語母音體系, 國語學 7.
- (1978), 鷄林類事 高麗方言의 韻母音과 15世紀 中世國語의 中聲 및 終聲, 大東文化研究 12.
- 鞠應道(1973), Double Consonant Base Verbs in Korean, 語學研究 9.2.
- 김공언(1978), Vowel System of Korean Revisited, *Papers in Korean Linguistics*, ed. by Chin-W. Kim.
- 金科奉(1916), 조선말본, 서울: 새글집.
- (1924), 김 더조선말본, 상해: 새글집.
- 金敏洙(1952), ㅎ助詞研究, 國어국문학 1.
- (1953), 各自並書音價論, 國어국문학 4.
- (1955), 合用並書音價論, 國어국문학 13.
- 金芳漢(1964), 國語母音體系의 變動에 關한 考察, 東亞文化(서울大) 2.
- (1968), 中性母音「이」에 關하여, 李崇寧博士頌壽紀念論叢.

- 金錫得(1962), *형태음소론* 소고, 國語學 1.
- 金善琪(1938), *基準母音과 母音圖表*, 한글 6.
- 金手坤(1976), *Palatalization in Korean*, 塔出版社.
- (1977), ㅂ-變則動詞類의 音韻論的 意義, 언어 3.1.
- 김영기(1973), *Irregular Verbs in Korean Revisited*, 語學研究 9.2.
(Kim-Renaud, Y.-K.)
- (1975), *On h-deletion in Korean*, 國語學 3.
- (1975),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塔出版社.
- (1978), *Semantic Features in Phonology*, *Korean Linguistics* 1.
- 김영승(1976), *우리 말소리의 연구*, 샘문화사.
- 金永鎮(1976), *古代國語의 母音體系*, 國語研究 35.
- 金完鎮(1963), *形態部 聲調의 動搖에 대하여*, 西江大論文集 1.
- (1963), *國語母音體系의 新考察*, 震擅學報 24.
- (1964), *中世國語 二重母音의 音韻論的 解釋에 대하여*, 學術院論文集 4.
- (1965), *原始國語 母音論에 關係된 數三의 課題*, 震擅學報 28.
- (1968), *高句麗語에 있어서의 t 口蓋音化作用에 대하여*, 李崇寧博士頌壽紀念論叢.
- (1970), *音韻現象과 形態論의 制約*, 學術院論文集 10.
- (1971), *國語音韻體系의 研究*, 一潮閣.
- (1972), *形態論의 懸案의 音韻論의 克服을 為하여*, 東亞文化(서울大) 11.
- (1972), *다시 β>w를 찾아서*, 語學研究 8.1.
- (1972), *中世國語 聲調 研究*, 韓國文化研究所(1977: 塔出版社).
- (1974), *音韻變化와 音素의 分布*, 震擅學報 28.
- (1975), *音韻論의 誘因에 依한 形態素 重加에 대하여*, 國語學 3.
- (1978), *母音體系와 母音調和에 대한 反省*, 語學研究 14.2.

- (1978), A Tense-Lax Hypothesis for Middle Korean, *Papers in Korean Linguistics*, ed. by Chin-W. Kim.
- 金允經(1938), 朝鮮文字及語學史, 震學出版協會.
- 金在玗(1977), 子音持續時間과 調音運動, *언어* 2.2.
- 金鎮宇(1965), On the Autonomy of the Tensity Feature in Stop Classification", *Word* 21.
- (1968), The Vowel System of Korean, *Language* 44.
- (1970), A Theory of Aspiration, *Phonetica* 21.
- (1970), Boundary Phenomena in Korean, *Papers in Linguistics* 2.
- (1971), 所謂 變格用言의 非變格性에 관하여, 韓國言語文學 8.9.
- (1972), Two Phonological Notes: A-sharp and B-flat, *Contributions to generative phonology*, ed. by M.K. Brame.
- (1973), Gravity in Korean phonology, 語學研究 9.2.
- (1973), Adjustment rules in phonology, *Issues in Phonological Theory*, ed. by Kenstowicz and Kisseebirth.
- (1976), 國語音韻論에 있어서의 音長의 機能, 語文研究 9.
- (1978), Diagonal vowel harmony?, 國語學 7.
- 金次均(1971), 变칙용언의 연구, 한글 147.
- (1976), 국어의 자음접변, 언어학 1.
- (1977), 경상도방언의 성조체계, 서울大大學院.
- 金忠培(1974), Tensification Revisited, 語學研究 10.1.
- 金亨奎(1946), 子音同化研究, 한글 97.
- (1948), ㅎ ㅋ 音考 조선교육 2.3.
- (1948), ㆁ 音考, 조선교육 2.4.
- (1948), △ 音考, 조선교육 2.5.
- (1962), 國語史研究, 一潮閣.
- 南廣祐(1954·5), 長短音攷, 国어국문학 12-13.
- (1959), ㆁ △ 論攷, 中央大論文集 4.

- 都守熙(1977), 百濟語研究, 大田: 語文研究會.
- 文洋秀(1974), *A Phonological History of Kore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Texas at Austin.
- 文孝根(1974), 韓國語聲調의 分析的 研究, 世宗出版社.
- 朴炳采(1971), 古代國語의 研究, 高麗大學校 出版部.
- 朴性源(1747), 華東正音通釋韻考.
- 朴勝彬(1931), 朝鮮語學講義要旨, 朝鮮語學研究會.
- (1935), 朝鮮語學, 창문사.
- 方鍾鉉(1931), 方言에 나타나는 △음의 變遷, 新興 8.
- 손 한(1977), On the Regularization of the Irregular Verbs in Korean, 語學研究, 13. 1.
- (1978), Tensification in Compound Boundaries in Korean, *Papers in Korean Linguistics*, ed. by Chin-W. Kim.
- 宋 敏(1973), 18世紀 前期 國語의 母音體系, 聖心女大論文集 6.
- 宋喆儀(1977), 派生語形成斗 音韻現象, 國語研究 38.
- 申景濬(1750), 訓民正音韻解.
- 申明均(1937), 朴勝彬氏의 所謂 硬音이란 歷史上 韶音上 亞두 根據가 없다. 한글 1. 8.
- 安秉禧(1957), 重刊杜詩諺解의 t 口蓋音化에 對하여, 一石李熙昇先生頌壽紀念論叢.
- (1960), 十五世紀國語의 活用語幹에 對한 形態論的研究, 國語研究 7(1978: 塔出版社).
- 安 廓(1917), 朝鮮文法.
- 梁東暉(1978), Consonant Influence on Duration of Vowels in Korean., 언어 3. 1.
- 俞吉濬(1909), 조선문전.
- 俞昌均(1966), 東國正韻研究, 螢雪出版社.
- (1967), 韓國古代漢字音의 研究, 東洋文化 9.
- 柳 喜(1824), 諺文志.

- 李圭榮(1920), 現今朝鮮文典.
- 李基文(1955), 語頭子音群의 生成 및 發達에 對하여, 震檀學報 17.
- (1959), 十六世紀 國語의 研究, 文理論集 4 (1978: 塔出版社).
- (1961), 國語史概說, 民衆書館.
- (1962), 中世國語의 特殊語幹交替에 대하여, 震檀學報 23.
- (1963), 十三世紀 中葉의 國語 資料, 東亞文化(서울大) 1.
- (1964), Mongolian Loan-words in Middle Korean, *Ural-Altaische Jahrbücher* 35.
- (1968), 母音調和外 母音體系, 李崇寧博士頌壽紀念論叢.
- (1968), 鶻林類事의 再檢討, 東亞文化(서울大) 8.
- (1968), 朝鮮館譯語의 綜合的 檢討, 서울大學校 論文集 14.
- (1968), 高句麗의 言語와 그 特徵, 白山學報 4.
- (1969), 中世國語 音韻論의 諸問題, 震檀學報 32.
- (1971), 母音調和의 理論, 語學研究 7.2.
- (1972), 國語音韻史研究, 韓國文化研究所(1977: 塔出版社).
- (1972), 改訂國語史概說, 民衆書館.
- (1977), 濟州島方言의 ‘ও’에 관련된 몇 問題, 李崇寧先生古稀紀念 國語國文學論叢.
- (1979), 中世國語 母音論의 現狀과 課題, 東洋學 9.
- 李東林(1970), 東國正韻研究, 東國大.
- 李秉建(1976), 現代한국어의 생성음운론, 일지사.
- (1978), 한국어의 음운변화, 언어학 3.
- 李秉根(1970), 19세기 後期國語의 母音體系, 學術院論文集 9.
- (1970), 京畿地域語의 母音體系와 非圓脣母音化, 東亞文化(서울大) 9.
- (1975), 音韻規則과 非音韻論의 制約, 國語學 3.
- (1976), 派生語形成과 逆行同化規則들, 震檀學報 42.

- (1976), 19세기 國語의 母音體系와 母音調和, 國어국문학 72·3.
- (1977), 子音同化의 制約과 方向, 李崇寧先生 古稀紀念 國語國文學論叢.
- (1978), 國語의 長母音化와 報償性, 國語學 6.
- (1979), 音韻現象에 있어서의 制約, 塔出版社.
- 李相億(1978), Conspiracy in Korean Phonology Revisited, *Papers in Korean Linguistics* ed. by Chin-W. Kim.
- (1979), Middle Korean Tonology,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Illinois at Urbana.
- 李崇寧(1931~2), 산 朝鮮語의 研究, 中等朝鮮語講座 1~6.
- (1939), 音韻轉位現象에 對하여, 한글 7.4.
- (1940), 、音攷, 震檀學報 12.
- (1947), 母音調和研究, 震檀學報 16.
- (1947), 朝鮮語의 히아투스와 子音發達에 對하여, 震檀學報 15.
- (1949), ‘애 · 에 · 외’의 音價變異論, 한글 106.
- (1949), 朝鮮語音韻論 第1輯 「、」音攷, 乙酉文化社.
- (1954), 脣音攷, 서울大學校 論文集 1.
- (1954), 十五世紀의 母音體系와 二重母音의 Kontraktion的 發達에 對하여, 東方學志 1.
- (1956), △音攷, 서울大學校 論文集 3.
- (1971), 17世紀 國語의 音韻史의 考察, 東洋學 1.
- 李承煥(1967), Reconsideration for Tense vs. Lax Feature, 語學研究 3.1.
- 李應百(1968), 國語母音의 音價에 대하여, 國어교육 14.
- 이익환(1978), Korean Vowel System, *Korean Linguistics* 1.
- 李廷攻(1973), Boundary Phenomena in Korean Revisited, *Papers in Linguistics*, 5.
- 李炫馥(1968), A Remark on the Cardinal Back Vowels, *Le Maître*

Phonétique 130.

- (1971), 서울말의 母音體系, 語學研究 7.2.
- 李蕙淑(1968), Lexical-Feature Redundancy Rules of Korean, 語學研究 4.1.
- (1969), An Attempt of Reformulation of Phonological Features for Korean, 論叢(梨花女大) 13.
- 田光鉉(1967), 17世紀 國語의 研究, 國語研究 19.
- (1971), 18世紀 後期 國語의 一考察, 全北大 論文集 13.
- (1976), 南原地域語의 語末U型語彙에 대한 通時音韻論的 小考, 國語學 4.
- 田相範(1975), *Phonological Aspects of Late Middle Korean*, 汎韓書籍株式會社.
- (1976), 現代國語에 있어서의 된소리現象, 언어 1.1.
- 鄭然榮(1960), 15世紀 國語의 Tone에 대한 研究, 國語研究 8.
- (1974), 慶尙道方言聲調의 研究, 西江大(1974: 塔出版社).
- (1976), 國語聲調에 관한 研究, 一潮閣.
- 鄭寅承(1938), *i*母音逆行同化, 한글 5.1.
- 周時經(1906), 대한국어문법.
- (1908), 國語文典音學.
- (1908), 國文研究案.
- (1910), 國語文法.
- (1914), 말의 소리.
- 崔錫鼎(1678), 經世正韻.
- 崔世和(1977), 15世紀國語의 重母音研究, 亞細亞文化社.
- 崔鉉培(1929), 우리말본 첫째매, 延禧專門學校出版部.
- (1937), 우리말본, 정음사.
- (1941), 한글갈, 정음사.

- (1959), 「소리값 상고—소리물의 연구」, 東方學志 4.
- 韓永基(1976), The Duration of the Intervocalic Obstruents in Korean,
언어 1.1.
- 허 송(1952), 「애·애·외·위」의 音價, 國어국문학 1.
- (1953), 並書의 音價에 대한 反省, 國어국문학 7.
- (1954), 慶尙道方言의 聲調, 崔鉉培先生還甲記念論文集.
- (1955), 傍點研究, 東方學志 2.
- (1957), 國語의 音韻, 一石李熙昇先生頌壽記念論叢.
- (1964), 齒音攷, 國어국문학 27.
- (1965), 國語音韻學, 正音社.
- (1968), 國어의 상승적 이중모음체계에 있어서의 빈간, 李崇寧博士
頌壽記念論叢.
- 黃希榮(1969~), "A Study of Korean Phonology with an Acoustic
Analysis", 大田大 論文集 3.
- 河野六郎(1945), 朝鮮方言學試攷, 京城: 東都書籍.
- (1968), 朝鮮漢字音의 研究, 天理.
- 服部四郎(1974), 中世韓國語의 母音調和와 母音體系, 光復20週年記念國
際學術會議論文集.
- 小倉進平(1923), 國語及朝鮮語 發音概說, 大阪: 屋號書店.
- (1929), 母音調和, 「郷歌及び吏讀の研究」附論.
- (1944), 朝鮮語方言의 研究, 東京: 岩波書店.
- 梅田博之(1957), Phonemic System of Modern Korean, 言語研究 32.
- (1965), Acoustical Features of Korean 'Forced' Consonants, 言語
研究 48.
- Han, M.S.(1963), Acoustic Phonetics of Korean.
- (1966), Duration of Korean Vowels, *Studies in Phonology of
Asian Languages II*, Univ. of Southern California.

- Han, M.S. and R.S. Weitmann(1965), *Acoustic Characteristics of Korean Stop Consonants.*
- (1967), *Acoustic Features in the Manner Differentiation of Korean Stop Consonants, Studies in Phonology of Asian Languages* Ⅱ, Univ. of Southern California.
- (1970), *Acoustic Features of Korean/P, T, K/, /p, t, k/, and /p^b, t^b, k^b/, Phonetica* 22.
- Martin, S.E.(1951), *Korean Phonemics, Language* 27.
- (1954), *Korean Morphophonemics*, Baltimore: LSA.
- (1968), *Korean Standardization, Ural-Altaische Jahrbücher* 48.
- Ramsey, S.R.(1978), *Accent and Morphology in Korean Dialects*, 서울: 塔出版社.
- (1977), *Velar Lenition in Korean, 李崇寧先生古稀紀念 國語國文學論叢*.
- Ridel, F. (1881), *Grammaire Coréenne, Yokohama.*
- Skaličková, A. (1960) *The Korean Consonants*, Praha: Nakladatelství Československé Akademie Věd.

III. 文法論의 研究

A. 現代文法의 研究

1. 概 観

國語文法은 開化期와 日帝侵略時代에는 西洋의 傳統文法의 方法論에
立脚한 品詞論 中心의 研究가 主流를 이루었고 60年代를 前後하여서는
美國의 構造·記述文法의 導入에 따라 形態論研究가 盛行하였다. 60年
代 後半부터는 變形·生成文法의 影響을 크게 받아 意味·話用論에 基
盤을 두 統辭論 方面에의 業績이 横出하고 있다. 한편 19世紀 前半期부

터 싹터온 西洋의 宣教師, 外交官 및 學者들, 그리고 日本人들의 研究業績들도 相當한 量에 達한다.¹⁾

2. 傳統文法의 研究

우리의 傳統文法은 처음에는 正書法 制定의 理論的 土臺를 構築하기 위하여, 다음에는 學校文法을 確立하기 위하여 遂行되었다. 따라서 規範文法의 性格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文法研究의 目標가 言文修理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國語의 形態的 構造를 解明하여 品詞體系를 構築하는 데 全力を 기울였다. 이러한 일에 主導的 役割을 맡은 文法家는 周時經을 비롯한 一群의 語文研究家였다. 먼저 周時經學派에 所屬되는 文法家들의 업적을 檢討하고 이에 異議를 提起하거나 系統을 달리하는 文法家들의 活動을 살펴보기로 한다.

周時經의 代表的 著述은 「國語文法」(1910)이다. 본서는 몇段階의 試驗을 거쳐 完成된 것이다. 현재 傳하고 있는 自筆稿本, 油印私刊本, 門下生의 筆記帳들이 이를 뒷받침한다.²⁾ 본서의 特徵은 文章中心의 叙述方式이다. 當代나 後代의 文法이 대부분 品詞中心의 叙述方式을 取하고 있음과 比較해 볼 때 본서의 叙述方式은 매우 유니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品詞論과 造語法에 해당하는 부분이 모두 文章構成論인 “짬등갈”을 위해서 設定되어 있는 것에서 본서의 특징을 밝히 알 수 있다. 특히 “짬등갈”에서 문장의 의미를 해석할 때는 話者的 “밥(마음)” 및 “일”과 관련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言語記號가 言語使用者와 現實과 맺는 관계를 잘 파악한所致라 할 수 있다.³⁾ 그러나 이러한 叙述方式은 그의 後學들에 의하여 발전되지 못하였다. 學說史的 觀點에서

1) 國語文法研究의 史的 動向에 대해서는 金允經(1938), 李熙昇(1955), 金敏洙(1960), 姜馥樹(1972), 南基心(1972), 高永根(앞으로 '高'라 略稱함)(1978ab, 1979b), 姜信沈(1979) 참조.

2) 1910年 이전의 周時經의 國語文法研究에 대하여는 金敏洙(1977ac, 1978) 및 金敏洙外 編(앞으로 金外로 略稱함)(未刊 107~09 및 解說) 참조.

3) 周時經 文法理論에 대한 자세한 것은 高(1979c) 참조.

論議의 對象이 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品詞論의 單位다. 토와 語尾를 品詞의 基本單位, 곧 單語로 간주하고 있다. “토”는 助詞를 意味하고 語尾는 先語末語尾와 轉成語尾(資格法)를 除外한 나머지 終結語尾와 連結語尾를 가리킨다. 이러한 單位觀은 「말의 소리」(1914)⁴⁾에서 크게 修正되어 前著에서 單語의 자격을 얻지 못했던 冠形詞形과 副詞形이 品詞의 單位가 되는 등 상당한 變化가 있었다.

周時經의 文法理論을 직접 계승·발전시킨 것은 김두봉(1916, 1922)이다. 본서는 周時經(1910)을 바탕으로 그 未備點을 補充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말의 소리」에서 국복되고 있으므로 「말의 소리」의 體系를 「國語文法」의 體系로 換骨脫胎시킨 것이 본서라 할 수 있다.⁵⁾ 곧 「말의 소리」에서 시도된 冠形詞形 및 副詞形을 品詞의 單位로 간주하고 “임” 속에 들어 있었던 冠形詞, 副詞, 感嘆詞를 獨立시켜 “모임씨”로 統合시킨 것을 본서의 두드러진 特徵으로 손꼽을 수 있다. 이는 國語形態構造에 대한 眼目이 그만큼 넓어졌음을 意味한다. 여기서 看過 할 수 없는 것은 周時經의 文章中心의 叙述方式이 止揚되고 品詞中心의 叙述方式이 採擇된 點이다. 이러한 文法模型은 이미 俞吉瀬(1909) (後述) 등으로부터 目擊할 수 있었던 當時의 보편적인 文法叙述方式이었던 것이다. 김두봉의 文法模型은 周時經의 「國語文法」과 함께 後來의 文法家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李奎榮(1920)⁶⁾, 金元祐(1922)⁷⁾, 李奎防(1923)⁸⁾, 姜邁·金鎮浩(1925)⁹⁾, 李常春(1925)¹⁰⁾, 李秉岐(1929~1930)¹¹⁾, 金允經

4) 「말의 소리」에 대하여는 金敏洙(1977c), 金外(1977 Ⅰ13 및 解說), 高(1978b), 李秉根(1979) 참조.

5) 김두봉 문법에 대한 자세한 것은 金外(未刊 Ⅰ22 Ⅰ23 및 解說)과 高(1978b, 1979c) 참조.

6) 李奎榮文法에 대하여는 金外(未刊 Ⅰ27 및 解說) 참조.

7) 金元祐의 文法에 대하여는 金敏洙(1977c) 金外(未刊 Ⅰ28 및 解說) 참조.

8) 李奎防의 文法에 대하여는 高(1978b)과 金外(未刊 Ⅰ29 및 解說) 참조.

9) 姜邁·金鎮浩의 文法에 대하여는 金外(1977 Ⅰ30, Ⅰ31, Ⅰ32, Ⅰ33 및 解說) 참조.

10) 李常春의 文法에 대하여는 高(1978b)와 金外(1979 Ⅰ36 Ⅰ37 및 解說) 참조.

(1932)¹²⁾, 申明均(1933)¹³⁾, 張志喚(1930?)¹⁴⁾ 등의 文法書가 繢出하였다.

周時經의 文法理論에 크게 修正을 가한 것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嶽鉉培(1930)¹⁵⁾이다. 周時經·김두봉의 文法에서 品詞의 單位가 되었던 語尾種類가 單語의 일부분으로 처리되었다. 곧 종전의 分析的 體系의 文法模型(이른바 第一類型)이 折衷的 體系(이른바 第二類型)로 變貌되었다. 助詞만 品詞單位로 認定하고 語尾는 종합적으로 처리한 것은 國語形態構造에 대한 理解가 김두봉보다 한걸음 앞섰음을 意味한다.¹⁶⁾ 최현배의 文法理論은 1933年에 制定된 朝鮮語學會의 「한글마춤법통일안」의 理論的 基礎가 되었다. 이 글이 基幹이 되어 1934年「중등조선말본」¹⁷⁾이 上梓되고 1939年에는 저 有名한 「우리말본」¹⁸⁾이 公刊되었다. 본서는 저자의 作故 이전까지 4차례에 걸쳐 補訂되었으며 1972年에는 그의 마지막 校正本에 의한 最後의 修正版이 나왔다. 그러나 그의 學說의 中核의 부분은 바뀐 것이 없으므로 그의 文法理論을 理解하는 데는 어느 版을 利用해도 無妨하다. 「우리말본」못지 않게 注意를 要하는 것은 中等文法類다. 최현배는 이미 1934년에 「중등조선말본」을 냈다고 했는데(前

-
- 11) 李秉岐의 文法體系에 대하여는 高(1978b)와 金外(未刊 1141 1142 및 解說) 참조.
- 12) 金允經의 文法에 대하여는 金錫得(1974)과 金外(未刊 1152 1153 1154 1155 및 解說) 참조.
- 13) 申明均의 文法에 대하여는 金外(1979 1157 및 解說) 참조.
- 14) 張志喚의 文法에 대하여는 金外(1977 1156 및 解說) 참조.
- 15) 이글에 대하여는 金外編(1977 1144 및 解說), 高(1978b) 참조.
- 16) 최현배의 文法理論에 대한 것은 李翊燮(1967), 姜馥樹(1972), 김석득(1971, 1975), 徐正洙(1974), 南基心(1974), 姜信沆(1979), 高(1978b, 1979bc) 참조.
- 17) 본서에 대해서는 金外(1977 1145 및 解說) 참조.
- 18) 본서의 書誌·文獻的인 것은 김계곤(1974)과 金外(1979 1147 解說) 참조. 지금까지 나타난 「우리말본」의 先行著述은 前述한 두가지 著述과 「우리말본」(첫째매)(1929)(金外 1977 1134), 그리고 「한글」誌上에 발표된 論文類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河東鑄교수에 의하여 1929年 이전의 講義案으로 推定되는 「우리말본」(상)이 발견되었다(金外 1147의 後半참조). 본서는 소리길만 보여주는 바 이의 보다 正確한 年代推定과 함께 1929年本과 1937年本과의 嚴密한 對較作業이 要望된다.

述), 본서는 1938年「우리말본」(1937)의 體系에 따른 改訂版이 나오기도 했으며 光復後에도 널리 普及되었다. 한편 최현배는 1948年 앞서 든 「중등조선말본」의 姊妹篇에 해당하는 초급학년용 「중등조선말본」¹⁹⁾을 따로 펴내었으며 이듬해(1949年)에는 前者를 「고등말본」으로 改題・出版하였다. 또 教科課程의 改編에 따라 1956年에는 「고등말본」이, 1957年에는 「중등말본」(3권)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前者에는 월의 으뜸꼴(文章의 基本型)의 策定등 改編된 부분이 많다. 최현배의 교과서류의 ‘말본’책들은 國語文法 내지 「우리말본」理解의 入門書로서 그 가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다.²⁰⁾

周時經・김두봉의 文法이 상으로 최현배의 文法은 「우리말본」출현 이후 뿐 아니라 최현배가 作故한 오늘날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周時經의 文法과 함께 앞으로도 우리의 文法研究의 重要古典으로 남을 것이다. 최현배와 같이 語尾를 單語의 일부분으로 처리하는 折衷의 關係를 따르는 文法家로는 朴相埈(1932),²¹⁾ 朴鍾禹(1946),²²⁾ 박창해(1946),²³⁾ 柳在軒(1947),²⁴⁾ 김근수(1947),²⁵⁾ 박태윤(1948),²⁶⁾ 이인모(1949),²⁷⁾ 李崇寧(1949),²⁸⁾ 정인승(1949), 이희승(1949)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서도 정인승과 이희승의 文法理論에는 特殊한 面이 있다.

정인승(1949)는 1956年 「표준고등말본」으로 改題・出版되기도 하였지만 文法體系에는 큰 變動이 없다.²⁹⁾ 그의 文法의 特徵은 최현배가 세운

19) 본서에 대하여는 金外(未刊 1167) 참조.

20) 최현배의 教科書類의 「말본」에 대한 對較作業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21) 朴相埈의 文法에 대하여는 金外(1979 1151 및 解說) 참조.

22) 朴鍾禹의 文法에 대하여는 金外(1977 1164 및 解說) 참조.

23) 박창해의 文法에 대하여는 金外(1977 1165 및 解說) 참조.

24) 柳在軒의 文法에 대하여는 金外(1977 1166 및 解說) 참조.

25) 김근수의 文法에 대하여는 金外(1979 1171 및 解說) 참조.

26) 박태윤의 文法에 대하여는 金外(1979 1173 및 解說) 참조.

27) 이인모의 文法에 대하여는 金外(1979 1177 및 解說) 참조.

28) 李崇寧의 文法은 「古語의 音韻と 文法」(文化堂)을 가리킨다.

29) 정인승의 文法에 대하여는 金外(1977 1179 1183 및 解說) 참조.

指定詞 “이다”를 풀이토씨라 하여 叙述格助詞로 처리한 점이다. “이다”는 뒤의 學校文法統一過程에서 가장 큰 爭點이었던 것으로 歷代文法家들을 괴롭혀 오던 課題였다. 또 하나 指摘할 것은 1956年版에서 날말의 됨됨이 곧 單語의 構造를 品詞論에 앞세운 것이다. 本格的인 造語法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전의 文法家들이 이 項目을 品詞論의 끝에서 처리했던 것과 비교하면 注目할 만하다.

이희승(1949)는 1956年「고등문법」, 1957年「새고등문법」 등으로 改題・出版되었으나 內容에는 큰 變化가 없다.³⁰⁾ 이희승 文法의 큰 特徵은 文法의 범위를 品詞論과 文章論에 국한시키고 전자의 單位는 單語로, 後자의 單位는 語節로 잡은 것이다. “이다”를 최현배나 정인승과 같이 單語로 보지 않고 體言의 活用으로 처리한 것³¹⁾도 特記의 對象이 된다. 이밖에도 이희승은 助詞의 처리 및 結語法體系 등에 있어서 前代의 文法家들이 미치지 못한 문제들을 평이하게 설명하고 있는 곳이 많다. 이희승의 文法에 대한 理論的 설명은 이희승(1955)에 자세히 나와 있다. 그는 이곳에서 歷代文法家들의 品詞分類를 비판하고 品詞分類의 基準을 提示하기도 하였다. 이희승은 앞의 최현배, 정인승과 함께 現代國語文法研究에 공헌이 많고 後學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친 文法家로 손꼽힌다.

최현배에 의해 確立된 折衷의 體系에 손질을 한 것은 정렬모(1946)이다. 최현배가 單語의 자격을 주었던 助詞까지도 單語의 일부분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른바 綜合的 體系(第三類型)가 據頭되었다. 본서는 저자가 1927年 발표한 “朝鮮語文法論”(동인지 「한글」 1~3, 2~1, 2)을 토대로 形成된 것인데, 이전의 文法家들이 指向하고 있었던 規範文法的性格을 脱皮하여 科學文法의 태도를 표방했던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이희승이 文法의 範圍를 品詞論과 文章論에 국한했다고 했는데 이미 정렬모에 의해 이러한 文法模型이 提示되었던 것이다. 정렬모의 文法體系

30) 이희승의 文法에 대하여는 姜蘋樹(1972), 姜信沈(1979), 高(1979a)와 金外(1977 1185 및 解說) 참조.

31) 體言의 活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언급은 李熙昇(1959) 참조.

를 직접 계승한 것은 장하일(1947)³²⁾이고 理論的으로 영향을 준 것은 김근수(1947)³³⁾이다. 조사를 單語로 認定하지 않는 경향은 李崇寧(1953)에서 크게 浮刻되었으며 金敏洙·최태호³⁴⁾ 등의 著述에서 理論的 내지 實用的 관점에서 單語로서의 지위문제등이 다각도로 추구되었다.

이승녕은 現代國語文法보다 中世語研究에 더 업적을 쌓았는데 그의 國語文法에 대한 本格的 論文은前述한 1953年的 “格의 獨立品詞是非”였다. 이 글은 주로 中世語資料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理論的 土臺로 삼아 1956年에는 「고등국어문법」이 上梓되고 1960年에는 그 改訂版을 내었다.³⁵⁾ 이승녕 文法의 特徵은 종전의 ‘品詞論—文章論’의 模型을 버리고 ‘形態論—統辭論’의 模型을 採擇한 데 있다. 改訂版에는 造語論이 形態論에 앞서 있는데 이는 정인승의 처리(前述)보다 文法體系 전반을 더 正確하게 파악한 데서 결과된 것이다. 이승녕 文法의 특징으로서 추가할 것은 現代의 文法現象을 歷史的 사실과 결부시켜 설명한 것이다. 흔히 최현배의 文法은 야마다(山田孝雄)의 文法에서, 이희승의 文法은 하시모토(橋本進吉)의 文法에서 정렬모의 文法은 마쓰시다(松下大三郎)의 文法에서 각각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는데,³⁶⁾ 이런 方式으로 말한다면 이승녕의 文法은 Ramstedt 등의 알타이 文法家들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

金敏洙는 國語文法研究의 歷史를 回顧·整理하는 觀點에서 출발하여³⁷⁾一般文法의 토대 위에서 國語文法을 體系化했다고 할 수 있다. 앞의 이승녕이 中世國語를 중심으로 第三類型의 文法理論을 展開했다면 金敏洙

32) 장하일의 文法에 대해서는 金外(1977 1174 1175 1176 및 解說) 참조.

33) 김근수의 文法에 대해서는 金外(1977 1171 및 解說) 참조.

34) 최태호의 文法에 대해서는 金外(1977 1192 1193 1194 및 解說) 참조.

35) 이승녕의 文法에 대해서는 金外(未刊 1189 1190 1191 및 解說), 姜龍樹(1972), 姜信沈(1979), 高(1979b) 등 참조.

36) 이에 대해서는 姜龍樹(1972)에 交涉關係가 昭詳하게 밝혀져 있다.

37) 이러한 업적은 1954년과 1955년에 발표되었는데 金敏洙(1960)에 收錄되어 있다.

는 現代國語를 中心으로 그것을 擴大・發展시켰다고 할 만하다. 그의 文法理論은 “理論篇”(1955)³⁸⁾에서 시작하여 “國語의 品詞論”(1957), “國語의 Syntax”(1958)을 거쳐 “國語文法論의 序說的 課題”(1960)에서一段落되었으며³⁹⁾ 김민수外3人(1960)⁴⁰⁾에서 實用化가 摸索되었다.

지금까지 주로 周時經과 그의 後繼學派에 所屬되는 一群의 文法家들을 중심으로 國語文法이 어떤 樣相으로 發展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周時經과 별로 交涉을 갖지 않았거나 反對의 立場에 서서 國語文法研究에 貢獻한 文法家도 상당하다.

최초의 文法書 崔光玉(1908)은 俞吉瀓(1909)의 序文과 지금까지 나타난 油印本들을 참작할때 단순한 영향 이상의 曲折이 있음이 틀림없다.⁴¹⁾ 그러면 최초로 文法을 著述한 사람은 유길준이 되는 것이며 그의 著述의 檢討로부터 國語文法學史가 시작된다. 최광우의 「大韓文典」과 유길준의 「大韓文典」은 차이가 많다.⁴²⁾ 後者の 特徵은 그 文章論의 叙述이 그 뒤의 우리의 傳統文法의 效시가 되었다는 점에 있다. 兩書는 19세기 中葉 아래의 日本文法의 영향 아래 이루어졌다는 意見(姜馥樹 1972)이 비교적 온당해 보인다. 다음으로 記憶할 필요가 있는 文法家는 金奎植이다. 그는 「大韓文法」을 著述했는데 이 책은 오랫동안 著者未詳으로 傳해져 오다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1908~9年間에 著述된 金奎植의 文法임이 밝혀졌다.⁴³⁾ 김규식의 文法은 Underwood의 「한영문법」의 영향을 받아서 저술되었는데 특징은 “赤身句語”로 불리고 있는 基本文型의 設定,

38) 이 글은 梁在淵共著 「大學國語」(pp. 145-175)에 실려 있는데 金外(未刊 1977)에도 볼 수 있다.

39) 金敏洙의 國語文法에 대한 一連의 劳作들은 金敏洙(1960)에 集成되어 있으며 본서는 金外(未刊 1998)에 그대로 覆印되어 있다.

40) 김민수外三人의 文法에 대해서는 金外(未刊 1995 1996 및 解說) 참조.

41) 崔光玉과 俞吉瀓 文法에 관한 자세한 論議는 李熙昇(1955), 金敏洙(1960), 金外(1977 1, 2, 3, 4解說)

42) 두 종류의 「大韓文典」에 대한 구체적 内容比較는 姜馥樹(1972)참조.

43) 金奎植의 文法과 著述經緯 및 内容評價에 대해서는 金外(1977 14 15 및 解說), 金敏洙(1977b), 高(1978b) 참조.

成分의 並置에 依해 形成된 문장을 “略省한 連結語句”로 보아 複文으로 解釋하는 점, 文章分析의 과정을 數體로 表示하는 方法 등이다. 이러한 文章分析의 方法은 뒤의 周時經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推測되며(高永根 1978b), 生成文法의 觀點에 설 때 크게吟味의 對象이 된다. 金奎植에 이어 접할수 있는 文法은 金熙祥(1909)이다. 이 책은 현재 所在不明이다.⁴⁴⁾ 1911年에 「朝鮮語典」을 1927年에는 「울이글틀」을 내기도 했는데 編成만 다를 뿐 文法體系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짐작된다.⁴⁵⁾ 김희상의 文法은 Underwood와 金奎植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한다(高永根 1978b). 유길준, 김규식, 김희상은 周時經과 함께 開化期의 四大文法家로 손꼽을 수 있는 사람이며 이들은 또 주시경에게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理論은 後學들에 의해 繼承・發展된 자취가 뚜렷하지 못하므로 學說史的地位는 周時經보다 크게 뒤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周時經의 文法理論에 대한 挑戰勢力은 周時經의 死後에 나타난다. 첫째로 緊을 수 있는 文法家는 安廊(학)이다. 그는 1917年에 「朝鮮文法」을 내고 1923年에 修正版을 냈는데⁴⁶⁾ 周時經系의 당시의 行用 文法書를 獨斷的・國粹의이라고 비판을 가했다.⁴⁷⁾ 格의 범주에 해당하는 “位格”體系, “文章構造의 變換”과 “文勢”,同一成分의 省略에 의한 문장을 複文으로 처리한 것등은 現代的 眼目에 설 때 크게 受容의 가치가 있다. 朴勝彬(1935)는 周時經의 後學들에 의해 세워진 朝鮮語學會의 「한글마춤법통일안」(1933)에 對立하여 朝鮮語學研究가 주장한 正書法을 뒷받침하는 理論書이기도 하다. 본서 이전에 「朝鮮語學講義要旨」(1931), 이후에

44) 河東鎬교수에 의하면 故金允經박사가 「朝鮮文字及語學史」를 執筆할때에도 당시 開城에 居住하던 金熙祥에게 직접 가서 이 책을 빌려 보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리 흔한 책이 아니었던 것 같다.

45) 金熙祥의 文法에 대하여는 金外(1977 119, 120, 121 및 解說) 참조.

46) 安廊의 文法에 대해서는 金外(未刊 124, 125 및 解說) 참조. 初版(1917)은 누가 간수하고 있는지 밝혀져 있지 않다.

47) 安廊 文法의 特徵에 대해서는 姜誠樹(1972), 高(1978b) 참조.

「簡易朝鮮語文法」(1937)을 내기도 했으나 그의 文法理論은 본서에 가장 자세하게 나타난다.⁴⁸⁾ 朴勝彬의 文法은 周時經系의 文法理論에 挑戰했다는 立場 때문에 그 가치가 正當하게 評價되지 못했으나 최근에 이르러서 生成文法의 觀點에서 다시 照明을 받고 있다(宋錫重 1976 참조). 言語觀 내지 文法觀, 否定法의 記述, 名詞形成의 “(으)ㅁ, 기”의 機能識別, 이론바 特殊助詞의 記述 등이 특히 그러하다. 權(幸田)寧達(1941)은 지금까지의 語學史類에 언급된 일이 없다.⁴⁹⁾ 이 글은 周時經과 朴勝彬의 品詞分類를 비판하는 데서 출발한 것으로 특징은 “體用相互化”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론바 指定詞 “이”가 體言에 붙은 것을 “體語의 用語化”, 반대로 用言의 語幹에 “(으)ㅁ”이 붙은 것을 “用語의 體語化”라 하는데 이러한 兩者의 機能變換關係를 “體用相互化”라 부르는 것이다. 이 견해는 李熙昇의 “體言의 活用”(前述)과 그 趣意가根本적으로 같다. 이상 3人の 文法家는 周時經등의 文法理論이나 文法體系에 明白히 批判을 加한 세력들인데 이러한 범주에 드는 文法家들을 더 들어보기로 한다.

南宮憲(1918?)은 앞의 權寧達의 글과 함께 지금까지의 語學史에서 언급된 일이 없는 文法書인데 이전의 西洋人の 연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⁵⁰⁾ 본서의 특징은 “名詞의 體格”아래 배풀어진 9個의 格의 設定이다. 이러한 格體系는 Ridel의 格體系와 거의一致한다. 李弼秀(1922)는 이듬해 「정음문전」으로 改題되어 나오기도 했는데⁵¹⁾ 體言의 格을 文章論에서 다른 것이 특징이다. 周時經과 系譜를 달리하는 文法家 가운데서 가장 주목할 만한 學者가 朴勝彬이라 할 수 있거니와 이와 함께 記憶할 만한 사람은 洪起文이다. 그는 1927年 “朝鮮文典要領”을

48) 朴勝彬의 「朝鮮語學」은 1972年 通文館에서 覆印된 일이 있다. 朴勝彬 文法은 金外(1977 1148 1149)와 金外(未刊 1150)에 集成되어 있고 그의 文法理論에 대하여는 宋錫重(1976), 高(1978b)와 姜信流(1979)가 비교적 소상하다.

49) 權寧達의 文法에 대하여는 金外(1977 1158 및 解說)와 高(1979b) 참조.

50) 본서에 대하여는 「鄉土」(1946)에 실린 南宮憲의 「朝鮮語法」에 대한 崔瑛海의 解說과 金外(未刊 1126 및 解說) 참조.

51) 李弼秀의 文法에 대하여는 金外(1977 1134 1135 및 解說) 참조.

발표한 일이 있고 이를 토대로 1947年「朝鮮文法研究」를 내었다.⁵²⁾ 兩者 사이에는 品詞體系 및 格體系에 있어서 상당한 差異를 보여 주기는 하지만 두 段階에 걸친 品詞分類 및 格形態에 대한 意味論的 解釋等은 形態論的 내지 統辭論的 觀點에 설 때 크게 受容할 만하다. 끝으로 言及 할 것은 初期 日本人 文法家 高橋亨(1909)의 영향 아래서 이루어진 李完應(1929)와 沈宜麟(1936)이 있다.⁵³⁾

우리들 자신에 의한 文法研究에 이어 外國人들의 업적을 檢討해 보기로 하자.

國語文法 현상을 西歐的인 文法理論에 따라 認識한 것은 獨逸系의 和蘭人 Fr. Siebold와 Ch. Gützlaff였다. 이들은 1832年에 國語文法에 관계된 업적을 내었다. 前者は 1824年부터 7年間 日本에 거주하던 荷蘭의 東印度會社駐在員이었으며 後者は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聖經을 보급시킨 荷蘭 선교사였다. 이들의 연구는 國語의 單語를 品詞別로 정리하거나 교착적 성격을 언급하는 정도에 지나지 못했다.⁵⁴⁾ 다음으로 國語文法研究를 한 사람은 佛蘭西人 L. de Rosny였다. 그는 1864年 “韓國語文法概觀”을 썼는데 앞의 Siebold가 수집한 語彙資料集을 對象으로 했다.⁵⁵⁾ 그러나 이러한 研究는 불완전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다. 本格的 國語文法研究는 19세기 종엽 이후의 불란서 外邦傳道會神父들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⁵⁶⁾ 이들의 연구는 앞의 獨逸人이나 Rosny와는 아무 交涉없이 進行되었는데 첫 結實이 Dallet(1874)⁵⁷⁾이고 최종보고서가 Ridel(1881)⁵⁸⁾이다. 後者를 바탕으

52) 洪起文의 文法에 대한 자세한 것은 高(1978b, 1979b)와 金外(未刊 1138 1139 및 解說) 참조.

53) 두 사람의 文法에 대해서는 金外(未刊 1140, 1977 1159 및 解說) 참조.

54) 두 사람의 國語文法研究에 대해서는 高永根(1979a)와 金外(1979 1201 및 解說) 참조.

55) Rosny의 國語研究에 대하여는 高(1978a; 1979d), 金外(未刊 1220 및 解說) 참조.

56) 불란서 선교사들의 國語研究에 대한 자세한 사정은 高(1976b) 참조.

57) Dallet의 國語文法研究에 대하여는 高(1976b), 金外(未刊 1221 및 解說)

로 한 Imbault-Huart(1889)⁵⁹⁾도 초기 불란서 사람들의 國語文法研究의 범주에서 처리될 수 있는 것이다. 불란서 선교사 다음으로 國語文法研究에 공헌한 西洋人으로는 Ross를 들 수 있다. 그는 만주에서 聖經의 國譯을 시도하면서 國語文法을 연구했던 改新教 선교사였는데 1877年에 Corean Primer를 著述하고 이듬해 “The Corean Language”를 집필하였으며 1882年에는 전자의 修正版 Korean Speech를 내었다. 그와 함께 선교사업을 벌이던 MacIntyre의 글도 좋은 업적으로 간주된다.⁶⁰⁾ Aston(1879)는 韓國語의 文法構造의 親近性과, 親緣性을 다룬 수준 높은 學術論文이며⁶¹⁾ 1882年에는 Griffis에 의해 그때까지의 西洋人の 韓國語研究史가 概觀되기도 하였다.⁶²⁾ 草創期의 西洋人の 업적 가운데서 Ross의 修正版과 Ridel의 文法은 그 뒤의 西洋人の 國語研究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때까지의 西洋人の 國語研究는 半島 밖에서 행해졌었는데 1880年代에 접어들면서부터 泰西諸國과 善隣友好關係가 成立되자 西洋人們이 自由로이 出入하게 되고 따라서 國語研究는 半島 안에서 자유로이 遂行되었다. 그 첫번째 結實이 Scott(1887)⁶³⁾이고 다음으로 Underwood(1890)⁶⁴⁾ 이 있다. 전자는 1893年에 후자는 1915年에 각각 改訂版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Underwood의 文法은 이전의 西洋人の 업적을 비판하는 관점

참조.

- 58) Ridel의 國語文法解說에 대하여는 金敏洙(1955), 李崇寧(1965), 高(1976ab), 金外(1977 ②19 및 解說) 참조.
- 59) Imbault-Huart의 연구에 대하여는 高(1978a) 金外(未刊 ②22 및 解說) 참조.
- 60) Ross와 MacIntyre의 研究에 대하여는 小倉進平(1964), 高(1976a, 1978), 金外(1979 ②02, ②03, ②05 및 解說) 참조.
- 61) Aston의 研究에 대하여는 小倉進平(1964), 高(1978a), 金外(1979 ②04 및 解說) 참조.
- 62) Griffis에 대하여는 高(1978a), 金外(1979 ②07 및 解說) 참조.
- 63) Scott의 文法에 대해서는 小倉進平(1964), 高(1976a, 1978a), 金外(未刊 ②08, ②08, ②09, ②10 및 解說) 참조.
- 64) Underwood의 文法에 대해서는 小倉進平(1964), 金敏洙(1960), 高(1976a, 1978a), 金外(1977 ②11, ②12 및 解說) 참조.

에서 國語文法현상을 관찰한 것으로 英美人의 업적 가운데서 Ridel의 文法에 比肩할 만한 卓越한 업적이다. 이밖에 Gale文法⁶⁵⁾도 特記할 만하다. Underwood와 Gale의 업적은 우리들 자신에 의한 국어문법 연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닌가 한다. 英美人의 다음으로 國語研究를 한 西洋人은 獨逸人이다. 獨逸人們은 이미 19世紀 前半期에 國語研究의 先鞭을 잡았다고 했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 다시 國語研究에 遷進하게 된 것이다. 그 첫째로 Eckardt(1923)⁶⁶⁾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본서는 19세기의 獨逸人の 연구와 계통적 흐름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Roth(1936)은 内容上으로 Eckardt의 것과 類似한 것 이 많으나 具體的 引證을 찾을 수 없다.⁶⁷⁾ 이들의 연구는 당시의 우리文法家나 日本人文法家들의 영향을 크게 입었던 것으로 推測된다. 특히 Eckardt의 文法은 Ridel, Underwood의 文法과 함께 初期 西洋宣教師들의 三大著述로 손꼽을 수 있다.

Ramstedt(1939)는 순수히 言語學的 觀點에서 著述된 것이다. 이미 발 표한 1928年的 글과 1933年的 글을 바탕으로 國語를 알타이語族에 归屬 시킬 目的으로 썼어졌다.⁶⁸⁾ 본서의 특징은 그때까지의 西洋人の 研究結果를 구조적 색채가 加味된 歷史文法의 模型 위에 體系化한 것이라 할 수 있다. Ramstedt의 文法은 그 이후의 西洋人の 國語研究의 실질적 출발점이 되었으며 國語 歷史文法研究에 큰 영향을 미쳤다.

西洋人과 함께 國語文法研究에 貢獻한 外國人은 日本人이다. 이들은 1881年の「韓語入門」⁶⁹⁾에서 國語 文法現象의 究明에 손을 냈으며 前問

65) Gale의 文法에 대해서는 金外(1979 [2]14, [2]15 및 解說) 참조.

66) Eckardt의 文法에 대해서는 小倉進平(1965), 高(1976a, 1978a), 金外(1977 [2]23, [2]24 및 解說) 참조.

67) Roth의 文法에 대해서는 李崇寧(1965), 高(1976a), 金外(1979 [2]25 및 解說) 참조.

68) Ramstedt의 國語文法研究에 대하여는 高(1976a, 1978a), 金外(1979 [2]16 [2]17, [2]18 및 解說) 참조. Ramstedt의 文法은 全在吳교수에 依해 번역이 시도된 일이 있다(語文論叢 2, 3집(慶北大學校 文理科大學), 1964, 1966).

69) 이에 대해서는 金外(未刊 [2]26 [2]27) 참조.

恭作(1909)과 高橋亭(1909)은 初期 日人們의 업적 가운데서 가장 손꼽히는 업적으로 評價되고 있다.⁷⁰⁾ 이밖에도 日本人들이 著述한 文法書類는 상당한 量에 달한다.⁷¹⁾ 여기에는 우리나라 사람과의 共著도 있고⁷²⁾ 우리나라 사람이 日本人을 위해 쓴 것⁷³⁾도 포함될 수 있다.

넓은 意味의 國語文法—엄격히는 韓國文法이라 할이 妥當하다—에는 우리 文法家가 쓴 外國語文法도 포함될 수 있다. 初期에 나온 此種의 文法에는 日本語, 英語, 漢文 및 中國語 정도가 確認되어 있다.⁷⁴⁾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國語의 傳統文法은 單行本類를 통하여 遂行되어 왔음을 確認할 수 있다. 그러나 1930年代의 맞춤법 制定을 전후하여 「한글」과 「正音」誌上에는 폐 수준 높은 論文들이 발표되었다. 1950年代의 後半과 1960年代의 前半에는 學校文法의 統一에 관련된 傳統的 方法에 따른 研究가 많이 나왔다.⁷⁵⁾

3. 構造文法의 研究

記述的 言語分析理論에 따른 國語文法現象의 연구는 50年代 後半으로부터 나타나는데⁷⁶⁾ 本格적인 적용은 中世國語에서 試圖되었으며⁷⁷⁾ 現代國語는 60年代 中半부부터 구체적 연구를 접할 수 있다. 이러한 傾向에 힘입은 國語構造文法은 許雄(1963)에서 어느 정도 바탕이 마련되었으며 이어 박창해(1964)와 安秉禧(1965a)에 의해 國語構造文法이 구성되었다. 박창해의 것은 美國의 記述的 言語分析 理論에 의한 本格的 國語形態論이며 安秉禧의 것은 傳統文法을 발판으로 하여 國語構造文法을 편

70) 두 文法家에 대해서는 金敏洙(1955), 高(1978a), 金外(1977 [2]32; 1979 [2]33 및 解說) 참조.

71) 金外(1977 [2]34, [2]36, [2]37; 未刊 [2]30 및 解說) 참조.

72) 金外(1977 [2]35 및 解說) 참조.

73) 金外(1977 [2]31, [2]41, [2]42; 1979 [2]38; 未刊 [2]39, [2]40 및 解說) 참조.

74) 이에 대해서는 金外([2]44~[2]61 및 解說) 참조.

75) 代表적으로 한글 125호(1959)에 실린 김윤경, 최현배, 이희승, 정인승, 이승녕의 글을 들 수 있다.

76) 장하일(1957), 評雄(1958 補遺), 金敏洙(1960)이 方面에 대한 업적이다.

77) 이에 대해서는 文法史研究(後述)를 참조.

은 것인데 形態論과 統辭論을 文法의 영역으로 잡고 前者에는 造語法과 屈折法을 두고 있다. 構造文法의 도입은 형태소를 중심으로 國語文法의 單位를 다시 세우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李男德 1963). 50年代 後半부터 일기 시작한 國語構造文法의 전반적 특징은 外來理論의 單純한 模倣이나 遷用이 아니라 周時經 아래의 우리 文法家들이 쌓은 國語形態構造에 대한 成果를 토대로遂行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는 Ramstedt (前述)와 Martin(後述)의 영향도 적지 않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外國人의 업적으로 特記할 것은 Martin(1954)⁷⁸⁾이다. 본서는 記述言語學的方法으로 國語를 分析한 최초의 업적으로서 이후의 國內의 이러한 研究의 좋은 길잡이가 되었고 美洲에서 이룩된 國語變形文法 연구의 큰 참고가 되었다.⁷⁹⁾ Martin(forthcoming)은 國語참고문법으로 早速한 刊行이 기대된다. Dupont(1965)와 Lewin(1970)는 實用的目的에 공헌하기 위해 써어졌지만 國語의 形態구조를 치밀하게 관찰한 좋은 업적이다.⁸⁰⁾ 특히 後者는 國語의 用言形態論을 叙述한 것이다.

構造的 文法模型에 立脚한 具體的 成果들을 概觀해 보기로 한다. 이 文法理論의 理論的 特性 때문에 形態論, 그 가운데에서도 造語法 方面의 연구가 量的으로나 質的으로 으뜸이고 이 理論의 적용으로 國語形態素의 식별기준이 마련되었고 (高永根 1975 등), 특히 生成形態論의 도입은 國語形態素에 대한 종전의 개념을 補完하는 계기가 되었다(高永根 1978). 그러나 統辭論方面은 매우 寂寥한 차지에 놓여 있었다.

(1) 造語法

造語法에 대한 논의는 文法論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영역이 확실하지 않았고 造語法이란 術語를 등장시키지 않은 상태에서였지만 初期 文法

78) 본서는 1969年 全在昊·金泰漢 兩人에 의해 「韓國語形態音韻論」이란 이름으로 宣明文化社에서 번역되었다.

79) Martin의 國語研究에 대하여는 高(1971; 1978a) 참조.

80) Dupont의 文法에 대하여는 高(1978a), Lewin의 업적에 대하여는 高(1974) 참조.

書에서부터 얼마씩 행해졌다. 複合語, 派生語, 壓語 등의 이름 밑에서 행해져 온 논의들이 그것이다. 現代國語의 이들에 대한概論書에서의 整理로 대표적인 것은 李熙昇(1955)이다. 現代國語의 複合語에 대한 것으로는 李翊燮(1965, 1966, 1967, 1968, 1975)이 특히 漢字語의 造語法의 처리를 중심으로 造語論의 體系化를 시도하였다. 現代國어의 派生法에 대한 것으로는 金桂坤(1968, 1969등)과 高永根(1974a) 등이 방대한 자료를 정리·분석하였다. 그리고 音韻上의 특징을 중심으로 派生語의 다른一面을 다룬 것으로 宋喆儀(1977), 漢字語 造語法을 다룬 것으로 金圭哲(1980)이 있다.

(2) 屈折法

體言屈折에 있어서는 不定格의 定立(安秉禡 1966)과 ‘사람’과 관련되는 主格標識의 確認(高永根 1968)을 構造的 模型에 의한 成果로 끊을 수 있다. 이와 함께 形態에 基盤을 둔 格體系의 再整備를 통하여 格研究의 새로운局面을 찾으려는 試圖(金敏洙 1970)도 있었고 格形態의 意味가 맷고 있는 相關的 對立을 파악하려는 일(李承旭 1973a)도 목격할 수 있었다.

用言屈折에 있어서는 傳統文法에서 補助語幹으로 처리되던 被動·使動·強勢의 接辭들을 語幹部에 所屬시키고 尊敬·時制의 接辭들은 語尾部에 歸屬시키려는 작업(安秉禡 1959, 許雄 1964a)이 먼저 있었다. 語尾部의 한 구성부인 先語未語尾를 정밀하게 관찰함으로써 叙法(mood)과 관련되는 形態素들이 드러나는가 하면 先語未語尾와 語未語尾의 상호 관련성 등이 徹頭徹尾하게 追求되기도 하였다(高永根 1965, 1967). 終結語未語尾의 體系가 確立됨으로써 文體法과 尊卑法의 相關關係를 보다 有機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으며(高永根 1974bc, 1976a, 石環澄 1976)⁸¹⁾ 非終結語尾에 대한 單位劃定作業(Pihl 1965, 高永根 1975)과 기능변별시도(大江孝男 1972)도 構造的 文法模型에 依한

81) Ooe (1958a)은 京畿方言을 對象으로 했지만 構造的 文法模型에 立脚한 終結語未語尾의 연구업적으로 볼 수 있다.

成果라 할수 있다. 한편 國語의 屈折語尾가 文法素論(tagmemics)의 理論에 근거해서 分析되기도 하였다(崔昇平 1969).

形式名詞와 같은 準自立形式의 設定기준을 論議함으로써 形式名詞, 接尾辭, 語尾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구획될 수 있는 토대가 잡혔고 先後行 統合關係를 省察한 것은 統辭論研究를 위한 磚石이 되었다고 할 만하다(高永根 1970).

統辭論의 연구는 李基白(1968)에서 試圖된 直接構成成分(IC)분석에 의한 文章의 構造分析이 고작이었다.

構造文法模型에 立脚한 결실 중의 하나로 方言文法方面의 업적을 놓칠 수 없다. 方言의 文法 構造를 다룬 것은 극히 드문 편이나 李崇寧(1957)의 濟州島方言의 形態論에 대한 종합적인 記述 이후 이 방면의 연구도 간간이 이어져 왔다. 역시 濟州島 方언을 대상으로 한 玄平孝(1974, 1977)등이나 江陵을 중심으로 한 東海岸의 方言을 대상으로 한 李翊燮(1972, 1974a), 崔明玉(1980)등 方言 文法을 기술한 것들이 그것이다.

4. 機能・生成文法의 研究

이곳에서는 傳統 및 構造文法에서 이루어진 機能的 面의 成果와 變形 生成文法에 의한 統辭論 方面의 研究를 다루기로 한다.

變形文法理論이 이 땅에 처음 선을 보인 것은 1965年이었는데⁸²⁾ 이 理論에 의한 첫 結實은 이홍배(1966)이었고 이에 수많은 學位論文들이 쏟아져 나왔다.⁸³⁾ 이들은 理論的 背景에 따라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홍배(1966), 송석중(1967), 南基心(1967), 김남길(1974b) 〈初期變形理論〉

李孟成(1968) 〈Harris의 變形理論〉

박순함(1967), 국웅도(1968) 〈標準理論〉

南基心(1973), 이정노(1974), 양동휘(1975), 서정수(1975) 〈標準理論을 上軸

82) 서울大學校語學研究所의 기관지 「言語教育」(뒤에 「語學研究」로 改題됨) 创刊號(1965) 참조.

83) 博士學位論文은 國內外의 것을 綱羅하였고 碩士學位論文은 國外의 것만 對象으로 함을 原則으로 하였다.

- 으로 하고 初期理論과 生成意味論의 영향 받음>
- 이홍배(1970a) <Ross의 履行素理論에 立脚함>
- 박병수(1974), 김화춘(1976) <解釋意味論>
- 양인석(1972a), 成光洙(1979) <Fillmore의 格文法理論>
- 오준규(1971b), 장석진(1973b), 이정민(1974), 석경경(1975) (生成意味論 및 話用論), Abasolo(1974) <Chafe의 理論>
- 황종인(1977), 이익환(1978b) <Categorial Grammar(Montague文法)>
- 황적륜(1975), 박영순(1978) <社會言語學>

이들은 國語를 資料로 삼아 生成理論을 適用한 것이지만 生成文法 자체에 대한 理論을 전개한 金韓坤(1975)의 업적도 크게는 國語生成文法 연구의 업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밖에도 初期理論, 標準理論, 解釋 및 生成意味論에 立脚하여 크고 작은 문제를 다룬 論文이 많다.⁸⁴⁾

國語生成文法의 연구발표무대는 서울大學校 語學研究所였으니 論文은 1965年에 創刊된 「語學研究」에 주로 발표되고 口頭발표 및 討論會는 1967年부터 年一回씩 갖는 語學研究會에서 행해져 왔다. 특히 討論會에서는 “國語의 變形文法的 分析에 있어서의 문제점”(1968), “國語統辭構造와 變換生成理論”(1970), “생성문법에 의한 국어기술의 재검토”—補文化와 關係化—(1975), “生成文法에 의한 國語記述의 再檢討—話用論의 記述—”(1976)등과 같이 일반적인 문제에서 특수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연구결과를 검토·확인함으로써 共通理論의樹立을 피하는 작업을 꾸준히 펴 왔다. 특히 “意味의 表現—解釋論對 生成論—”(1974)는 生成理論의 문제점을 우리 나름대로 정리·평가한 업적으로 간주된다.⁸⁵⁾

變形生成文法理論을 應用한 國語文法研究는 1972年에 창립된 “文法연구회”에서도 진지하게 試圖되었다. 이 모임은 주로 國內에서 修學한 小壯國語學者와 海外에서 學位를 받은 學者들의 써클인 바 “小壯文法學

84) 生成文法에 의한 國語統辭論研究의 概觀은 徐正洙(1977), 南基心(1977) 高(1979b) 참조.

85) 討論會의 成果는 「語學研究」의 각 해당 年度의 2號에 실려 있다. 단 1968年分은 그 結果가 정리되지 못했다.

派”라 이름붙여도 좋을 것이다. 이 모임의 중요한 趣旨는 變形生成文法理論을 國語에 적용하여 그 土着化여부를 시험하는 것이었다.⁸⁶⁾ 그 한 結實이 이홍배(1974, 1975, 1979)의 “국어의 변형생성문법”(I, II, III)⁸⁷⁾이다. 이글은 標準理論에 根據하여 國語生成文法을 평이하게 기술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계열에 속하는 문법으로 金敏洙(1971)를 들 수 있다. 본서는 生成理論의 토대 위에서 傳統文法과 構造文法의 成果를 集約하려고 試圖한 것이다. 이러한 努力은 주로 國語學者들에 의해서 시도되고 있으니 南基心外編(1975)이 그것을 잘 대변한다. 본서는 傳統·構造·生成文法에 관련된 國語文法論文을 책으로 묶은 것인데 國語文法의 발전과정과 현상 및 문제점을 파악하는 중요 길잡이로 평가할 수 있다.

1975년에 창립된 “한국언어학회”도 國語文法연구에 큰 봇을 해 오고 있다. 이 모임은 年 1회씩 공동 연구회와 논저비평을 갖는다. 共同研究는 特定한 주제를 놓고 토론참석자들이 二次에 걸쳐서 연구결과를 보고·토론하는 것인데, 다루어진 주제는 尊待法, 時制, 보조동사였다.⁸⁸⁾ 논저비평에서는 주로 學位論文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서정수(1975), 황적륜(1975), Abasolo(1974) 등이 비평 대상이 되었다.⁸⁹⁾ 變形·生成文法에 의한 國語統辭論 연구를 종합해볼 때 다루어진 主題들은 다음과 같다.

- (1) 格, 主語問題, 特殊助詞, (2) 主題化, (3) 代名詞化, 再歸化, (4) 模數 및 數量化, (5) 使動化, 被動化, (6) 否定法, (7) 文體法, 履行素, (8) 關係

86) “문법연구회”的 창립경위와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문법연구」1(1974)의 “창간사”, 「문법연구」3(1976)의 “다섯들을 맞으며”(卷頭言) 및 2, 3, 4집의 휘보 참조.

87) 「문법연구」1, 2, 4집에 연재되었다.

88) 이들 주제의 토론결과는 「언어」1-2(1976), 3-2(1978)에 보고되어 있다.

89) 이들 論著의 批評結果는 「언어」誌의 2-1(1977), 3-1(1978)에 보고되어 있다.

化, (9) 補文化, (10) 接續化, (11) 敬語法, (12) 時·相, (13) 叙法, 樣態, (14) 助動詞, (15) 副詞, (16) 이·야기

이상의 主題들이 文法模型과 연구자에 따라 어떻게 浮刻·說明되는가를 傳統文法 및 構造文法의 機能的 方面에서의 成果와 對較해 가면서 살펴보기로 한다.⁹⁰⁾

(1) 格, 主語問題, 特殊助詞

傳統文法에서의 助詞의 연구는 格助詞와 特殊助詞(補助詞) 사이의 기능상의 差異點을 파악한다든지 格助詞를 職能에 따라 分類하거나 特殊助詞의 意味를 賦與하는 정도에서 머물렀는데⁹¹⁾ 格文法 理論의 導入으로 表面上으로 形態가 같다고 하더라도 深層에 있어서는 그 意味가 여려가지로 다르다는 意見이 제시되었고 生成意味論의 援用으로 特殊助詞의 意味가 폭넓게 宪明되었다. 이러한 方法에 의한 格 研究의 包括의 인 것은 양인석(1972a)과 成光洙(1979)를 들 수 있다. 그러나 初期理論이나 標準理論 나아가서는 生成意味論에 의한 格연구도 상당한 량에 이른다.

生成理論의 導入으로 論議가 많았던 格問題은 이른바 “二重主語”⁹²⁾였다. 傳統文法에서는 “토끼는 앞발이 짧다”에서 나타나는 主語의 重出을 總主語(文主, 大主語)와 小主語의 關係로 解釋하거나(俞吉潛 1909, 朴勝彬 1935, 洪起文 1947), 主語와 叙述語로 쓰인 用言節로 해석하는 일(최현배 1937)이 보통이었다. 生成文法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傳統文法에서 論議된 것과 큰 차이를 보여 주지 않는다. 主語의 重出을 大小關係로 解決하려는 양인석(1972a)의 解決方案은 洪起文(1947)의 大主語·小

90) 生成文法에 의한 國語統辭論 관계의 업적이 가장 많이 실리는 學術誌는前述한 바와 같이 「語學研究」(서울大學校語學研究所)이고 專門誌는 「文法연구」(文法연구회)이다. 「언어」(한국언어학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國語學」(國語學會)도 이 方面의 論文들이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 「 말」(연세대학교 한글어학당)과 「音語와 言語學」(韓國外國語大學)은 전문성을 떤 논문과 함께 이론소개의 글을 실고 있다.

91) 대표적으로 최현배(1937)과 이희승(1949) 참조.

92) 二重主語의 연구에 대한 종합적 개관은 任洪彬(1974) 참조.

主語의 接近方法과 흡사하고, 송석중(1967)의 單一主格論(single subject)과 박순함(1970)의 格文法의 接近은 格形態를 意味論的 觀點에서 解釋한다는 점에서 洪起文(1947)의 副主格과 거리가 멀지 않다. 任洪彬(1972)의 主題化理論에 立脚한 시도는 유길준과 박승빈의 總主語·文主의 개념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최현배등의 用言節도 현대적 관점에서 깊이 논의할 만하다. 한편 主格助詞 “이/가”가 格助詞가 아닌 補助詞란 관점에서 二重主語를 새로이 해석하려는 시도도 있다(申昌淳 1975). 이러한 태도는 日本文法의 主語연구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한다. 최근에는 關係文法(Relational Grammar)의 立場에서 二重主格 및 二重對格의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으며(Shibatani 1976) 그것을 더 深化시키려는 시도도 목격된다(김영희 1978a). 主格重出의 論議에 있어 學論된 單語類는 이론바 心理動詞로 불리는 主觀性形容詞의 동사구조다. 이 形容詞는 60年代의 시제연구가의 관심의 對象이 되었고(나진석 1964, 1972; 高永根 1965), 특히 格文法의 관점에서 논의가 활발했다(양인석 1972a, 李廷旼 1976). 최근에 와서는 이의 통사구조가 被動文의 그것과 같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李翊燮 1978). 主語의 重出과 관련해서 언급할 것은 이론바 無主語文의 처리다. 生成文法理論은 主語 없는 문장을 $S \rightarrow NP + VP$ 라는 圖式에 따라 基底構造에 主語를 설정케 하였다(송석중 1967). 主語의 脱落을 수의적 變形規則으로 설명하려 한 것이다. 이러한 方式은 傳統文法에서 그림풀이[圖解]를 할 때 主語를 補充한다든지 그 자리를 비워두는 처리와 비슷한 것이다. 이리하여 傳統文法에서는 主語省略등으로 불려왔는데 構造·機能文法에 경도된 文法家들은 오히려 叙述語文이라고 주장한다(李承旭 1969).⁹³⁾ 國語의 構文上의 특징을 감안할 때 主語는 附屬成分이며 叙述語가 主成分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主格 이외의 格助詞는 生成意味論의 照明을 받으면서 진지하게 論議

93) 허웅 「표준문법」(신구문화사)(1968)과 그 교사용지도서에서도 그러한 견해가 披瀝되어 있다.

되었다. 方向性 表示의 格助詞 “에, 로”등을 시간과 공간의 方向性과 관련시켜 意味分化를 파악하려는 시도도 있었고 (洪允杓 1978) “에, 에서”的 意味를 보다 추상적 차원에서 고집어 내려는 과감한 제의를 한 일도 볼수 있다(梁東暉 1973). “로”的 意味를 樣態的인 角度에서 單一化시키려는 努力도 접할 수 있다(任洪彬 1974a).

特殊助詞와 感嘆助詞의 意味는 일찌기 이희승(1949, 1957)에 의해 그 설명이 시도되었다. 문장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야기 [Text, discourse] (後述)속에서 그 意味를 파악하려고 했었다. 最近에 나타난 이 方面의 업적(양인석 1973a, 高永根 1976b, 蔡琬 1977)도 근본적으로는 이희승의 方法과 크게 다를 바 없다. 生成意味論, 특히 話用論에 바탕을 둔 特殊助詞에의 接近方法은 前提·斷言·含蓄의 개념을 적절하게 利用한 것이다. 한편 범주문법(Categorial Grammar)에 의한 이익환(1978, 1979)의 시도도 이 方法 연구를 위한 바람직한 方向으로 간주된다.

(2) 主題化

근래에 대두된 論題의 하나로 主題化(topicization)가 있다. 主題(topic)는 학자에 따라 그 개념이 一定치 않지만 그 대표적인 것은 프라그學派의 것으로, 言語 중에는 ‘言語+述語’의 構造로는 설명되지 않고 ‘topic+comment’의 構造로 설명된다고 할 때의 主題다.

국어에서의 主題는 主로 特殊助詞 ‘는’의 기능을 主格助詞 ‘가’의 그 것과 구별하여 그 ‘는’의 기능이 바로 主題를 나타내 주는 것이라는 방향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 방향의 것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蔡琬(1976, 1977)이 있다. 蔡琬(1979)은 主題의 概念에 대한 종합적인 해설을 보여 주기도 한다. 그리고 방향은 좀 다르지만 任洪彬(1972a) 역시 主題化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보이며 기타 오준규(1971b), 이정민(1974) 등의 學位論文에서 이 문제를 얼마간씩 다 다루고 있다. 이 방면으로의 참고문헌으로는 Sgall et. al. (1973), Li(1976) 등이 있고 Kuno(1973)에서의 日本語에 대한 논의도 좋은 참고가 된다.

(3) 代名詞化, 再歸化

代名詞化(pronominalization) 및 再歸化(reflexivization)도 최근에 대두된 論題다. 특히 국어의 再歸代名詞에 대해서는 그 存在 與否조차 분명하게 인식되지 않았던 것이 英語의 再歸化에 대한 활발한 연구 뿐에 힘입어 미국에서 쓰여진 몇몇 學位論文에서 비록 ‘自己’라는 형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그 중 이정민(1974)와 김화춘(1976)이 가장 多角的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다. 그 후 李翊燮(1978b)은 ‘자기’ 이외에 ‘저’ ‘당신’까지 포함시켜 그 分布와 制約의 조건을 종합 정리하였으며 이익환(1978c)이나 이홍배(1976) 등이 다각각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4) 複數 및 數量化

傳統文法에서는 國語의 數의 表示는 菲수적이 아니며 ‘센’의 對象이 안되는 말에 복수접미사 “들”이 붙을 때는 主語의 數와 관련됨을 지적하는 것이 보통이었다(최현배 1937). 生成文法의 觀點은 後者의 경우 深層의 主語에 複數 [pl]의 자질을 賦與하고 變形規則에 의해 表面으로 實現된다는 설명방식을 가져오게 했으며(송석중 1967) 前者의 현상도 菲수적으로 규칙화할 것을 試圖하고 있다(송석중 1975). 國語의 數는 數量化(後述)와 관련시켜서 설명해야 하며 國語의 數는 數量化의 한 變形임을 주장하는 文法家도 있다(김영희 1976a).

傳統文法에서는 數詞, 數單位形式名詞, 기타 數量表示語의 상관관계가 유기적으로 叙說되지 못했는데 生成文法理論은 數量表示語의 統辭特性을 깊이 있게 천착했으며(송석중 1967, 李翊燮 1973, 김영희 1976a), 특히 生成意味論의 관점은 英語의 量化詞(quantifier)와의 對比를 통하여 普遍原理를 確認하는 方面으로 視野를 擴大시키고 있다(오준규 1971b).

(5) 使動化, 被動化

傳統文法에서는 使動 및 被動現象을 形態論, 統辭論, 意味・話用論의 觀點에서 多角度로 연구하였다. 오늘날 生成文法에서 論議되고 있는 重

要問題들을 内容에 있어서는 거의 다 다루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⁹⁴⁾ 構造文法의 테두리 안에서는 주로 造語法의 觀點에서 統辭的 性格이 문제 되기도 하였다(高永根 1974a). 두 현상은 形成의 特異性과 多樣性, 文法的 내지 意味上의 複合性때문에 傳統文法과 構造文法에서 뿐 아니라 生成文法에서도 꾸준히 관심의 對象이 되어 왔다.

使動化 현상은 初期生成文法段階에서는 接辭의 附着을 단순히 變形규칙으로 다루었으나(송석중 1967), 그후 標準理論과 生成意味論을援用한 文法의 模型에서는 使動形成接辭를 上位文의 敘述語로 간주하기에 이르렀고(이홍배 1970a), 다시 이를 變形규칙의 적용으로 表面構造로 이끌어 내는 시도를 펴기도 했다(徐源任 1974). 生成文法에 의한 이러한 作業은 主動文과 使動文의 의미가 同意라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使動化 現象의 論議에서 주목할 것은 일찌기 최현배(1937)에서 '제째 하임법'으로 불린 "一개 하—"에 의한 使動構成을 일반적인 使動法(최현배의 '첫째 하임법')과 同意의인 것인가 異意의인 것인가 하는 문제다. Shibatani(1973)에서는 國語와 日本語에 나타나는 두 가지 使動法의 異意性이 주장되었고 양인석(1974)에서는 그의 1972年の 學位論文에 근거하여 同意性理論을 再闡明하면서 Shibatani에 맞섰다. Shibatani(1976)에서는 다시 그의 異義性 理論을 펴면서 양인석의 주장에 應酬했고 송석중(1978)에서도 두가지 使動法은 意味上으로 同意가 아님이 주장되었다. 이런 相反된 견해가 나타난 것은 方法論의 問題로歸着되는 것이니 言語記述에서 言語能力과 言語遂行 중 어느것을 重視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됨을 느끼게 된다.⁹⁵⁾

生成意味論의 方法은 종전에는 단순히 造語法의 각도에서 처리되던 문제들을 추상적 意味表現의 次元에서 유도하는 方面에의 接近을 가능하게 했다. 그 한例가 形容詞에서 파생된 他動詞(deadjectival causative)

94) 代表的으로 최현배(1937)의 變動詞條項 참조.

95) 이에 대해서는 Shibatani(1976)의 끝부분 참조.

의 처리인데(이정민 1973a) 이는 語彙論者에 左袒하는 文法家들의 批判의 對象이 되기도 했다(李基東 1976a). 이러한 類의 動詞는 語彙部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接辭에 의한 使動法(lexical causative)을 면밀히 추구함으로써 심층적인 格構造(case frame)가 서로 다른, 두 類型의 使動法을 구분할 것을 제의하는 깊이 있는 연구도 目擊된다(李基東 1975a).

被動化 현상은 使動化의 그것만큼 論議가 많지 않았다. 이는 被動法이 使動法에 比하여 統辭·意味面의 特성이 덜 복잡한 데 原因이 있을 것이다. 初期理論에서는 變形規則에 의한 유도가 시도되었고 (송석중 1967) 生成意味論의 관점에서는 使動化와 같이 上位의 叙述語에서 유도되는 것으로 解釋하기도 한다(이정민 1974). 한편 “-게 하-”와 對立되는 “-어 지-”의 統辭·意味上의 特殊性을 밝히려는 努力도 꾸준하다(李相億 1970, 成光洙 1976). 이곳에서도 語彙論者의 立場이 代辯된다. 최현배(1937)에서는 被動詞와 能動詞와의 統辭意味上의 관계이 밀접함을 重視하여 단순한 變動詞로 다루고 송석중(1967)도 크게는 같은 처리방식을 따른 것이다. 그런데 李基東(1976b)에서는 變形規則에 의해 被動文을 能動文에서 유도하려는 接近法은 너무例外가 많다고 하여 語彙部에 넣기를 제안한 것이다. 被動成立의 制約條件을 따지는 任洪彬(1977)의 연구는 앞으로 이 方面연구를 다시 되씹어 보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使動과 被動은 形態의 類似性 때문에 傳統文法에서도 그 相關性이 주목되긴 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形態·統辭·意味面의 相關性이 分析되고 있으며(李相億 1970), 특히 朴良圭(1978)에서는 被動·使動의 概念을 文法 外의인 것으로 돌리고 양자에 나타나는 ‘이’를 同一視할 수 있는 統辭特徵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6) 否定法

國語文法研究史上에 있어 否定法만큼 論議가 분분했던 課題는 드물 것이다. 中世國語의 文法論에서 韓讓法의 “슴”과 이른바 捕入母音 “오/”

우”를 둘러싸고 오랜 論戰이 계속되긴 했으나 參與한 文法家의 數나 論爭期間 理論的 起伏 등을 고려할 때 否定法의 연구만큼 密度가 질지는 못했다. 송석중(1967)에서 否定法 문제가 論議된 이래 지금까지 두번에 걸친 意見의 종합화⁹⁶⁾가 시도되었다는 한 가지 점만으로도 그 深刻성을 알 수 있다.

傳統文法에서는 朴勝彬(1935)을 除外하고는 第Ⅰ型否定法(“안 잔다”類)은 副詞에서 否定副詞로, 第Ⅱ型否定法(“자지 않는다”類)는 補助用言에서 否定補助動詞 내지 否定補助形容詞로 처리되었을 뿐 兩者의 相體關係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했다. 두 가지 否定法의 相關關係에 注目함으로써 統解 및 意味上의 여러 問題에의 接近을 시도한 國語生成文法家의 업적은 높이 評價할 만하다. 國語否定法研究는 두 時期로 나누어 고찰하는 것이 편리하다.

前期는 서정수(1974b)의 概觀까지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이 時期에 否定法을 언급한 업적은 송석중(1967, 1971, 1973), 박순함(1967), 이홍배(1970ab, 1972), 오준규(1971a), 任洪彬(1973)이다. 두가지 부정법의 基底構造가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하는 문제가 첫째로 相衝된 見解였다. 전자는 두가지 否定法의 意味가 같음을, 後자는 다름을 각각 전제로 한다. 後者の 解釋를 表明한 文法家는 송석중이다. 그에 의하면 第Ⅱ型否定法은 名詞化標識 “기”를 가진 肯定文에 變形規則이 適用되어 形成된다고 한다. 다른 文法家들은 두가지 否定法의 基底를 하나로 잡는다. 그러나 여기에도 意見이 같지 않다. 박순함은 第Ⅱ型을, 이홍배는 第Ⅰ型을 기저로 잡았다. 이홍배의 특징은 否定素 “아니”와 동사 “하”를 심층구조에 둔 것과 否定素이 동규칙을 설정한 점이다. 이는 뒤에 오준규(1971a)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이홍배의 부정소이동규칙과 “하”의 심층구조에서의 설정에 반대하고 대신 부정소용합규칙과 “하”첨가규

96) 이 주제에 관한 그 동안의 상황에 대해서는 서정수(1974b)와 李基用(1979) 참조.

칙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홍배(1972)에서는 오준규의 비판을 받아들여 부정소를 上位動詞句에 놓는 등 修正案을 제시했으나 “하”를 심층구조에 도입하는 일은 굽히지 않았다. 이러한 見解上의 差異는 그들의 文法理論의 背景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홍배는 대체로 J. Ross의 履行素의 概念이나 標準理論에 根據한 데 대해 오준규는 G. Lakoff등의 生成意味論에 立脚해 있기 때문이다. 이홍배·오준규의 의견은 송석중(1974)에 의해 비판을 받게 된다. 이時期의 否定法 연구업적으로 간파할 수 있는 것이 任洪彬(1973)이다. 이 곳에는 已往의 부정법 연구는 몇가지 基本前提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同語反復의 인 論議의 되풀이 있음이 지적되었다. 그 중의 하나는 “지”를 “기”와 同一視해 온 것이었다. “지”를 명사화의 標識로 간주한 것은 朴勝彬(1935)으로 보나, 周時經(1910)에서도 발견되고 Roth(1936)에서도 목격할 수 있으나 선뜻 同意하기 어려운 면이 적지 않은 듯하다.

後期는 李基用(1979)의 概觀까지로 잡는다. 이時期의 特徵은 한편으로 前期에 세워진 가설을 둘러싼 論爭이 繼續되고 한편으로는 國語否定法에 대해 깊이 있는 관찰을 보여주는 점이다. 김영기(1974)는 두가지 부정법이 사람에 따라 어떻게 수용되며 어느 것이 더 생산적인가 하는 문제를 실지의 조사를 통해서 確認한 것인데 音節의 數가 統辭規則에 영향을 미치는 音韻論의 정보(phonological information)의 중요성이 지적되기도 했다. 李廷攻(1977)에서는 否定命令素 “-지 말-”의 統辭特性과 意志의 樣相 및 話行上의 前提가 규명되기도 했다. 양동희(1976a)는 그때까지의 否定法研究를 검토함으로써 두가지 부정법이 單一深層구조에서 유도된다는 점을 밝히면서 生成意味論者の 견해를 지지함을 表明한 것이다. 오준규(1978)은 부정법의 만족스런 설명은 意味·話用論의 内容을 포함함으로써만 가능하며 統辭論만으로는 一般性을 포착하기 어렵다고 否定法연구의 方法論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진지한 연구와 併行하여 前期에 세워진 송석중의 가설에 반대 의견을 펴 任洪彬(1973)에

대한 송석중(1977)의 攻駁, 이에 對한 任洪彬(1978)의 應酬는 自家意見의 응호와 변설에 열중하는 나머지 理性을 잃은 論爭으로까지 변모해 갔다. 5, 60年代의 國語學界에 있었던 몇가지 學術論爭이 再演되는 듯했다. 國語否定法研究는 한마디로 말해서 生成論者와 語彙論者의 對決의連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 송석중과 任洪彬의 論爭은 國語否定法의 意味分析을 深化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 값진 教訓으로 받아들일 만하다.⁹⁷⁾ 끝으로 金東植(1980)에서는 두가지의 否定法의 同意性과 異意性, 第Ⅰ型否定文形成에서의 制約, 否定素(아니, 끗)의 意味 등이 토박이의 直觀과 관련되어 정밀하게 分析되어 있음을 덧붙인다.

(7) 文體法, 履行素

文體法(이희승 1949)이란 文의 體法(朴勝彬 1935)을 意味하는 것으로 文章의 種別(classification of utterances)을 가리킨다. 傳統文法에서는 說明, 疑問, 命令, 共同, 感嘆 등 5가지의 分類法이支配的이었고 感嘆을 除外하거나 約束, 許諾, 警戒를 추가하여 8가지를 세우는 일도 있었으나 語尾의 構造的 特性에 留意하면 直接話法에서는 7種類, 間接話法에서는 4種類로 보는 것이 合理的이다(高永根 1976a). 그런데 生成文法에서는 이들 語尾들이 基底部에서 生產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變形規則에 의해 導入되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사실 初期變形文法時代에는 기저규칙을 써서 生成하려고 努力했다(이홍배 1966, 송석중 1967). 그러나 履行素(performative)의 概念이 適用됨에 따라 變形規則에 의해 語尾가 선택되는 것으로 처리했다(이홍배 1971a).⁹⁸⁾ 모든 文體法은 기저에 놓여 있는 履行動詞에 따라 그 語尾가 決定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얻을 수 있는 문장의 종류는 “명령형, 청유형, 의문형, 서술형”이다. 이는 構造的 模型에 立脚한 文體法의 연구에서 間接話法을 대상으로 한

97) 송·임 두 사람의 견해의 이모저모에 대해서는 李基用(1979) 참조.

98) 이 글은 南基心外編(1975)에 國語로 번역되어 있으며 「한글」(147, 148)에 “이래소(Performative)와 국어변형문법”으로 발표되었다. 자세한 것은 그의 學位論文(1971)을 참조.

文體法의 종류와 일치한다(前述). 한편 南基心(1973)에서는 文體法語尾의 선택은 變形規則에 依存하는 것이 아니고 內面構造에 이미 주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文體法을 履行素의 관점에서 처리하는 問題는 補文化(後述)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意味의側面은 樣態(後述)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疑問文의 離接的 構成의 特性과 意味構造를 解明하는 努力들도 보인다(김영희 1975, 崔昌烈 1978).

(8) 關係化

關係化(relativization)⁹⁹⁾란 傳統文法의 冠形詞形을 말한다. 統辭論의 으로 볼 때 冠形詞形의 구성이 印歐語의 關係代名詞에 의해 이끌어지는 節과 비슷하기 때문에 生成文法의 關係化란 명칭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이다. 우리의 傳統文法에서는 主述構成이 完備된 것만 冠形節로 보아 包有文으로 다루고(例. 향기가 좋은 꽃이 많이 핀다), 그렇지 않은例들은 단순히 冠形詞形으로 처리하였다(例. 예쁜, 꽃이 많다). 그러나 冠形詞形도 生成文法의 觀點에서는 變形規則의 적용을 받아 生成된 것이다. 이러한 方式으로 冠形詞形을 처리한 文法家로 우선 周時經(1910)을 들 수 있다. 그는, “푸른 풀”에서 “푸르”는 “풀”的敘述語로 圖解上에 表示하고 “ㄴ”은 冠形詞 곧 “언기”가 된다고 말했다. 許雄(1958b)에서는 중세국어의 對象活用論을 展開하는 마당에서 冠形詞形을 敘述文이 凝縮된 것으로 본 일이 있다.

關係化現象이 生成文法理論의 適用을 받으면서 대두된 것은 深層構造의 어디에서 關係節을 生成할 것인가 하는 問題였다. 국옹도(1968)와 양동희(1975)는 관계절이 核心名詞의 뒤에 위치한다고 한다. 전자는 關係化를 adnominalization이라 부르고 관계절이 심층구조의 右分枝(right-branching)의 문장으로 生成된다고 했으며 후자는 여러가지 面에서 독특한 面을 보여 준다. 關係化를 다룬 모든 다른 文法家들이 關係化가

99) 關係化에 관한 종합적 검토는 이홍배(1975)와 討論內容(「語學研究」 11-2, 1975) 참조.

핵심명사와 관계절내의 同一名詞句削除規則(equi-NP deletion)에 의해 形成된다고 하는데 양동휘만은 代名詞削除(pro-deletion)규칙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정노(1974)와 이홍배(1976)는 核心名詞 앞에서 生成된다고 한다. 英語에서 나타나는 非限定的 關係節이 國語에 存在하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양인석(1972a)에는 이러한 用法을 否認하였고 오준규(1971)에서는 限定的 關係節과 함께 非限定的 관계절도 세우고 있다. 이홍배(1975)에서도 오준규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例가 제시되어 있다. 오준규의 또 하나의 특징은 限定的 關係節이 內包文에서 유도되는 것이 아니라, 接續文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는 점이다. 관계절의 核心名詞句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S. Kuno의 假說에 따라 主題表示의 “는/은”이 붙은 명사구라는 이홍배(1975)의 暗示는 깊이 고려할 가치가 있다.

(9) 補文化

補文化(compilmentation)¹⁰⁰⁾란 대체로 傳統文法의 非終結語尾 가운데서 對等性과 後屬性을 띤 語尾 이외의 형태와 다른바 引用格助詞 “고”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가운데서 冠形詞形은 關係化(前述)와 補文化의 두 가지 用法을 표시하기도 한다. 冠形詞形으로 이끌린 문장의 명사와 核心名詞(被限定名詞)가 같으면 關係化이고 그렇지 않으면 補文化이다. 다음 두 문장을 비교해 보면 兩者的 關係가 昭然해진다.

이과장이 뇌물을 받은 일이 잘 되었다. (그런데 그 일은 틀어졌다)
이과장은 뇌물을 받은 일이 없다.

傳統文法에서는 形態的 同一視에만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冠形詞形의 두 가지 사실을 변별해 낼 수 없었다. 生成文法의 도움으로 밝혀진 중요한 통사구조의 한側面이다.

李孟成(1968)은 다른바 名詞形語尾와 그 表現들을 다른 것인데 述部

100) 補文化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李廷政(1975)와 討論內容(「語學研究」11-2, 1975) 참조.

動詞에 따라 해당 名詞化表現이 決定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무리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國語의 명사화 현상을 가장 體系的으로 다룬 論文이다. Harris系의 變形理論을 背景으로 하고 있지마는 이러한 처리는 變形규칙에 의한 명사형어미의 도입이라고 할수 있다. 이홍배(1970a)은 補文化를 本格的으로 다룬 최초의 論文이다. 引用格助詞 “고”를 名詞句補文子로 취급한 것 등 問題가 없지 않으나 중요한 것은 補文子들을 變形規則에 의해 도입하고 있는 일이다. 이에 대해 양인석(1972a), 南基心(1973), 박병수(1972, 1974ab)에서는 補文子를 深層構造에 두었다. 이는 補文子에 意味가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특히 南基心은 이론바 引用格助詞 “고”에 이끌리는 間接引用文을 完形補文, 나머지 語尾로 이끌리는 補文을 不具補文으로 구분했다. 또 박병수는 補文을 名詞句補文과 動詞句補文으로 구분하되 전자와 관련하여 종전에 形態論의으로 다루어 오던 國語의 形式名詞(不完全名詞)의 통사특성을 깊이 있게 친착했다. 권재일(1977)도 補文子를 심층구조에 두는 것인데 國語의 語尾體系를 重視하여 補文구성을 크게 동사구내포화어미와 명사구내포화어미로 나누어 전자의 구성을 상당히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양동휘(1976b)는 이맹성, 이홍배 등의 變形論者의 假說에 左袒한 것인데 그의 論證는 生成意味論者들의 假說을 지지하고 補文子의 普遍理論에 기여할 것을 目的으로 한 것이다. 송진오(1978)은 內包文과 핵심명사간의 統辭·意味論의 特性을 밝힌 것이며 徐泰龍(1979)은 接續文과 內包文의 기저를 하나로 잡고 의미의 촛점과 休止에 따라 표면상으로 구별됨을 보인 것이다. 이밖에 김남길(1978)¹⁰¹⁾은 개별補文素에 대한 統辭·意味論의 연구다. 끝으로 名詞形 語尾 “기”와 “음”的 차이점을 추구한 張奭鎮(1966)과 任洪彬(1974b)의 업적은 名詞形語尾의 意味分析에 기여한 값진 업적이다.

101) 김남길의 學位論文(1974)는 아직 보지 못했다.

(10) 接續化

接續化란 傳統文法의 接續助詞와 對等性 및 從屬性을 띤 連結語尾에 의한 文章의 接續과정을 意味한다.

接續助詞에 의한 文章構成은 金奎植(1908?), 周時經(1910)에서 두 문장의 合成으로 形成되어 있다는 언급 이외는 文成分의 同位並置로 보아 單文으로 처리하였다. 특히 周時經은 “소와 말이 풀을 먹소”는 “소가 풀을 먹소”와 “말이 풀을 먹소”的 두 문장이 合成된 것으로 볼수 있음을 示唆한 것이다. 生成文法理論은 傳統文法의 格助詞의 分類에서 接續助詞내지 列舉格, 比較格, 同伴格 등의 意味를 가지는 것으로 설명해 온 助詞 “와/과”를 接續의 機能만을 表示하는 것으로 解釋하게 하였다. 金完鎮(1970)에서는 “과/와”가 접속의 기능을 表示하되 深層構造에서는 文接續과 句接續으로 구분됨을 주장하였고 接續의 기능 이외 同伴과 같은 格的 意味를 賦與할 필요가 있음도 提起되었다.¹⁰²⁾ 이에 대해 任洪彬(1972b)는 句接續의 기능을 否認하고 순수 NP並列(곧 句接續)의 기능만 가진 것으로 파악했다. 김영희(1974)에서는 구접속의 ‘와’는 기본구조에서 生成되고 문접속의 기능은 變形部門에서 도입되며 與同性은 統解論의 特性에서 파생됨을 밝히면서 接續助詞의 기능만 인정하였다. 이는前述한 任洪彬의 견해와 큰 차이가 없다.

語尾에 의한 文章接續은 生成意味論의 適用으로 活氣를 띤 分野다. 語尾에 依한 文章接續에 대해서도 周時經은 先見의 眼目이 있었다. 대부분의 傳統文法家는 對等的 連結語尾에 의해 同位的으로 並置된 문장은 單文으로 처리했는데 周時經(1910)에서는 두개의 문장이合一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저 사람이 노래하면서 가오”는 “저 사람이 노래하면서(저 사람이)가오”的 과정을 밟아 形成된 것으로 설명한 것이다. 生成文法에서 행하는 同一名詞句削除規則에 의한 文章의 凝縮과정과 彷彿하다. 連結語尾에 의해 文章의 接續化를 처음으로 다룬 것은 張奭鎮(1973)이다.

102) “과/와”的 기능에 대한 論議는 「語學研究」 6-2 (1970) 討論會記錄 참조.

종전의 文章文法의 해두리를 脫皮하여 이 야기文法(discourse grammar) (後述)의 를 안에서 文章接續素(sentence connective)에 의한 文章結合의一般的 설명을 피하고 “고(서)”의 意味·統辭上의 特성을 밝힌 것이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連結語尾에 의한 接續化현상의 統辭·意味面의 연구가 繢出한다. 양인석(1972b)와 李基東(1977b)는 連結語尾의 意味를 本格的으로 분석한 것이며 南基心(1978a)는 前提의 概念을 빌어 連結語尾의 話用相을 밝힌 것이다. 서정수(1973), 金興洙(1977)는 個別的인 連結語尾의 統辭 및 意味特性을 밝히려고 시도한 것이다. 특히 後者は 심층에서 對稱의 의미를 떠고 있었던 “고”가 非對稱의 계기적 의미로 實現되는 과정을 밝히려 努力한 것이다. 김영희(1978b)는 連結語尾의 插入的 用法을 다룬 것이며 양동희(1978a)는 國語의 接續化를 고찰함으로써 통사규칙이 意味내지 話用上의 制約를 받음을 보인 것이다. 곧 統辭規則의 非統辭的 機能(nonsyntactic function)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동재(1978)는 傳統文法에서 부사로도 取扱된 “그리고”가 生成的 觀點에 설 때 接續詞(conjunctive)임을 밝힌 것이다. 우리가 國語의 接續化現象을 다를 때留意해야 할 점은 個別語尾의 구조적 양상을 疏忽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傳統的 내지 構造的 연구결과 (高永根 1975)에 항상 주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連結語尾의 “고”나 “어”에 붙는 “서”에 대한 細心한 주의 (송석중 1976)는 統辭論과 意味論의 統合이 언어의 合理的 記述에 기여하는 바가 많음을 알려 주기도 한다.

(11) 敬語法

現代國語의 경어법에 대해서는 대체로 變形文法期 이후에 와서 主로 相對敬語法(공손법, 대우법)을 중심으로 크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홍배(1970a), 成耆徹(1970), 서정수(1972), 李翊燮(1974b)가 모두 이 경어법을 몇 等分으로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高永根(1974c)도 1930年代 이전의 文獻을 자료로 하여 같은 문제를 다루었다. Martin(1964)는 또 일본어와 비교하는 입장에서 현대국어의 경어법을 체계화하려고 하

였다.

李孟成(1973)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직접 앙케트를 내어 言語使用의 현실을 바탕으로 相對敬語法의 等分을 다루었으며 黃迪倫(1975)는 社會言語學的인 측면에서 이를 깊게 다루었다.¹⁰³⁾

(12) 時・相

時・相이라 함은 時制(tense)와 相(aspect)을 가리킨다. 相 가운데는 動詞 自體가 지니고 있는 相의 意味(aspectual meaning), 곧 動作類(Aktionsart)도 포함된다. 그러나 叙法(mood)이나 그것이 表示하는 機態(modality)에 관련된 것은 除外하기로 한다(後述).

時制는 모두 文法書에 꼽고루 取扱되어 있다.¹⁰⁴⁾ 相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時制와 相이 다루어져 있었다. 周時經(1910)에 나타나는 “되는 때”, “맞음” 또는 “맞아 있음”은 進行相과 完了相을 意味하는 것이며 최현배(1937)의 “끝남”, “나아감”도 같이 解釋된다. 다른 文法現象과 마찬가지로 時制가 本格的으로 연구된 것은 60年代에 들어와서다. 李鍾徹(1964, 1969)는 時間과 時制, 相, 叙法과의 關聯性를 파악하는 토대 위에서 國語의 時相體系의 確立을 試圖한 것인데 최현배의 “나아감”을 “이제이음”(現在繼續)으로 불러 相(Aktionsart)의 觀點에서 解釋을 시도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同時に 羅鎮錫(1964)는 時制를 「때(時)」와 「상(相)」과 「서법」의 3종의 下位範疇의 複合體라는 觀點에서 形容詞의 時制를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方法에 準據하여 그는 動詞와 指定詞의 時制를 꾸준히 연구하였는데 이는 나진석(1972)에 綜合되었다. 그의 時制體系는 根本的인 面에서부터 비판 받아야 할 것이나 최현배(1937) 이후로 이만큼 體系의으로 記述된 업적이 나타나지 않은 점과 高永根(1965)의 叙法體系確立에 큰 영향을 미친 점(後述) 등을 고려할 때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그의 時制論 가운데는 오늘날 生成文法의

103) 敬語法 연구사와 그 문제점의 정리는 황적륜(1976) 참조.

104) 國語時制의 研究史와 理論的 추세에 대해서는 南基心(1976) 참조.

관점에서 論議되고 있는 回想法 “더”的 用法, 樣態, 主觀性形容詞의 統辭構造 등이 주도하게 파악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이들 두 文法家의 연구는 構造文法의 바탕 위에서 전통문법의 연구결과를 受容・批判하는 觀點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불행히도 오늘날의 時・相研究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최근에 와서 國語의 時制研究가 盛況을 이룬 것은 生成文法, 특히 生成意味論의 덕택이다. 그동안 별로 주의를 끌지 못했던 國語의 時制問題가 갑자기 주목된 것은 南基心(1972)에서 國語에는 時制가 存在하지 않는다고 주장된 데도 原因이 있다. 종전에 과거완료 내지 대과거로 치리되던 “었었”을 斷續相이라하여 相(aspect)의 一種으로 처리한 것이 큰 특징이었다. 이에 대해 成書徹(1974)에서는 叙法과 有關한 形態로 간주되었다. 南基心(1975)은 非終結語尾에 나타나는 時制를 통해서 시제가 없음을 주장한 것이다. 南基心(1976)에서는 관형관계절의 相은 終結敘述形의 相을 深層構造로 하여 導出되는 것이 아님을 밝히기는 했는데 양동휘(1978b)도 冠形節의 時制를 意味論的 觀點에서 설명을 시도한 것이다. 서정수(1976)은 국어 시상 형태의 用法을 정밀하게 기술했다는 점에서, 김남길(1974a)는 “었었”的 意味論的 制約을 구명했다는 점에서 각각 앞으로의 國語시제 연구의 중요한 참고문헌이 된다. 노대규(1979)는 상황소(deixis)의 관점에서 시제 이론을 전개함으로써 國語時制 전반의 體系化를 시도한 것이다. 70年代에 활발했던 시제에 관한 論議를 바탕으로 하여 이룩된 업적이다.

時制와 함께 相의 體系化도 시도되었다. 이곳의 相이란 南基心의 相(前述)의 概念과는 다르다. 어미 “어”와 “고”가 存在詞 “있다”와 統合됨으로써 나타나는 完了와 進行의 의미를 가리킨다. 張奭鎮(1973a)은 앞서 든 두 가지의 相형태의 의미를 英語와 比較해 가며 生成意味論의 立場에서 意味構造를 記述한 것이고 양인석(1977a)은 相形態의 意味를 話用論的 觀點에서 究明한 것이다. 한편 金興洙(1978)에서는 連結語尾의

相的 特性이 論議되기도 했다. 서정수(1975), Abasolo(1974), 李基東(1977a), 油谷(1978)은 動詞의 相的 特性 끝 Aktionsart를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다룬 것인데 後者は 動詞의 意味를 無理없이 파악하고 있어 時相연구에 크게 참고될 것이다.

최근에 와서는 哲學과 論理學의 知識을 採用하여 時制연구를 위한 理論的 定礎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활발함을 볼 수 있다(김석득 1974, 李基用 1975, 1976).

(13) 叙法, 樣態

叙法(mode, mood)이란 傳統的으로 文章의 內容에 대한 話者의 心理的 態度가 一定한 形態變化에 의하여 統一的으로 表示되는 文法範疇를 가리킨다. 叙法에는 無意志的 叙法(containing no element of will)과 意志的 叙法(containing an element of will)이 있다. 前者は 叙實法(fact-mood)과 叙想法(thought-mood)으로 더 나뉘고 後者は 叙意法(will-mood)이라고 말한다(高永根 1965, 1976a). 樣態(modality)란 원래 言語哲學者들이 쓰던 말인데 Jespersen類의 傳統文法의 時制, 文體法, 叙法에서 論議되던 想念(thinking)과 意志(volition)의 側面과 같은 일종의 言表內的 効力(illocutionary force)에 대해 붙여진 이름이다.¹⁰⁵⁾

國語文法에서 叙法이 하나의 文法範疇로 認識된 것은 꽤 오래되었다. Underwood(1890)에 벌써 文體法을 叙法의 觀點에서 다루었고 朴勝彬(1935), 洪起文(1947)에서 “式, 語式”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정도 認識되어 있으며 나진식(1972)에서도 “직설, 서상”으로 베풀어져 있다. 그러나 Jesperson의 叙法體系에 따라 정밀한 形態素分析의 바탕위에서 國語의 叙法體系의 確立이 試圖된 것은 高永根(1965, 1966, 1971, 1976a)이다. 그는 文體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直接引用과 間接引用으로 구분하였다. 前者에는 直說法・回想法・推測法・原則法・確認法을 後者에는 直說法・

105) 叙法과 樣態의 相關關係에 대하여는 張寅鑑(1973c), 李廷玟(1973b 및 번역본) 참조.

回想法·推測法을 각각 설정하였다. 生成文法, 특히 生成意味論의 도입은 叙法의 태두리에서 처리되던 回想法을 새로운 眼目에서 考察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張夷鎮(1973b)는 話構(D-frame)로 表示되는 기저의미구조에 ‘回想하다(RECALL)’란 動詞를 설정하여 表面構造로 實現된다고 보았다. 손호민(1975)도 “더”的 개념구조가 表面形 “더”로 實現된다는 점에서 장식진과 비슷하다고 하겠으나 “더” 자체만 대상으로 여러가지 제약관계를 다루었다는 특징이 보인다. 성낙수(1975)는 終結語尾와 非終結語尾에 나타나는 “더”와 先語未語尾 “었, 겠”과의 統合關係를 고려한 것인데 人稱과 主語의 有無情의 特徵을 動詞의 종류와 관련시켜 자질표시법에 의해 明示하고 있다. 이러한 관찰은 이미 나진석(1964)과 高永根(1965)에서도 시도되었다. 끝으로 언급한 것은 최현배(1937) 아래 回想의 意味가 부여된 “더”를 보고법(reportive)이라 부른 서정수(1977)의 의견이 있다. 그는 高永根(1965)과 같이 叙法의 한 가지란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時制의 樣態的 意味는 未來時制 “겠”이나 推測法 “리”的 用法을 究明하는 타당에서도 論議되었으나(高永根 1965), 본격적인 것은 申昌淳(1972)에서 비롯한다. “겠”的 中心的 意味를 話者の 主觀的 推斷으로 본 것이다. 이는 構造·機能的 文法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후로는 生成意味論의 立場에서 論議된다. 國語의 樣相構造를 生成意味論의 立場에서 다룬 것은 李廷玟(1973b)이다. 그는 論理構造와 談話의 원리를 기초로 종전의 시제, 連結語尾, 叙法, 文體法의 범주에서 다루어 쳐 오던 “겠, (으)려고 한다. (으)ㄹ까, (으)마”의 의미구조를 여러모로 파헤쳤다. 이 가운데서 많은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未來시제와 관련된 “겠”的 樣態的 特성이 “(으)ㄹ 것이”와의 비교에 의해 과악하는 일이었다. 成書徹(1976)에서 시작된 두 가지의 意味 究明은 몇 차례의 論戰을 겪고 있지만(서정수 1977b, 1978a, 成書徹 1979), 認識論理에 기초할 때 두 가지는 推定樣相素로서 “겠”이 ‘강한 짐작’, “(으)ㄹ 것이”가

‘약한 짐작’이라는 정도의 妥合(李基用 1978)에 만 머물러 있다. 文體法에서의 樣相은 張奭鎮(1973b)과 高永根(1976a)에서 本格的으로 追求되고 있다. 양인석(1976)의 提案文과 命令文에 대한 接近方式도 재미있는 점이 많이 浮刻되어 있다. 양동휘(1977)는 語尾의 合成形¹⁰⁶⁾에 나타나는 樣相의 의미를 話用論의 規則와 관련시킨 것인데 이를바 ‘pragmantax’의 理論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최근에는 形態部에서 脫皮하여 單語들의 통합에 의해 나타나는 양상의 解明으로 視野를 넓히고 있다(이익환 1978a).

(14) 助動詞

助動詞란 傳統文法에서 依存(補助)形容詞와 함께 補助用言으로 처리되던 것이다. 傳統文法에서는 그것이 지닌 統辭上의 制約과 意味上의 特殊性 때문에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다. 最近 話用論的 模型에 立脚한 文法敘述方式이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모로 國語의 助動詞에 대한 正體를 과악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이 方面의 先驅的 업적은 손호민(1973)이다. 그는 본동사와 조동사 사이에는 강한 意味·統辭的 유대성이 있음을 밝히고 조동사구성의 深層에서의 표시문제를 논의했다. 그의 1976년의 글은 動詞의 意味論的 영역(semantic scope)과 配置순서 간의 相關關係를 밝힌 것인데 助動詞가 끝에 오는 사실을 의미론적 영역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다. Abasolo(1978)는 특히 조동사에 의한 複合動詞群의 意味特性을 밝히려 한 것이고 양인석(1978)은 조동사 “가다, 오다”의 의미를 話用論的側面에서 다룬 것이다. 화자의 태도와 관련해서 조동사의 意味를 분석한 것은 李基東(1976c, 1978)이다. 최근 있었던 한국언어학회의 「조동사」에 관한 공동연구회는 傳統文法의 助動詞의 개념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이 方面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촉구되었다.¹⁰⁷⁾

(15) 副 詞

106) 現代國語의 終結語尾와 非終結語尾의 合成形에 대하여는 高永根(1974b, 1975) 참조.

107) 공동연구회의 보고에 대해서는 서정수(1978) 참조.

傳統文法에서 副詞는 被修飾語와의 關係내지 意味上의 分類를 언급하는 정도였다(최현배 1937). 生成文法의 理論은 副詞의 統辭論의 特性의 重要性을 認識시켜 주었고 그 쓰임이 話用上의 問題와도 깊은 관연이 있음이 究明되고 있다.

서정수(1969, 1971)¹⁰⁸⁾는 國語의 副詞를 統辭論의 特性에 따라 文章副詞와 成分副詞로 나누어 본 것이다. 부사의 統辭論의 制約은 朴秉洙(1976)에서 상당히 깊이 있게 論議된다. 양태부사의 文章內의 위치가 상당히 제약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부사를 심층에 둘으로써 語彙論者の立場을 支持한 것이다. 김영희(1976b)는 形容詞의 副詞化構文의 기저구조를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부사의 분류를 시도한 것이다. 生成論者의 立場에서 “이”와 “게”에 의한 副詞를 다룬 것이다. 한편 “이”, “게” 부사形成素의 의미특성이 규명되기도 했다(任洪彬 1976). 金京勳(1977)은 각종 부사의 文章修飾機能을 다룬 것으로 傳統文法의 부사에 관한 成果를 토대로 했다. “도저히, 조금도”와 같은 極語(polarity item)의 統辭的 特性을 話用上의 假定과 관련시키려는 시도도 있고(이환묵 1977)個別부사의 意味를 話用論의 立場에서 고찰하려는 努力(양인석 1977b)도 눈에 띈다.

(16) 이야기

이야기란 談話文法(discourse grammar)의 話(discourse)내지 텍스트文法(Textgrammatik)의 텍스트(Text)에 해당하는 말로서 文章보다 높은 文法의 單位를 말한다. 傳統文法에서도 이야기의 概念이 도입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敬語法을 論議할 때 화자와 청자를 설정한 것이라든지 特殊助詞나 感嘆助詞의 用法을 설명할 때 文章을 뛰어넘거나 화자의 태도와 관련시킨 것이 그러한例다. 그러나 文法記述에서 ‘이야기’개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生成文法, 특히 生成意味論의 틀 속에 統合시켜 國語文法을 文章위주의 文法에서 脫皮하여 談話 곧 이야기 위주의

108) 두 論文은 다시 정리되어 南基心外編(1975)에 같은 題目으로 실렸다.

文法記述을 시도한 것은 張夷鎮(1972)다.¹⁰⁹⁾ 話示素(deixis)를 도입하여 이야기文法의 理論的 定礎를 試圖한 것이다. 그가 마련한 話構(discourse-frame)에 따라 그는 國語敬語法과 文體法과 樣相구조를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했으며 焦點(information focus)의 問題를 浮刻시켰다(張夷鎮 1973b). 계속해서 장석진은 회화에서 자주 省略되는 ‘나’와 ‘너’의 話用相(1974) 및 疑問文을 中心으로 한 問答의 話用相(1975)을 다루었고 國語의 對話를 分析함으로써 정보와 照應의 問題에도 접근했다(1976).

이상의 問題 이외 規範文法이나 變形文法의 初期段階에는 基本文型의 設定이 크게 論議되었다(李孟成 1968, 黃찬호外 1968, 高永根 1969, 李翊燮 1970).

끝으로 언급할 것은 A. Martinet에 의해樹立된 機能統辭論(functional syntax)의 方法에 의한 國語統辭論의 업적이다. 朴亨達(1973)은 文法의 限定要素와 조동사를 중심으로 機能統辭論의 理論을 展開한 것이다. 그는 이어 國語補助動詞를 기능적 관점에서 구명하기도 했다(1976, 1977, 1978). 申昌淳(1976, 1978, 1979)도 機能統辭論에 立脚한 國語統辭論의 理論과 方法을 전개한 것이다.

5. 結論

이상과 같이 現代文法研究의 史的動向을 검토하였다. 國語文法은 傳統文法, 構造文法, 機能·生成文法의 模型에 따라 形態論과 統辭論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굴되고 해석이 시도되어 왔다. 최근의 主流의 인 경향은 意味論과 話用論에 바탕을 둔 統辭論研究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方面의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國語文法研究에 영향을 크게 미친 언어이론은 構造·記述文法과 N. Chomsky에 의해 創導되고 發展된 變形生成理論이다. 이와 함께 生成意味論에 立脚한 업적들도 前者에 뒤지지 않는다. 따라서 國語文法研究의 경우에도 語

109) 話用論에 의한 國語記述의 이론과 문제점은 張夷鎮(1976) 참조.

彙論者와 變形論者의 對決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도 우리는 國語文法現象을, 최근 그 적용이 시도되고 있는 몬테규文法¹¹⁰⁾과 성충문법이론¹¹¹⁾은 물론, M. Bierwisch에 의해 啓導·發展된 標準生成形態論¹¹²⁾, I.A. Mel'čuk의 轉移文法¹¹³⁾, H. Lieb의 統合言語理論¹¹⁴⁾, L. Weisgerber의 內容中心文法¹¹⁵⁾, 프라고學派의 機能生成文法¹¹⁶⁾, R. Harweg의 텍스트(Text)文法¹¹⁷⁾ L. Tésnière에 創導되고 G. Helbig와 H. Heringer에 발전된 依存文法¹¹⁸⁾등 여러 文法理論에 照明해 볼 필요가 있다. 한 理論에 依支해서는 鮮明히 浮刻되지 않던 문제가 다른 이론의 관점에 서면 解釋이 달라지고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外來文法理論을 적절히 비판·소화하여 國語文法 구조에 接木시킬 때 國語文法 구조의 本質이 解明되고 동시에 國語에 바탕을 둔 言語理論의 開發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에 앞서 우리가 잊어서 안될 것은 우리 先人們의 연구업적과 文法理論을 항상 支柱로 삼고 있어야 하며 그것을 계승·발전시키겠다는 태도를 지니는 일이다.

B. 文法史의 研究

近代國語 이전의 文法에 대한 研究는, 現代國語의 文法研究보다 약半世紀 늦은 1920年代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近代 이전 時期의 國語에 대한 知識의 不足에 말미암기도 하지만, 보다 근원적으로 語文整理와 같은 開化期의 言語政策과 무관한 데 그 原因이 있다. 그리하여 文法史研究는 現代文法의 研究와 대조적인 性格을 갖게 된다. 現代文法은 單

110) 몬테규文法理論에 대하여 李基用(1974) 참조.

111) 성충문법이론과 국어분석에 대하여는 박기덕(1977) 참조.

112) 이론바 標準生成形態論은 北歐(스웨덴)와 中部유우럽(東獨, 헝가리)에서 성황을 이루고 있다. 자세한 것은 Kiefer(1975) 참조.

113) 자세한 것은 Mel'čuk(1976) 참조.

114) 高永根(편)(1980) 참조.

115) 허발(1979) 참조.

116) Prager Antorengruppe(1973) 참조.

117) Dressler(1973) 참조.

118) 신수송(1976), 徐禎哲(1975) 참조.

行本인 文法書로써 좋은 나쁘든 文法體系를 제시한 데 대하여, 文法史研究는 古典詩歌의 註釋書에서 단편적으로 논의되었다. 또 한편으로 現代文法이 規範을 중시한 데 대하여, 文法史研究는 文法事實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文法史研究의 性格은 오늘 날까지 계속되는 強點이라 할 것이다. 다만 단편적인研究가 지양되고 종합적인研究로 體系를 제시하는 作業이 있어야 할 것이나, 1960年代부터 그 傾向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해서, 文法史研究는 窪은 研究의 歷史에 비하여 착실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하겠다. 이제 文法史에 대한 그러한 研究를 論著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文法史에 대한 최초의 研究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鄕歌와 龍飛御天歌의 註釋書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모두 日本學者에 의한 前間恭作(1924)와 小倉進平(1929)가 그것이다. 前間恭作(1924)는 前間恭作(1909)의 體系에 따라서 龍飛御天歌의 古語와 文法을 설명한 것으로서, 先驅的인 研究일 뿐 아니라 當時로는 卓見이 보인다. 小倉進平(1929)는 鄉歌의 解讀과 吏讀의 解釋에 中世國語의 文法을 이용한 것인데, 先驅的인 研究라는 意義가 있을 뿐이다. 鄉歌의 解讀은 梁柱東(1942)에 의하여 전혀 새로이 행하여지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中世國語로써 鄉歌를 해독하였는데, 그 解讀方法은 別問題로 하고 中世國語의 文法에 대한 깊은理解가 나타나 있다.

解放과 함께 古典詩歌의 解讀을 위한 방면으로서의 文法史研究는 梁柱東(1946)과 許雄(1955)로 一段落을 짓는다. 前者は 中世國語로써 高麗歌謡를 해독한 것으로, 梁柱東(1943)의 姉妹篇이라 할 著作이다. 後者は 龍飛御天歌에 나타나는 語彙와 文法事實을 설명한 것으로, 國語學의 側面에서의 註釋書로는 하나의 典範이라 하겠다. 특히 여기 나타나는 助詞와 活用語尾에 대한 形態音素論의 記述은 뛰어난 것이다. 이에 잊달아서 註釋書가 없는 것은 아니나, 文法史研究는 새로운局面에 접어들어 主題別로 本格의 論文이 나타나게 된다.

論文의 主題는 中世國語의 文法事實 중에서 現代國語에는 이미 없어 졌거나 用法이 变천된 것이 선택된다. 前者の 例로는 體言의 曲用에 나타나는 乎, 謙讓法接尾辭 ‘-舍-’, 意圖法接尾辭 ‘-오/우-’가 있고 後者の 例로는 時相接尾辭, 疑問法語尾, 일부의 格助詞가 있다. 각각의 主題에 대하여 中世國語의 形態와 用法을 밝히고, 그 變遷過程을 설명하는 方法으로 研究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謙讓法과 意圖法에 대하여는 특히 활발한 論難이 있었다. 이제 主題로 나누어 구체적인 研究를 보기로 한다.

體言의 曲用에 나타나는 乎은 이미 梁柱東(1942) 등에서 乎助詞로 언급된 것인데, 金敏洙(1952)와 南廣祐(1957)에서 대립되는 解釋이 제기되었다. 즉 金敏洙(1952)는 體言의 末音으로 다루었는데 대하여 南廣祐(1957)은 曲用時에 개입되는 音韻으로 다루면서 ‘나모(木), 구무(穴)’ 등의 曲用에 나타나는 그도 같이 처리하였다. 그러나 李基文(1962)나 金亨奎(1963) 등에서도 지적되었지만, 記述의觀點에서든 歷史의觀點에서든 乎은 體言의 末音으로 해석함이 온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이론바 乎助詞의 문제로 中世國語의 形態音素論에 대한 論議가 일어나게 되었다. 曲用과 活用에 나타나는, 母音調和에 의한 形態交替는 音韻論研究에서 진작부터 언급되고, 또 許雄(1955)에서 정밀하게 기술되었지만, 體言과 活用語幹의 形態交替에 대하여서는 별반 論議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론바 乎助詞는 體言의 形態交替와 직접 연관되는 테다가, 또 記述言語學의 方法을 수용하면서 形態音素論에 관한 研究가 행하여졌다. 活用語幹에 관한 것은 安秉禧(1959), 體言의 특수한交替는 李基文(1962)에서 다루어진 것이다.

中世國語의 謙讓法接尾辭 ‘-舍-’은 이미 小倉進平(1933)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진 일이 있으나, 形態의 紹介에 그쳤고 그것조차 불완전한 것이었다. 그런데 金亨奎(1947)에서 形態의 交替를 정확히 기술하고 그 用法을 설명함으로써 비로소 이 接尾辭가 부각되었다. 즉 金亨奎(1947)

은 茅遁法接尾辭 ‘-이-’ 와 마찬가지로 聽者에 대한 話者の 謙讓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 가 終止法에 나타나고 ‘-습-’ 이 接續法에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終止法에도 ‘-습-’ 이 나타날 뿐 아니라, ‘호라’體를 사용하는 聽者에 대한 文章에서도 ‘-습-’ 이 나타나는 점에서 새로운 解釋을 내린 論文이 許雄(1954)다. 여기에서 ‘-습-’ 은 終止法과 接續法에 두루 나타나며, 文章의 客體에 대한 話者の 尊待意向을 표시한다고 하여 客體尊待法에 속하는 接尾辭라 블렀다. 그리하여 中世國語의 敬語法(尊待法이라 하였다)은 文章의 主體를 尊待하는 主體尊待法과 聽者(相對)를 尊待하는 相對尊待法과 이 客體尊待法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이 客體尊待法은 學界의 상당한 關心을 끌게 되었다. 그러나 話者の 客體에 대한 尊待意向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用例가 있다. 客體에 대한 尊待意向이 있더라도, 客體가 主體보다 下位者인 경우에는 ‘-습-’ 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安秉禧(1961)은 ‘-습-’ 이 主體보다는 물론이고 話者보다도 존귀한 人物에 관계되는 卑者(곧 主體)의 動作表現에 나타난다고 하여 主體謙讓法接尾辭라 부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時期에 許雄(1961)은 許雄(1954)를 보완하여 그 客體尊待法을 거듭 주장하였다. 李崇寧(1962)와 (1964c)는 客體尊待法을 반박하고 下位者의 動作表現에 사용된다고 하여 謙讓法이라고 주장하였는데, 上位者의 動作表現에 사용되는 ‘-시-’ 를 尊敬法이라 하여 대립되는 敬語法의 下位範疇로 파악한 것이 특이하다. 그러나 이러한 異見들에 대하여 許雄(1962)와 (1963b)가 客體尊待法을 변호하였다. 이밖에 종전의 主張을 계속 변호한 金亨奎(1962a)와 (1975), 無徵表의 接尾辭 ‘-α-’ 를 설정하여 敬語法을 體系化하여 謙讓法을 새로이 설명하려는 李承旭(1973b) 등이 있다. 그러나 이 謙讓法接尾辭에 대한 異見도 焦點을 어디에 두느냐에 差異가 있으나 上位者에 대한 下位者의 動作表現에 사용된다는 점은 공통되고, 또 그러한 점에서 謙讓法이 中世國語의 특이한 文法範疇라는 데는 異論이 없

다. 그러나 이 接尾辭의 用法과 變遷, 尊敬法과 茲遜法과의 關聯性에 대한 보다 정밀한 研究가 요망된다.

謙讓法에 잊달아 文法史 研究에서 문제된 것은 意圖法接尾辭 '-오/우-'의 用法이었다. 일찍이 雅語形(前間恭作 1924) 또는 插入母音(許雄 1955)으로 일컬어진 이 接尾辭를 하나의 形態素로 인식하여 그 用法을 구명한 최초의 研究인 許雄(1958)과 大江孝男(1958)이 國內와 國外에서 거의 동시에 나타나게 됨으로써 많은 論難을 불러 일으키게 된 것이다. 이 두 論文은, 반드시 연결되는 動名詞등의 '-오/우-'를 論外로 하고, 連結與否로써 대립되는 活用形에서는 하나의 形態素로 다룬 점은 같으나, 用法에 대하여는 差異를 보였다. 許雄(1958)은 終止法과 接續法에서는 1人稱主語와 호응하는 1人稱 活用語尾, 冠形容에서는 被修飾語가 의미상으로 冠形語의 目的語일 경우에 나타난다고 하여 目的語活用語尾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大江孝男(1958)은 心理的・主觀的 行動을 표시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反論이 곧 제기되었는데, 李崇寧(1959)가 그것이다. 여기에서는 위의 '-오/우-'와 動名詞는 물론이고 使動의 '-오/우-'까지 하나의 接尾辭로서 主語의 意圖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스스로의 學說을 응호한 許雄(1959)의 反論이 있은 뒤에, 李崇寧(1960b)가 발표되어 이 接尾辭의 用法에 대한 認識이 심화되었다. 즉 動名詞와 使動의 接尾辭는 제외하고, 終止法・接續法・冠形容의 '-오/우-'를 話者의 主觀的 陳述의 叙法接尾辭라 하고, 그 叙法을 意圖法(volitive form)이라 명명하였다. 특히 終止法과 接續法에서 2·3人稱에 호응하는 用例를 들고서 1人稱語尾는 부인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許雄(1963a)는 1人稱活用語尾란 주장을 약간 수정하여 話者 자신이 자신에 관한 일을 표현할 때 쓰이는 人稱語尾라고 규정하였다. 이후에도 李崇寧(1964a), 許雄(1964b), 李崇寧(1964b)의 論戰이 있으나, 새로운 進展은 없었다.

이러한 論戰이 있는 뒤에도 朴亨達(1968), 李男德(1970), 李仁模(1971)의 研究가 있다. 대체로 李崇寧(1960b)의 主張에 가까운 것인데, 朴亨達(1968)은 冠形形의 '-오/우-'를 強化形, 李男德(1970)은 情動法이란 叙法을 세워 安秉福(1967)에서 感想法라 한 '흐낫다, 흐낫다' 등의 '-낫-'까지도 '-오/우-'의 異形態라 하는 등 약간의 差異는 있다. 또 金亨圭(1961)은 形態素가 아닌 단순한 插入母音이란 主張을 하고, 이에 대하여 大江孝男(1968)의 反論이 있다. 그러나 대체로 '-오/우-'에 대하여는 意圖法과 人稱・對象活用이란 學說이 아직도 대립되어 있는데, 이 接尾辭에 관한 論議에서 中世國語 叙法이 문제된 것은 文法史研究의 큰 수학이다 할 것이다.

時相에 관하여는 初期의 詩歌註釋書에서부터 現代國語의 '-았/었-'이 副動詞語尾 '-아/어-'와 '잇-'(有)의 統合形이 文法化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中世國語의 時相體系에 관한 研究는 河野六郎(1946, 1948, 1950, 1951)의 일련의 論文으로써 행하여지게 되었다. 여기에서 時相體系는 動詞概念을 不定으로 기술하는 基本語幹 '-ㄴ-', 現前의 場面과 관련하여 動作을 규정하는 現在語幹 '-는-', 可能한 것으로서의 모습에서 事態를 기술하는 第1未來語幹 '-ㄹ(느)', '-리-', 話者の 體驗場面에 관련시켜 動作을 서술하는 未完了語幹 '-더-', 動作結果를 강조하는 強勢語幹 '-거-', 그리고 動作結果의 存在를 나타내는 完了語幹 '-았/어 잇-', 動作에의 移行을 나타내는 第2未來語幹 '-게 잇-'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第2未來語幹이 中世國語에서 나타나지 않으며 '-거-'의 用法이 強勢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점, 그리고 中世國語의 '-이/어-'(예컨대, '흐거나'에 대한 '흐야다' 등)가 언급되지 않은 점 등으로 이 體系는 재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中世國語의 時相體系를 叙法의인 것으로 보려한 것은 음미할 만하다.

時相體系에 대한 새로운 研究는 李承旭(1958, 1967, 1970) 등에서 행하여졌는데, 이들을 종합하여 李承旭(1973)에 '-아/어-'까지 포함한

中世國語 時相接尾辭의 構造的인 特性이 기술되어 時相體系가 수립되어 있다. 여기 특기할 만한 주장은 中世國語에서 過去를 표시하는 時相接尾辭는 3系列이 있는데, ‘-더-’는 未完相, ‘-거-’는 假定의 完了相, ‘-아/어-’는 完了相을 나타낸다고 한 점이다. 이밖에도 나진석(1972)와 이광호(1979)도 時相接尾辭의 變遷과 構造的인 特性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現代國語의 時制問題와 함께 中世國語의 時相과 그 變遷은 앞으로 더욱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中世國語의 疑問法은 形態 ‘-ㄴ다’ 등으로 現代國語와의 差異가 알려져 있었으나, 그 用法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李承旭(1963)이었다. 形態 ‘-ㄴ다’는 疑問文의 主語가 2人稱인 경우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 것을 直接疑問이라 하여 다른 疑問法과 대립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安秉禧(1965b)는 疑問詞에 수반하는 說明疑問(X-question)과 可否를 요구하는 判定疑問(yes/no question)의 區別이 形態 ‘-고, -가’의 對立으로서 표시된다고 하여, 위의 直接疑問을 포괄하여 疑問法의 體系를 수립한 것이다. 志部昭平(1972), 李承旭(1977)도 이 體系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變遷을 설명하려 한 것이다. 이 疑問法과 함께 中世國語의 恭遜法의 體系가 安秉禧(1965c)에서 논의되었다. 2人稱 代名詞와의 관련하여 ‘ホラ體, ホヤシ體, ホショク體’의 三分法이 드러나게 되었다.

曲用의 일부 助詞 중 가장 일찍 다루어진 것은 主格助詞 ‘가’이다. 中世國語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 助詞가 當時의 口語에는 있었다고 하는 金亨奎(1954)가 발표됨으로써 문제된 것이다. 助詞 ‘가’는 中世國語에는 口語에서도 없다가 捷解新語부터 나타난다고 하면서 그 發達過程을 구명하려는 南廣祐(1957b), 李崇寧(1958) 등과 中世國語 口語에서의 存在를 계속 주장한 金亨奎(1962b)가 발표되었으며, 洪允杓(1975)에서는 近代國語에 이루어진 主格助詞 ‘가’의 發生을 構造的으로 설명하려고 하였다. 다음으로 屬格助詞 ‘ㅅ’을 정립하여 安秉禧(1968)는 一般有情

體言에는 ‘의/의’, 尊稱有情體言과 無情體言에는 ‘人’이 연결되어 屬格을 표시한다고 하고, 與格助詞 ‘의/의 그에’와 ‘人그에’의 對立도 이 屬格의 用法으로 설명하였다. 屬格形에는 이것만으로는 해명되지 않은 점이 있어서, 徐禎穆(1978)은 더욱 정밀한 解釋을 시도하였다. 助詞에 대한 거별적인 研究와 동시에 전반적인 研究도 일어났다. 洪允杓(1969)는 格語尾, 後置詞, 添辭의 概念을 구별하고, 中世國語助詞의 相互統合關係를 구조적으로 밝히려고 하였으며, 金昇坤(1978)은 15世紀國語의 助詞體系와 變遷을 다루었다.

文法史에 관한 主題別의 研究가 축적되면서 위에서 보아온 業績들을 종합하여 中世國語의 文法 내지는 文法史를 體系化하여 제시한 研究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最初의 研究는 李崇寧(1961)이다. 이것은 李崇寧(1949)와 李崇寧(1954)를 基盤으로當時까지의 成果를 받아들여서 中世國語의 文法體系를 설명한 것이다. 體制는 音韻·造語·形態·統辭의 4部로 구성되어 있다. 李基文(1961)은 李基文(1972)로 體系가 정비되었는데, 古代國語로부터 近代國語에 이르는 文法史가 포함되어 있다. 時代마다 造語·曲用·活用·後置詞와 添詞·統辭의 體制로 文法事實이 설명되어 있다. 현재로는 가장 완전하고 要領을 얻은 文法史의 叙述이 담겨져 있다 할 것이다. 劉昌惇(1964)는 傳統文法의 體系에 따라서 中世國語의 文法體系와 그 이후의 變遷을 서술하였는데 形態論이 중심이 되어 있다. 安秉禧(1967)은 中世國語의 文法體系와 그 前後의 變遷을 간단히 서술한 文法史다. 形態論과 統辭論으로 나누고, 形態論은 다시 屈折論과 造語論으로 나누어져 있다. 許雄(1969)는 간략하게 中世國語의 文法體系 전반을 다루었으나, 許雄(1975)는 풍부한 資料와 정비된 體系로 中世國語, 정확히는 15世紀國語의 形態論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體制는 造語論·準屈曲論·屈曲論, 그밖의 品詞들로 되어 있다. 여기 屈曲은 屈折(inflexion)로서 準屈曲論은 曲用, 曲用論은 活用을 다루었다. 體制는

어떻든 이 책으로써 中世國語의 形態論은 일단 종합되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행하여진 文法史의 研究를 개관하여 봤는데, 이들 研究는 中世國語를 중심으로 하여 그 이후의 變遷을 다루는 것이 보통이다. 古代國語에 관한 言及이 없지는 않으나 극히 斷片의이라 하겠다. 鄉歌를 解讀한 小倉進平(1929)와 梁桂東(1942)에 있어서도 中世國語의 文法에 鄉歌에 나타난 文法事實을 附會하려는 傾向까지 있었다. 그런데 近者에 이르러 吏讀에 관한 關心이 일어나고, 특히 1975年에 발견된 舊譯仁王經의 訓讀資料에 의하여 借字體系에 관한 研究가 活氣를 띠게 되어 古代國語의 文法事實에 대한 본격적인 研究가 행하여지게 되었다. 南豐鉉・沈在箕(1976), 南豐鉉(1976, 1977)은 舊譯仁王經과 吏讀資料 등을 이용하여 古代國語의 否定法, 處格助詞와 그 變遷을 밝히려고 한 것이다. 洪淳鐸(1974), 장지영・장세경(1976), 安秉禧(1977b)는 吏讀, 安秉禧(1977a)는 口訣로써 古代國語와 中世國語의 形態論을 다루게 되었다. 鄉歌에 대한 解讀은 鄭然粲(1972)등에서 새로이 시도되기도 하였으나, 본격적이며 전반적인 解讀이 金完鎮(1979a, 1979b, 1979c)로 행하여지게 되고, 여기에서 古代國語의 文法事實이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作業은 계속될 것이 기대되므로 온전한 文法史 記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상으로 文法史 研究에 관한 說明을 마치기로 한다. 이를 요약한다면, 文法史 研究는 1920年代부터 古典詩歌의 註譯書에서 단편적으로 시작되었으나 解放 이후에 본격화하여 이제 中世國語는 물론이고 古代國語와 近代國語의 文法事實이 거의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들을 종합하면 國語의 文法史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다. 그러나 研究方法은 傳統的인 史的言語學과 記述言語學의 領域에 머무르고 있다. 變形生文法의 方法論에 의한 研究도 일어나서 文法史 記述이 深化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統辭論에 관하여 그 要請은 절실하다.

國語文法研究論著目錄*

*傳統文法書는 몇몇 중요한 업적만 제시하였다. 자세한 것은 金敏洙(1960), 國語文法論研究; 學術院(1966), 學術總覽1; 民族文化研究所(高麗大學校)(1972), 韓國論著解題 I (言語文學篇); 金敏洙·河東鎬·高永根(1977, 1979, 未刊)를 참조할 것.

- 高永根(1965), 現代國語의 叙法體系에 對한 研究, 國語研究 15.
- (1966), 現代國語의 直說法에 對하여, 國어국문학 31.
- (1967), 現代國語의 先語末語尾에 對한 構造的 研究—特히 排列의 차례를 中心으로—, 語學研究 3-1.
- (1968), 主格助詞의 한 種類에 對하여, 이승녕박사송수기념논총(南基心外共編 1975 所收).
- (1969), 國語의 文型研究試論, 言語教育 1-2.
- (1970), 現代國語의 準自立形式에 對한 研究—形式名詞를 中心으로—, 語學研究 6-1.
- (1971), 國語叙實法에 나타나는 「話式」의 範疇에 對하여, 金亨奎博士頌記念論叢.
- (1974a), 國語接尾辭의 研究, 百合出版社.
- (1974b), 現代國語의 終結語尾에 對한 構造的 研究, 語學研究 10-1.
- (1974c), 現代國語의 尊卑法에 對한 研究, 語學研究 10-2.
- (1975), 現代國語의 語末語尾에 對한 구조적 연구—非終結語尾의 것을 중심으로—, 應用言語學 7-1.
- (1976a), 現代國語의 文體法에 對한 研究, 語學研究 12-1.
- (1976b), 特殊助詞의 意味分析, 문법연구 3.

——(1978), 形態素의 分析限界, *언어학* 3.

국응도(Eung-do Cook)(1968), *Embedding Transformations in Korean Syntax*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Alberta).

권재일(1977), *현대국어의 동사구 내포문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金京勳(1977), 國語의 副詞修飾研究—修飾의 體系的 記述을 위하여—, *國語研究* 37.

金桂坤(1968), *현대국어의 조어법(word-formation) 연구*—앞가지에 依한 파생법—, (仁川教育大學論文集 3).

——(1969), *현대국어의 조어법 연구*(뒷가지에 의한 파생법), 仁川教育大學論文集 4.

金圭哲(1980), 漢字語 單語 形成에 관한 研究—固有語와 比較하여—, *國語研究* 41.

김남길(Nam Kil Kim)(1974a), *Double Past in Korean, Foundations of Language* 12.

——(1974b), *Studies in the Syntax of Korean Complementatio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1978), *Tolok Sentential Complements in Korean*, In: Chin W. Kim (ed.) (1978).

金東植(1980), 現代國語否定法의 研究, *國語研究* 42.

金敏洙(1952), “ㅎ”助詞 研究, *국어국문학* 1.

——(1955), “理論編”, *大學國語*, 永和出版部.

——(1960), *國語文法論研究*, 通文館.

——(1970), 國語의 格에 對하여, *국어국문학* 49, 50합병호.

——(1971), *國語文法論*, 一潮閣.

김민수·남광우·유창돈·허웅(1960), *새고교문법*, 동아출판사.

金錫得(1971), *국어구조론—한국어의 형태통사론 구조연구*—, 연세대학

교 출판부.

- (1974), 한국어의 시상, 한글연구 1(연세대 한글연구소).
- 金昇坤(1978), 韓國語助詞의 通時的 研究, 大提閣.**
- 김영기(1974), Variation in Korean Negation, 語學研究 10-1.
- 김영희(1974), 대칭관계와 접속조사 “와”, 한글 154.
- (1975), 의문문의 이접적 특성, 문법연구 2.
- (1976a), 한국어수량화구문의 분석, 언어 1-2.
- (1976b), 形容詞의 副詞化 構文, 語學研究 12-2.
- (1976c), 복수 표지 “들”의 문법, 문법연구 3.
- (1978a), 겹주어론, 한글 162.
- (1978b), 삽입절의 의미론과 통사론, 말 3.
- 金完鎮(1970), 文接續의 ‘와’와 句接續의 ‘와’, 語學研究 6-2 (南基心
外共編 1975 所收).**
- (1979a), 鄕歌 解讀의 實際, 國語學 8.
- (1979b), 莫竹旨郎歌 解讀의 考究, 農檀學報 48.
- (1979c), 鄕歌 解讀의 考究 二篇—禱千手觀音歌와 願往生歌—,
東洋學 9.
- 김윤경(1948), 나라말본, 동명사.
- (1957), 고동나라말본, 동아출판사.
- 金韓坤(1975), 變換과 支配離脫制의, 서울大 語學研究所.**
- 金亨奎(1947), 謙讓詞의 研究, 한글 12-4~13-1.
- (1954), 主格토 “가”에 對한 小考, 崔鉉培先生還甲記念論文集.
- (1961), 오/우 插入母音敎, 朝鮮學報 21-22.
- (1962a), 겹양사 문제의 재론, 한글 129.
- (1962b), 國語史研究, 一潮閣.
- (1963), ㄻ末音體言敎, 亞細亞研究 6-1.
- (1975), 國語敬語法研究, 東洋學 5.

- 김화춘(Wha Choon Kim)(1976), *Theory of Anaphora in Korean Syntax* (Ph.D. Dissertation, MIT).
- 金興洙(1977), 繼起의 “-고”에 대하여, 國語學 5.
- (1978), 同時構文의 樣相, 國語學 7.
- 김진우(Chin-W. Kim)(ed.)(1978), *Papers in Korean Linguistics*, Colombia Hornbeam Press.
- 羅鎮錫(1964), 形容詞의 時制 研究, 陶南趙潤濟博士回甲紀念論文集
- (1972), 우리 말의 빼매김 연구, 両學社.
- 南廣祐(1957a), 玄曲用(添用 declension)語致, 論文集 2 (中央大學校).
- (1957b), 主格助詞 ‘가’에 대하여, 文耕 4. (中央大學校文理科大學).
- (1962), 國語學論集, 一字社.
- 南基心(1967), *An Analysis of True Contractions and Quasi-contractions of Quitative Verb Forms in Korean*, 啓明論叢 4.
- (1972), 現代 國語 時制에 關한 問題, 國어국문학 55-57합병호.
- (1973), 國語完形補文法研究, 啓明大出版部(書評: 高永根, 語文學 34, 1976).
- (1975), 이론바 國語時制의 基準時點 問題에 대하여, 韓國學論集 3(啓明大學).
- (1976), 關係冠形節의 相對 法, 又村姜蘋樹博士回甲紀念論文集.
- (1978a), 國어 연결어미의 詞用론적 기능, 延世論叢 15.
- (1978b), 國語文法의 時制問題에 關한 研究, 塔出版社.
- 南基心·高永根·李翊燮(共編)(1975), 現代國語文法(論文選), 啓明大學出版部.
- 南豐鉉(1976), 國語否定法의 發達, 문법연구 3.
- (1977), 國語處格助詞의 發達, 李崇寧先生古稀紀念國語國文學論叢, 塔出版社.
- 南豐鉉, 沈在箕(1976), 舊譯仁王經의 口訣研究, 東洋學 6.

- 노대규(1979), 상황소(deixis)와 한국어의 시제, 문법연구 4.
- 民族文化研究所(편)(1967), 言語·文學史, “韓國語形成史”(李基文), “文法史”(安秉禧), 韓國文化史大系 5(高麗大學校).
- 박병수(Byung-Soo Park)(1972), Complement Structures in Korean —A syntactic study of the verb *ha*—(PhD. Dissertation, Univ. of Pittsburgh), (백합출판사 복사간행, 1974. 9).
- (1974a), The Korean Verb *ha* Verb Complementation, 語學研究 10-1.
- (1974b), 韓國語 名詞補文 構造의 分析, 문법연구 1.
- (1976), 양태부사에 대하여, 언어 1-1.
- 박순함(Soon-Ham Park Kim)(1967), A Transformational Analysis of Negation in Korean (PhD. Dissertation, The Univ. of Michigan), (백합출판사 복사간행 1973).
- (1970), 「格文法」에 立脚한 國語의 「겸主語」에 對한 考察, 語學研究 6-2.
- 朴勝彬(1935), 朝鮮語學, 朝鮮語學研究會(通文館 복사간행 1972). (書評: 宋錫重, 語學研究 12-1, 1976)
- 朴良圭(1975), 所有와 所在, 國語學 2.
- (1978), 使動과 被動, 國語學 7.
- 박영순(Yong-Soon Park Choi)(1978), Aspects in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ve Competence with Reference to the Korean Deference System, Tower Press (탑출판사), (PhD. Dissertation, Univ. of Illinois).
- 박창해(1964), 한국어 구조론 연구(Ⅱ),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
- 朴亨達(1968), 十五世紀 國語의 冠形形에 나타나는 交替音韻 <ㄱ/ㄷ>의 機能에 대하여, 語學研究 4-2.
- (1973), 現代 國語 動詞의 動作參與要素의 統辭論一機能統辭論試

論一語學研究 9-2.

- (1976), 현대 한국어의 보조동사 연구, 언어학 1.
- (1977), 機能的 觀點에서의 補助動詞 研究(上), 언어학 2.
- (1978), 機能的 觀點에서의 補助動詞 研究(下), 언어학 3.
- 徐源任(1974), 使動法 記述 試案, 문법연구 1.
- 徐禎穆(1978), 體言의 統辭特徵과 15世紀 國語의 ‘-ㅅ, -이/의’, 國語學 7.
- 서정수(1969), 국어 부사류의 구문론적 연구(I), 언어와 문학 2.
- (1971), 국어 부사류의 구문론적 연구(II), 一제 약부사론—東方學志 12.
- (1972), 현대국어 대우법 연구, 語學研究 8-2.
- (1973), 접속어미 “-{는}데”에 관하여, 국어국문학 61.
- (1975), 동사 “하”的 문법, 형설출판사(서평: 박병수, 언어 2-1)
- (1976), 국어 시상형태의 의미분석 연구, 문법연구 3.
- (1977a), ‘더’는 회상의 기능을 가지는가? : 종결법과 인용법의 ‘더’를 중심으로, 언어 2-1.
- (1977b), “겠”에 관하여, 말 2.
- (1978a), “근것”에 대하여, 國語學 6.
- (1978b), 국어구문론연구, 탑출판사.
- 徐泰龍(1979), 內包와 接續, 國語學 8.
- 서경정(Kyoung-Jing Suk)(1975), Speech-act and Syntactic Regularity: A Study of Sentence Ender in Korean (PhD. Dissertation, The Univ. of Texas at Austin).
- (1976), The Syntax of Sentence Ender, 語學研究 12-1.
- 성광수(1978), 국어 간접파동에 대하여, 문법연구 3.
- (1979), 國語助詞의 研究, 형설출판사.
- 成善徹(1970), 國語 待遇法 研究, 論文集 4.(忠北大學), (南基心外共編

- 1975 所收).
- (1974), 經驗의 形態 {있}에 대하여, 문법연구 1.
- (1976), ‘-겠-’과 ‘-을 것이-’의 의미 비교, 김형규 교수 청년 퇴임 기념 논문집.
- (1979), 經驗과 推定, 문법연구 4.
- 성낙수(1975), 한국어의 회상문 연구, 문법연구 2.
- 손호민(1973), Coherence in Korean ‘Auxiliaty’ verb Constructions, 語學研究 9-2.
- (1975), Retrospection in Korean, 語學研究 11-1.
- (1976), Semantics of Compound verbs in Korean 언어 1-1.
- 송석중(Seok-choong Song)(1967), Some Transformational Rules in Korean (Ph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 (1971), A Note on Negation in Korean, Linguistics 76.
- (1973), Some Negative Remarks on Negation in Korean, 語學研究 9-2.
- (1974), 동의성, 國語學 2.
- (1975), Rare Plural Marking and Ubiquitous Plural Marker in Korean, 語學研究 11-1.
- (1976), On an Abbreviation Phenomenon in Korean, 언어 1-2.
- (1977), 「否定의 樣相」의 否定的 樣相, 國語學 5.
- (1978), 使動文의 두 形式, 언어 3-2.
- 송진오(ZiNo Song)(1978), Noun Complementation in Korean, Korean Linguistics 1.
- 宋喆儀(1977), 派生語 形成과 音韻現象, 國語研究 38.
- 申昌淳(1972), 現代韓國語의 用言補助語幹「겠」의 意義와 用法, 朝鮮學報 65. (南基心外共編 1975 所收).
- (1975), 國語의 「主語問題」研究, 문법연구 2.

- (1976), 國語統辭構造의 要點, 論文集 21 (釜山大學校).
- (1978), 國語統辭構造의 理論과 實際, 언어연구 1(부산대어학연
구소).
- (1979), 國語統辭論의 몇 가지 基本問題, 문법연구 4.
- 安秉禧(1959), 十五世紀 國語의 活用語幹에 對한 形態論的研究, 國語
研究 7, (1978 塔出版社에서 單行本으로 刊行).
- (1961), 主體讓讓法의 接尾辭 '-舍-'에 대하여, 震檀學報 22.
- (1963), づか語放, 国어국문학 26.
- (1965a), “文法論”, 國語學概論(講座), 首都出版社.
- (1965b), 後期中世國語의 疑問法에 대하여, 學術誌 6. (建國大
學校).
- (1965c), 十五世紀 國語 恭遜法의 한 研究, 국어국문학 28.
- (1966), 不正格(casus Indefinitus)의 定立을 위하여, 東亞文化 6.
(南基心外共編 1975 所收).
- (1967), 韓國語發達史(文法史), 民族文化研究所(編) 1967.
- (1968), 中世國語의 屬格語尾 '-人'에 대하여, 李崇寧博士頌壽紀
念論叢.
- (1977a), 中世國語口訣의 研究, 一志社.
- (1977b), 養蠶經驗摘要와 牛疫方의 吏讀의 研究, 東洋學 7.
- 梁東暉(1973), Inner and Outer Locatives in Korean, 語學研究 9-1.
- (1975), Topicalization and Relativization in Korean, 범한서적주
식회사. (Ph D. Dissertation, Indiana Univ. 1973).
- (1976a), Korean Negation Revisited, 언어 1-1.
- (1976b), On Complementizers in Korean, 언어 1-2.
- (1977), Pragmantax of Modality in Korean, 언어 2-1.
- (1978a), Pragmantax of Conjunction in Korean, 國語學 6.
- (1978b), 國어 관형절의 시제, 한글 162.

- 梁續錫(In-Seok Yang)(1972a), Korean Syntax: Case Markers, Delimiters, Complementation and Relativization, *백합출판사*. (Ph D. Dissertation, Univ. of Hawaii 1971).
- (1972b), 한국어의 접속화, 語學研究 13-2. (南基心外共編 1975 所收).
- (1973), Semantics of Delimiters in Korean, 語學研究 9-2.
- (1974), Two Causative Forms in Korean, 語學研究 10-1.
- (1976), 韓國語樣相의 話用相(I) : 提案文斗 命令文, 언어 1-1.
- (1977a), Progressive and Perfective Aspects in Korean, 언어 2-1.
- (1977b), 韓國語 副詞의 意味分析, 李崇寧先生古稀紀念國語國文學論叢.
- (1978), Pragmatics of going-coming Compound verbs in Korean: in Chin-W. Kim ed. (1978).
- 梁柱東(1942), 朝鮮古歌研究, 博文出版社. 增補版(1975), 一潮閣
- (1946), 麗謠箋註, 乙酉文化社.
- 오준규(1971a), On the Negation of Korean, 語學研究 7-2.
- (1971b), Aspects of Korean Syntax (PhD. Dissertation, Univ. of Hawaii, 법한서적주식회사 복사 1974).
- (1978), Another Look at Korean Negation, Korean Linguistics 1.
- 劉昌惇(1964), 李朝 國語史 研究, 宣明文化社.
- 이광호(1979), 중세국어 시제어미에 대하여—그 분포상의 제약을 중심 으로—, 韓國語文學會 朝鮮前期의 言語와 文學, 銀雪出版社.
- 李基文(1961), 國語史概說, 民衆書館.
- (1962), 中世國語의 特殊語幹 交替에 대하여, 震擅學報 23.
- (1972), 改訂 國語史概說, 民衆書館.
- 이기동(1975), Lexical Causatives in Korean, 어학연구 11-1.

- (1976a), Arguments against Lexicalization with Reference to Deadjectival Causatives in Korean, 언어 1-1.
- (1976b), 韓國語被動形分析의 檢討, 人文科學論叢 9(전국대).
- (1976c), 조동사의 의미분석, 문법연구 3.
- (1977a), 동사「오다」「가다」의 의미분석, 말 2.
- (1977b), 對照・讓步의 接續語尾의 의미연구, 語學研究 13-2.
- (1978), 조동사 “지다”的 의미연구, 한글 161.
- 李基白(1968), 國語文章의 構造研究, 李崇寧博士頌壽紀念論叢.
- 李吉鹿(1974), 國語文法研究, 日新社.
- 이기용(1975), 時相에 관한 意味公準의 設定, 語學研究 11-2.
- (1976), 時間論：“지금”의 意味, 語學研究 12-2.
- (1978), 言語와 推定, 國語學 6.
- (1979), 두가지 否定文의 同義性 與否에 대하여, 國語學 8.
- 李男德(1963), 國語文法의 單位問題, 국어국문학 26.
- (1970), 十五世紀 國語의 叙法研究, 梨花女大學位請求論文(油印本).
- 이동재(Dong Jae Lee)(1978), *Kuliko: An Adverb or a Conjunctor?*, Korean Linguistics 1.
- 李孟成(1968), Nominalizations in Korean, 語學研究 4-1(別卷).
- (1973), Variation of Speech Levels and Interpersonal Social Relationship in Korean, 閑山李鍾洙博士頌壽論叢.
- (1975), 韓國語終結語尾와 對人關係要素의 相關關係에 관한 연구, 人文科學 34·35 (延世大).
- 李相億(1970), 國語의 使動・被動 構文研究, 國語研究 26.
- 李崇寧(1949), 古語의 音韻斗 文法, 文化堂.
- (1953), 格의 獨立品詞是非, 국어국문학 3.
- (1954), 古典文法, 乙酉文化社.

- (1956), 고등국어문법, 을유문화사.
- (1957), 濟州道方言의 形態論的 研究, 東方學志 3.
- (1958), 主格 ‘가’의 發達과 그 解釋, 國어國文學 19.
- (1959), 語幹形成과 活用語尾에서의 ‘오/우’의 介在에 대하여, 論文集 8 (서울대학교).
- (1960a), 고등국어문법(개정판), 을유문화사.
- (1960b), volitive form으로서의 prefinal ending 「-(o/u)-」의 介在에 對하여, 殷檀學報 21(李崇寧 1972 所收).
- (1961), 中世國語文法, 乙酉文化社.
- (1962), 謙讓法 研究, 亞細亞研究 5-2(通卷 10).
- (1964a), 「-(오/우)-」論攷, 國어國文學 27(李崇寧 1972 所收).
- (1964b), 中世國語의 MOOD論—許雄氏의 所論에 答함一, 語文學 11(李崇寧 1972 所收).
- (1964c), 敬語法 研究, 殷檀學報 25·26·27 合併號 (李崇寧 1972 所收).
- (1966), 國語學論叢, 東亞出版社.
- (1972), 國語學 研究, 萤雪出版社.
- 李承旭(1958), 國語의 時制研究, 國語研究 6.
- (1963), 疑問添辭攷, 國어國文學 26(李承旭 1973 所收).
- (1967), 15世紀 國語의 先語末接尾辭 <-가/거->, 國文學論集 1. (檀國大學校).
- (1969), 主語의 統辭에 關한 考察, 國文學論集 3(檀國大學校 文理科大學 國語國文學科). (南基心外共編 1975 所收).
- (1970), 過去時制에 대하여—15世紀의 “-더-”를 中心으로—, 國어國文學 49·50 합병호.
- (1973a), 現代國語의 格의 相關係性, 李承旭(1973b)所收.
- (1973b), 國語文法體系의 史的 研究, 一潮閣.

- (1977), 文法史의 몇 問題, 國語學 5.
- 李翊燮(1965), 國語複合名詞의 IC分析, 國어국문학 30. (南基心外共編 1975 所收).
- (1966), 國語複合名詞의 액센트 考察, 國어국문학 31.
- (1967), 複合名詞의 액센트 考察一句와 句形複合語를 區分시켜 주는 marker를 찾기 위한 試攷로서一, 論文集 6(人文·社會科學篇) (學術院).
- (1968), 漢字語 造語法의 類型, 이승녕박사송수기념논총.
- (1969), 漢字語의 非一音節 單一語에 대하여, 金載元박사환갑기념논문집.
- (1970), 새국어문법, 서울대학교재일교포예비교육과정부.
- (1972), 江陵方言의 形態音素論의 考察, 窯壇學報 34.
- (1973), 國語數量詞句의 統辭職能에 대하여, 語學研究 9-1.
- (1974a), 嶺東方言의 敬語法 研究, 論文集 6(서울大教養課程部).
- (1974b), 國語敬語法의 體系化問題, 國語學 2.
- (1975), 國語造語法의 몇 問題, 東洋學 5.
- (1978a), 被動性 形容詞文의 統辭構造, 國語學 6.
- (1978b), 한국어의 再歸代名詞에 대하여, 人文論叢 1(서울大學校人文大學).
- 이익환(Ik-Hwan Lee)(1978a), Some Aspects of Indirect Speech Acts in Korean, In: Chin W. Kim(ed.) (1978).
- (1978b), Korean Particles, Complements, and Questions: A Montague Grammar Approach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1978c), Pronominal Anaphora, 語學研究 14-1.
- (1979), Korean particles *kkaci/mace* 'even' and Scope of Negation, 언어 4-1.

- 李仁模(1971), 古典國語의 研究, 宣明文化社, 增補·改正版(1976)
- 이정노(Jung-no Rhee)(1974), Topics in Korean Syntax with Notes to Japanese, Yonsei University Press.
- 이정민(Chung-min Lee)(1973a), Presupposition of Theme for Verbs of Change (in Korean and English), Foundations of Language 9.
- (1973b), The Korean Modality in the Speech Act, Papers in Linguistics, University of Michigan 1-2, (번역: 南基心外 共編 1975 所收).
- (1974), Abstract Syntax and Korean with Reference to English, 범한서적주식회사. (PhD. Dissertation, Indiana Univ. 1973).
- (1976), Cases for Psychological Verbs in Korean, 언어 1-1.
- (1977), 否定命令의 分析, 語學研究 13-2.
- 李鍾徹(1964), 現代國語의 時制와 相의 研究, 國語研究 12.
- (1969), 바로매김(直接時制)의 이제이음(現在繼續)에 對한 Aktionssart的 解釋—統辭論의 同心構成에서 deep structure를 中心으로一, 국어국문학 42·43 합병호.
- 李鴻培(1966), A Transformational Outline of Korean, 語學研究 2-2. (서평: 국옹도, 語學研究 3-2, 1967).
- (1970a), A Study of Korean Syntax, 범한서적주식회사(서평: 서정수, 語學研究 8-1, 1972).
- (1970b), On Negation in Korean, 語學研究 4-2.
- (1971a), The Category of Mood in Korean Transformational Grammar, 語學研究 7-1. (번역: 南基心 外 共編 1975 所收).
- (1971b), 이행소(performative)와 국어변형문법(I), 한글 147.
- (1971c), 이행소(performative)와 국어변형문법(II), 한글 148.
- (1971d), 變形生成文法理論適用上의 몇가지 誤謬, 語學研究 7-2.
- (1972), 國語否定文記述에 있어서의 問題點, 語學研究 8-2.

- (1974), 國어의 变形생성문법(I), 문법연구 1.
- (1975), 國어의 变形생성문법(II), 문법연구 2.
- (1976), Notes on Pronouns, Reflexives, and Pronominalization,
語學研究 12-2.
- (1979), 國어의 变形생성문법(III), 문법연구 4.
- 李桓默(1977), 國어의 極語와 話用上의 假定, 語學研究 13-2.
- 이회승(1949), 初級國어文法, 박문 출판사.
- (1955), “文法論”, 國語學概說, 民衆書館.
- (1957), 新고등文法, 일조각.
- (1959), 體言의 活用에 대하여, 國어國文學 20.
- 任洪彬(1972a), 國語의 主題化 研究, 國語研究 28.
- (1972b), NP-並列의 {와/과}에 대하여, 論文集(인문·사회과학
편) 4.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 (1973), 否定의 樣相, 論文集 5(서울大 교양과정부).
- (1974a), {로}와 選擇의 樣態化, 語學研究 10-2.
- (1974b), 名詞化의 意味特性에 대하여, 國語學 2.
- (1976), 副詞化와 對象性, 國語學 4.
- (1977), 被動性과 被動構文, 論文集 12(國民大學).
- (1978), 否定法論議와 國語의 現實, 國語學 6.
- 張京姬(1977), 17世紀 國語의 終結語尾研究, 師大論叢 16(서울師大).
- 張爽鑑(1966), Some Remarks on Korean Nominalization, 語學研究 2-1.
- (1972), Deixis의 生성적 고찰, 語學研究 8-2.
- (1973a), 時相의 樣相: 「繼續」·「完了」의 生成的 考察, 語學研究
9-2.
- (1973b), A Generative Study of Discourse in Korean: On Con-
nective Sentences, 語學研究 9-2.
- (1973c), A Generative Study of Discourse with Special Reference

- to Korean and English, 語學研究 9-2 (別卷).
- (1974), 보이나 안 들리는 「너」와 「나」—화용상의 기술—, 語學研究 10-2.
- (1975), 問答의 話用上, 語學研究 11-2.
- (1976), 對話의 分析 : 情報와 照應, 應用言語學 8-2.
- 장지영·장세경(1976), 이두사전, 正音社.
- 鄭然榮(1972), 鄭歌解讀一斑, 人文研究論集(一潮閣) 4.
- 장하일(1957), 날말의 定義, 일석이회승선생송수기념논총.
- 정렬모(1946), 新編高等國어文法(新編高等國語文法), 한글문화사.
- 정인승(1949), 표준중등말본, 아문각.
- (1956), 표준고등말본, 新丘文化社.
- 蔡琬(1976), 助詞 ‘는’에 대하여, 國語學 5.
- (1977), 現代國語 特殊助詞의 研究, 國語研究 39.
- (1980), 話題의 意味, 冠岳語文 4.
- 崔明玉(1980), 慶北 東海岸 方言研究, 民族文化叢書 4(嶺南大 民族文化研究所).
- 崔昇平(1969), Korean Verb Inflection: A Tagmemic Study of the Verb *ka*, 語學研究 5-1.
- 崔昌烈(1978), 選言의 疑問의 意味構造, 언어 3-1.
- 崔鉉培(1930), 朝鮮語의 品詞分類論, 朝鮮語文研究(延禧專門學校文科論文集 1)
- (1934), 중등조선말본, 東光堂書店.
- (1937), 우리말본(온책초판), 延禧專門學校出版部
- (1956), 고등말본, 경음사.
- (1971), 우리말본(네번째고침), 경음사.
- 許雄(1954), 尊待法史, 成均學報 1. (成均館大學校).
- (1955), 龍飛御天歐, 正音社.

- (1958a), 國語音韻論, 正音社.
- (1958b), 捕入母音攷, 論文集 7 (서울大學校) (許雄 1963c에 改題 所收).
- (1959), 捕入母音 再攷, 한글 125(許雄 1963c에 改題 所收).
- (1961), 서기 15세기 국어의 존대법과 그 변천, 한글 128(許雄 1963c에 改題 所收).
- (1962), 존대법의 문제를 다시 논함, 한글 130(許雄 1963c에 改題 所收).
- (1963a), 또다시 人稱・對象 活用語尾로서의 “오/우”를 論함, 語文學 10(許雄 1963c에 改題 所收).
- (1963b), 또다시 존대법의 문제를 논함, 한글 131(許雄 1963c 改題 所收).
- (1963c), 中世國語研究, 正音社.
- (1964a), 西紀 15世紀 國語의 使役・被動의 接辭, 東亞文化 2.
- (1964b), 이승녕박사의 “中世國語 Mood論”에 대한 비판—아울러 필자에 대한, 그 무책임한 세번째 반박에 답함—, 한글 133.
- (1969), 옛말본, 科學社.
- (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 玄平孝(1974), 濟州道方言의 定動詞語尾研究, 아세아문화사.
- (1977), 濟州道方言의 尊待法, 국어국문학 74.
- 洪起文(1947), 朝鮮文法研究, 서울신문社.
- 洪淳鐸(1974), 吏讀研究, 光文出版社.
- 洪允杓(1969), 15世紀 國語의 格研究, 國語研究 21.
- (1975), 主格語尾 「-가」에 대하여, 國語學 3.
- (1978), 方向性 表示의 格, 國語學 6.
- 황적륜(Juck-Ryoon Hwang) (1975), Role of Sociolinguistic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with Reference to Korean and English Terms

of Address and Levels of Deference, 탑출판사 (PhD. Dissertation,
Univ. of Texas at Austin 1975).

황종인(Chong-In Hoang)(1977), Die Grenzen der Grammatik (Inaugural-Dissertation, Universität Bonn).

황찬호/이계순/조준학/김한곤(1968), 한국어와 영어의 비교분석, 서울 대학교 어학연구소.

大江孝男(Takao Ooe)(1958a), On the Indicative Endings in Modern Korean, 言語研究 34 (日本言語學會).

———(1958b), 中期朝鮮語の オ～ウ語幹に就いて, 朝鮮學報 12.

———(1968), 中期朝鮮語動詞(用言)の ソ～ト語幹について, 李崇寧博士頌壽紀念論叢, 乙酉文化社.

———(1972), 用言語尾の 意味と 體系—現代朝鮮語の 連用形語尾について, 現代言語學, 三星堂.

小倉進平(1929), 鄕歌及び吏讀の研究,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紀要 1.

———(1938), 朝鮮語に於ける謙讓法・尊敬法の助動詞, 東洋文庫論叢 26 (小倉進平 1975 所收).

———(1975), 小倉進平博士著作集, 京都大學文學部國語學國文學研究室 油谷幸利(1978), 現代韓國語의 動詞分類, 朝鮮語報 87.

前間恭作(1909), 韓語通, 東京:丸善株式會社(前間恭作 1974 所收).

———(1924), 龍歌古語箋, 東洋文庫論叢 2 (前間恭作 1974 所收).

———(1974), 前間恭作著作集, 京都大學文學部 國語學國文學研究室.

志部昭平(1972), 中期朝鮮語の 疑問法語尾に就て, 朝鮮學報 62.

河野六郎(1946), 中期朝鮮語の 完了時稱に就いて, 東洋語研究 1. (河野六郎 1979 所收).

———(1948), 朝鮮語の 過去 de に就て, 東洋學研究 4 (河野六郎 1979 所收).

———(1950), On the Intensive Stem of Middle Korean, 言語研究 16

(河野六郎 1979 所收).

- (1951), 中期朝鮮語の時稱體系に就いて, 東洋學報 34卷 1-4號 (河野六郎 1979 所收).
- (1979), 河野六郎著作集 1 (朝鮮語學論文集), 平凡社.
- Abasolo, Rafael, O.F.M. (1974), Basic Semantic Structures of Korean (Ph.D. Dissertation, Georgetown University) (탑출판사 복사간행, 1977), (서평 : 이기동, 언어 3-1, 1978).
- Abasolo, Rafael, O.F.M. (1978), Semantic Trends in Verbal Compounding In: Chin-w Kim (ed.) (1978).
- Dupont, René et Joseph Millot (1965), Grammaire Coréenne, Seoul.
- Eckardt, P.A. (1923), Koreanische Konversations-Grammatik mit Lestexten und Gesprächen, Heidelberg.
- Lewin, Bruno (1970), Morphologie des koreanischen Verbs, Wiesbaden: Otto Harrassowitz (서평 : 高永根, 言語教育 6-2, 1974).
- Martin, Samuel E. (1954), Korean Morphophonemics,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Baltimore.
- Martin, Samuel E. (1964), Speech Levels in Japan and Korean, Language in Culture and Society.
- Martin, Samuel E. (Forthcoming), A Korean Reference Grammar.
- Ridel, F. (1881), Grammaire coréenne, Yokohama.
- Patterson, B. Soon Ju (1974), A Study of Korean Causatives,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6-4 (Univ. of Hawaii).
- Pihl, M.R. Jr. (1965), A Study on Non-conclusives in Modern Korean, 國語研究 16.
- Ramstedt, G.J. (1939), A Kerean Grammar, Helsinki.
- Ross, John (1882), Korean Speech with Grammar and Vocabulary, New Edition, Shanghai.

- Roth, L. (1936), Grammatik der koreanischen Sprache, Tokwon.
- Sasse, W. (1975), Zur sequentiellen Ordnung der Nominalendungen im Koreanischen, VOAI (Bochum 大學 東亞學研究所 論文集) Bd. 11.
- Shibatani, M. (1973), Lexical versus Periphrastic Causatives in Korea, Journal of Linguistics 9.
- Shibatani, M. (1975), On the Nature of Synonymy in Causative Expressions, 語學研究 11-2.
- Shibatani, M. (1976), Relational Grammar and Korean Syntax, 語學研究 12-2.
- Underwood, H. G. (1890),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Yokohama.

참 고 문 헌*

*주로 脚註에서 언급된 文法學史 관계의 論著를 정리한 것이다.

- 姜信沆(1979), 國語學史, 普成文化社.
- 姜馥樹(1972), 國語文法史研究, 萱雪出版社.
- 高永根(1970), 서평 : S.E. Martin et al. Beginning Korean (1969), 言語教育 3-1.
- (1974), 서평 : B. Lewin, Einführung in die Koreanischen Sprache (1974), 言語教育 6-2.
- (1976a), 西洋人의 韓國語文法研究, 韓國語文論叢 : 又村姜馥樹博士回甲紀念論文集.
- (1976b), 19世紀 中葉의 불란서 宣教師들의 韓國語研究에 대하여, 金亨奎教授停年退任紀念論文集.
- (1978a), 國語文法研究一世紀(上), 韓國學報 12.

- (1978b), 韓國文法研究一世紀(中), 韓國學報 13.
- (1979a), 19世紀 前半期의 西洋人의 國語研究 資料, 冠岳語文 3.
- (1979b), 國語文法研究一世紀(下), 韓國學報 14.
- (1979c), 周時經의 文法理論, 韓國學報 17.
- (1979d), 로우니(L. de Rosny)의 國語研究, 余泉徐炳國博士回甲紀念論文集.
- (편)(1980), Current Papers in Linguistics 7, 탑출판사.
- 김계곤(1974), 《우리말본》초간책과 수정책과의 비교, 나라사랑 14.
- 金敏洙(1977a), 油印「高等國語文典」에 대하여, 月巖朴晟儀博士還曆紀念論叢(高大國語國文學研究會).
- (1977b), 金奎植「大韓文法」의 研究, 人文論集 22(高麗大學校文科大學)
- (1977c), 周時經研究, 塔出版社.
- (1978, 1979), 周時經의 草稿「말」에 대하여(자료해설), 亞細亞研究 61, 62.
- (1978), 初期 國語文法斗 日本洋學, 人文論集 23 (高大文科大).
- (1980), 新國語學史(改訂版), 一潮閣.
- 金敏洙·河東鎬·高永根(1977, 1979, 未刊), 歷代韓國文法大系, 塔出版社.
- 김석득(1971), 《우리말본》, 나라사랑 1.
- (1974), 김윤경「조선 말본」에 대하여, 인문과학 32 (延世大學校人文科學研究所).
- (1975), 韓國語研究史(下), 延世大學校 出版部.
- 金允經(1938), 朝鮮文字及語學史, 朝鮮紀念圖書出版館.
- 南基心(1972), 현대국어문법사, 국어국문학, 58-60 합병호.
- (1974), 《우리말본》의 써갈에 대하여, 나라사랑 14.
- (1976), 國語의 時制, 언어 1-2.

- (1977), 國語學이 걸어온 길, 言語科學이란 무엇인가, 文學과 知性史.
- 박기덕(1977), 성층문법이론에 입각한 한국어 분석지도, 말 2.
- 서정수(1974a), 《우리말본》의 월갈 연구, 나라사랑 14(서정수 1978b 所收).
- (1974b), 국어의 부정법 연구에 대하여, 문법연구 1.
- (1977), “현대국어 구문론 연구에 대하여”, 나라사랑 26(서정수 1978b 所收).
- (1978), 국어의 보조동사, 언어 3-2.
- 徐禎哲(1975), 테니에르의 통사론, 言語와 言語學 3.
- 宋錫重(1976), 박승빈:「朝鮮語學」소고, 語學研究 12-1.
- 신수송(1976), 현대 독어학의 Dependenzgrammatik, 語學研究 12-1.
- 李基用(1974), 몬태규文法의 特性, 語學研究 10-2.
- 李秉根(1979), 周時經의 言語理論과 鈍씨, 國語學 8.
- 李崇寧(1965), 天主教神父의 韓國語研究에 對하여, 亞細亞研究 8-2.
- 李翊漢(1967), 우리 말본研究, 論文集 9(全北大).
- 이정민(1975), 國語의 補文化에 대하여, 語學研究 11-2.
- 이홍배(1975), 국어의 關係節化에 대하여, 語學研究 11-2.
- 任洪彬(1974), 主格重出論을 찾아서, 문법연구 1.
- 장석진(1976), 話用論의 記述(生成文法에 의한 國語記述의 再檢討), 語學研究 12-2.
- 황적륜(1976), 國語의 尊待法, 언어 1-2.
- 허 발(1979), 날말발의 이론, 學術研究叢書 14(高麗大學校 出版部).
- 허 응(1971), 주시경선생의 학문, 東方學志 12.
- 菅野裕臣(1979), 世界における 朝鮮言語學の動向(1973~), 東方學 57.
- 小倉進平(1964), 増訂・補註朝鮮語學史, 東京: 刀江書院.
- Kuno, S. (1973), The Structure of Japanese Language, The MIT

Press.

- Li, C.N. (1976),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 Mel'cuk, I.A. (1976), *Das Wort: Zwischen Inhalt und Ausdruck*,
Dressler, Wolfgang (1973), *Einführung in die Textlinguistik*, Tübingen:
Max Niemeyer Verlag.
- Kiefer (1975) (Hrsg), *Morphologie und generative Grammatik*, Frank-
furt am Main: Athenaion.
- München: Fink Verlag.
- Prager Autorengruppe (1973), *Functional Generative Grammar* in
Prague, Kronberg: Scriptor Verlag.
- Sgall, P./E. Hajičová/E. Benešová (1973), *Topic, Focus and Generative
Semantics*, Kronberg: Scriptor.